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방안연구

2004. 12.

(연구기관 : 그린투어컨설팅)

농 립 부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제 출 문

농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역량 강화
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산업연구원
연구관리책임자 엄 대 호 책임연구원	연구책임자 유 상 오 박 사 연구 원 최 동 주 박 사

농 립 부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요 약 문

1. 연구과제명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방안

2. 연구기간 : 2004년 7월 10일 ~ 2004년 12월 30일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농산물대외개방에 따른 농촌 위기를 극복위한 다양한 농촌 활성화 방안모색 되고 있다. 사회적 여건도 주5일제 실시로 농촌관광수요가 증대하면서 고속전철 개통으로 전국적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또 그린투어나 1사1촌을 중심으로 하는 도농녹색교류도 최근 증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도시민들을 수용하거나 지역자원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해 이를 체계화할 농촌인력자원개발이 필요하다.

3.2 목 적

이 연구는 도농교류 촉진과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체제 구축하고 교육을 통한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의 경쟁력 제고와 운영 효율화와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시스템화하고 지역개발주체의 역량제고를 실현한다

4. 연구내용 및 결론

4.1 연구내용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그리고 지역개발 교육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농촌관광 지도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 인력육성을 연구하며 도·농 교류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지역개발 분야는 직무분야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한다.

4.2 연구결과

공공과 민간이 체계적인 농업인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실제 민박과 농촌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농업인 농촌관광마인드 확산과 도농교류 교육 기반체계 확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재택·반복교육, 상위 전문과정의 교육이수를 위한 사이버학당 원격콘텐츠를 농촌관광경영관련 분야로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연구결과의 실용화 방안

시행초기에는 과정별 교육내용이 차별화 되지 못하고 수준에 맞춰 선택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만족도 떨어질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할 교육기관의 업무 분장과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교육과정과 내용이 교육생의 수준, 교육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보다 명확한 구분이 필요가 있으며 교육 희망자의 활용 유형에 따라 기초·심화 등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민교육 과정은 민간기관과 언론기관을 적극 교육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논문의 구체적인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방안—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 배경

- 농촌 위기를 극복위한 다양한 농촌 활성화 방안모색
- 주5일제 실시로 농촌관광수요 증대
- 고속전철 개통으로 전국적 접근성 개선
- 1사1촌을 중심으로 하는 도농녹색교류 증진

1.2 필요성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으로서 인력육성 요구
- 농민과 지도자가 지역발전주체로 전환
- 도농연계시스템 마련필요
- 귀농촉진을 위한 프로그램마련

2. 연구목적과 내용

2.1 연구목적

- 도농교류 촉진과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체제 구축
- 교육을 통한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의 경쟁력 제고와 운영 효율화
-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육성

-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시스템화하고 지역개발주체의 역량제고

2.2 연구내용

-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그리고 지역개발 교육의 전문성을 신장
- 농촌관광 지도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 인력육성
- 도농 교류시스템을 마련
- 지역개발분야는 직무분야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3. 인적자원의 개념

3.1 검토배경

- 용어개념의 혼재와 불명확

3.2 '인적자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

- OECD :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복지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 기술, 능력 및 속성
- Oxford 사전 :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사람

3.3 '인적자원'의 개념과 변화

- 인적자원 : 국민 개개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
- 인적자원개발 :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기 위한 제반활동
- 인적자본의 개념변화 : 인적자본→양적(stock)부가가치→질적 부가가치→인적자원

3.4 주체역량의 개념

- 주체역량 :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종합화와 능력과 품성의 향상과 습득을 촉진

3.5 농촌인력과 육성의 개념

- 농촌인력 : 대통령령이 정한 농촌 즉, 군지역과 일부 시에서 농업과 이에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
- 농촌인력 육성 :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비농촌인력이나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농촌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양성

4.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관점에서의 인적자원 개념

4.1 선행연구

- 현재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관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논의가 전개

4.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관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 지역개발 : 주체적으로 지역지도자나 주민(인적자원)이 농촌관광 혹은 지역 활성화를 하는 것
- 농촌관광과 지역개발관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 농민 개개인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연마해 경제사회적 이득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4.3 농촌지역개발(rural development)과 인적자원의 범주

- 인적자원개발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전략과 교육훈련시스템, 지역혁신시스템이 상호 관련
-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혁신체계(Industrial innovation system)와 교육혁신체계(Educational innovation system)를 병행
- 두 혁신체계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역건설을 위한 혁신활동과 의식화 운동이 수반

II.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현황과 문제점

1. 한국농촌의 인구 현황

1.1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 2004년 330만명 총인구대비 7.2%

- 2020년 180만명 총인구대비 2%대로 예상

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의 현황

2.1 현재까지 농촌인력의 확보 수단

- 농촌 인력의 대부분은 4-H회원과 새마을 출신
- 이외에도 농민운동으로서는 가톨릭농민회, 전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민연합회 등 농촌지도력을 향상시킴

2.2 농촌인력의 양성

- 농촌인력의 양성은 예비 농업인력을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하여 신규농촌인력으로 전환
- 학교교육을 통한 농촌인력 양성과 사회교육을 통한 농촌인력 양성으로 구분

2.3 농촌인력의 신규 진입

- 학교교육기관이나 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양성된 농촌인력을 관련분야로 신규 취업하도록 유도
- 행정지원으로 후계농업인의 선정·지원, 신규영농창업·벤처농업 지원, 귀농정착 지원, 신지식농업인 육성 등 구분
- 신지식농업인의 양성은 기술강의·현장실습 등 단계별 신지식농업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 육성
-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영농후계자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후계농업인 제도를 마련

2.4 농촌 인력의 육성

-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지식기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예농업 인력을 확보
- 전업농·선도농으로 성장, 전문농업교육훈련, 농업컨설팅, 농업인력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체계적 육성

2.5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인력의 사회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 대부분의 사회교육기관은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주체인력개발교육은 실시하지 않음
-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모색과 농촌관광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
- 농촌 관광인력의 정보화교육 필요

3.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의 문제점

3.1 농촌인력 확보의 문제점

- 예비 농촌인력과 전문필요인력 유인 미흡
- 농촌인구 및 농가인구의 확보 어려움

3.2 농촌인력 양성의 문제점

- 농촌경제인구 수급 대폭 개선 요망
- 농업농촌인력 양성관련 기관간 연계 부족
- 농촌인력 양성기관의 특성화 미흡
- 농촌교육훈련 내용의 현장 적용상 어려움
- 교육훈련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 양성기관의 교육여건 미흡
- 행·재정적 지원의 차등화 부족

3.3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 신규 진입의 문제점

- 신규 농촌인력 진입 장애 요인의 문제
- 그린투어농업인 선정 및 지원의 문제
- 귀농 정착 지원의 문제
- 벤처농업 지원의 문제

3.4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의 유지·개선의 문제점

- 국가적 지원의 미흡
- 농업농촌컨설팅 서비스 미흡

- 그린투어 인력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미흡

3.5 기타

- 농촌체험 현장 중심 "연구-교육-컨설팅"의 연계 미흡
- 농업 지식정보의 공유 미흡

4.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의 인적자원 사례분석

4.1 홍성 문당리 주영로회장과 주연사례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 이념적 영향을 받음
- 일에 대한 그의 열의와 추진력은 상당히 강하며 전략과 계획이 있음
- 환경농업교육관을 건립과 유기축산을 시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환경친화적 마을 발전도모
- 마을 주민의 참여를 동반한 오리농법의 성공으로 마을에서 점차 인정
- 마을 발전을 위한 탁월한 비전 제시와 지속적인 설득, 헌신적인 봉사에 의해 생성

4.2 광양 청매실농원 사례

- 스스로 매화나무를 심고 매실을 연구해 저장성을 높이고 효능도 높이면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개발
- 1995년에는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청매실농원을 탄생
- 매실의 가공, 상품화가 성공하면서 주변 마을에 매실재배가 확산하면서 매실농원 자체의 관광자원화
- 홍쌍리는 농원의 발전성과를 주민이 받아들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계기
- 고집스러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
- 홍쌍리여사는 지도력과 친화력을 고루 갖춘 여성지도인력

4.3 마을 발전 요인별 분석

- 리더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실력(농업, 마케팅, 판매, 소득 등)과 주변 주민들과 차별화해야 함
- 혁신적 사고를 통해 초기에 일정한 정도로 경제적, 가시적 성과와 효과를 나타내어야 주민에게 수용
- 주민 참여를 유발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가능성모색
- 정책적 지원은 초기 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유인책

4.4 농촌관광과 지도지역할

- 기술과 경영능력을 두루 갖추며 혁신적 사고를 가진 새로운 형태의 리더필요
- 신행리더는 이념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
- 신행리더는 기획, 관리, 정보, 조직, 기술력 등을 갖추고 있음

4.5 정책적 함의

-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경제조직의 활성화
- 마을의 '약한 연대'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마을 외부네트워크와의 사회적 자본을 취득
- 마을 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 전문가 파견 제도를 도입
-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

5. 기업체 등 타 분야의 인력육성현황

- 기업체 등 타 분야의 인적자원육성방안은 농촌의 인력육성과 차이
- 본질적인 경쟁사회의 인력육성방안이라는 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최전선이라는 점에서 시사점

5.1 한국 기업에 있어서 인재 육성

- 신입 사원 교육은 조직 구성원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과 조직 적응 능력을 속성으로 배양하는데 중점
- 인력 풀이라고 부르는데 대개 대졸 공채생들이 대리, 과장, 부장, 이사 등으로 승진하면서 중심 세력
- 외부영입 인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리더로 성장하기는커녕, 생존도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

5.2 리더의 육성에 관련된 이슈

- 기업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 회사 단위의 경력개발 제도의 시행이 어렵게 되자 개인 본위의 경력 개발이 활발
- '일을 통한 육성'이란 CDP를 일부 선발된 인재나 개인에게 중점 실시하여 리더를 육성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후계자 후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사내·외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고 향후 그의 리더십에 균열위험
- 승진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진술이 애매모호하여 평가자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
- 발탁 제도를 남발하면 조직 내부에 심한 갈등과 혼란

5.3 리더의 유지 및 이탈 방지와 관련된 이슈

- 유능한 인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음
- 이탈의 원인은 주로 평가와 보상에 대한 불만
- 관리층이 이탈하는 이유와 경영층이 이탈원인은 신분 불안

5.4 한국의 인재육성의 특징

- 소유 경영자들의 교육, 자기 개발에 대한 대책이 마련
- 리더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한국형 리더십의 개발도 중요

5.5 기업의 인재육성의 교훈

- 선진기업 CEO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의 성공요인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
- 관심사는 e-Business 추세 대응
- 요구되는 핵심기술 및 인력의 기대수준과 현실과의 차이
- 우수한 인재의 지속적 보유
- 새로운 리더의 육성 등 대부분이 지식사회에 요구되는 변화와 인적자본의 문제로 집약

6. 정책과제

6.1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인력교육 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관광인력 사회교육 시스템
- 파소공급 가능성이 높은 지역 교육분야에 집중 투자
- 그린투어 관련 소모임/학습동아리 지원육성방안마련
- 사회교육담당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실시

6.2 농촌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읍, 면 등 기초단위의 역할

- 농촌관광인력육성에 관해 사회교육기관 역할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커질 전망
- 지역유휴시설인 농협, 학교, 우체국 등의 개방을 통하여 교육장 및 교육시설을 확보한 것이 바람직 함
- 농촌관광 사회교육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인적자원을 발굴, 육성이 가장 중요
- 지역단위의 유휴 공공시설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자원 인사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

6.3 농촌관광인력 사회교육기관의 특성화 및 전문화

- 대개의 교육기관의 경우 취미 교양위주의 강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역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기술위주의 일상생활관리 교육의 비중이 높음
-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관광인력대학 역시 농협의 주부대학과 프로그램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없음
- 농촌관광인력을 사회교육기관별로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대두

6.4 교육참여 여건의 조성

- 농촌관광인력 전용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 현장교육 및 순회교육 활성화
- 여성의 역할이 강화된 그린투어교육 강화

III. 외국의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관련 인력개발

1. 외국의 인적자원육성

1.1 선진국의 지역분권과 인적자원개발 의미

- 지역실정에 맞고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혀 인적자원개발의 성과를 제고
- 지역정보망의 구축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인적자원개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
- 지역산업체와 산학협동중진 등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

1.2 외국의 동향 및 사례

- 선진국은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인력예측모형을 비교적 고루 잘 갖추고 운영
- 미국은 지역네트워크의 관심이 인적자원개발에 집중
- 영국은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가운데 교육부문의 활동은 주로 각 지방의 지역교육행정기관 중심으로 실시
- 캐나다는 지역경제개발공사가 주축이 된 지역네트워크에 의하여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

2. EU의 LEADER 프로그램

2.1 EU의 LEADER 프로그램의 배경

- 농촌 지역중에서 조건불리지역에서는 농민의 이농, 취업기회의 상실,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급속한 증대
- CAP의 원칙고수가 오히려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인식

2.2 EU의 LEADER 프로그램

- LEADER 프로그램의 접근방법은 지역(territorial), 다부문(multi-sectoral), 참여(participatory)로 요약
- 새로운 농촌개발 모델을 개발
- 경험교환과 노하우의 보급을 촉진
-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지도자에 의해 기획되어지고 지역을 초월한 개발프로젝트를 지원
- 실증적이고 보급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2.3 LEADER 프로그램 개관

- 추진체계는 수평적으로는 사업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
- 재정집행은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 투자비율은 7 대 3 정도
- 사업내용은 농촌개발활동, 직업훈련 및 지원, 농촌관광, 중소기업, 수공업, 농촌서비스업 지원, 농산물 마케팅 등
- LEADER I기에 있어서 217개 개별사업에 있어서 약 1/3 이상의 71개소가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개발을 실행
- LEADER사업과 같이 내발형 활성화를 목적하는 경우 그린투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

3. 선진국의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

3.1 영국

- 영국의 농촌관광 활성화는 다양한 대책을 중심으로 접근
- 경영조언과 컨설팅, 직업훈련과 교육, 자본투자자와 보조, 마케팅 지원 4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
- 영국에서 그린투어를 통한 소득창출과 창출효과의 증대 지역이나 마을이미지관리 모든 점을 중시

3.4 일본

- 그린투어교육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실시
- 도시농산어촌활성화기구는 전국을 커버
- 민간은 전문가과정을 양성
- 민박교육과 인터넷교육도 실시

IV.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인력 육성방안

1.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의 개선방안

1.1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을 위한 이미지 제고

- 농심을 전달하며 NTC기능과 농촌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
- 이를 위해서는 농촌주민자체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이 요구
- 우수한 인적 자원을 농촌교육훈련기관으로 입학시키고, 양성된 농촌인력이 적절한 농업분야로 진출
- 농촌에 대한 경제, 사회적 비전을 명확히 제시
-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촌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의 경제사회적 비전을 제시

1.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인력의 양성 방안

- 농촌리더의 구조 및 수급분석 체제 확립
- 농촌리더 육성 관련 기관의 역할협조 지원
- 지식기반에 부응하는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
- 수요자 중심의 농촌교육훈련 강화
- 농촌리더 육성기관의 평가체제 확립

1.3 농촌인력의 신규 진입 유도 방안

- 농촌리더의 유지를 위한 기반 마련
- 현직 농촌리더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의 개선 및 강화
- 도시민의 유치(새컨드하우스)
- 실버영농과 노후 전원생활을 유도
- 마을기획력을 가진 전문인력의 이농지원

1.4 기존의 농촌 인력의 육성방안

-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강화하며 지속적 관리 체계 확립
- 노령농 재촌 탈농 및 경양이양지원 시스템의 구축
- 노령자 은퇴 후 생활대책 마련
- 마을에 적합한 오퍼레이터의 마련이 요구

1.5 기타

- 체계적인 “연구-교육-지도”의 연계를 통하여 농촌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
- 산학관연 협조체제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이나 그린투어에 관한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농업인들이 언제든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활성화
- www.greentour.or.kr 이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온라인의 일체성을 갖도록 유도
-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 농촌관광과 지역역량강화에 대한 공개념 정립

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의 세부목표 및 대안

2.1 인재육성 추진목표

-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의 체질개선과 이미지변화를 추진하면서 산업구조변화를 유도
- 전국 마을 수의 1/10 수준인 농민지도자 5천명을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을 선도할 지도자로 육성할 필요성
- 농촌관광수요를 충족하면서 지역에 내재된 농촌관광잠재력을 시스템화하는 것은 부처 중요
- 발전기에서는 도입기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경영과 차별화 지역특성화 브랜딩 등을 교육시킬 필요

2.2 단계별 추진방향

- 1단계는 2005-2006년(농촌관광 도입기)으로 사업수행기반 구축 및 활용을 목표
- 2단계는 2007-2009년(농촌관광 발전기)으로 사업활성화와 기반조성단계를 목표
- 3단계는 2010-2013년(농촌관광 성숙기)으로 자립화단계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

2.3 세부추진방향

- 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전문화·차별화하고, 교육내용을 수준에 따라 선택·활용
-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효과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로 개선
- 그린투어 관련교육의 능력점검, 수준평가, 원격교육 등 기능을 확충
- 교육이나 프로그램운영을 공공보다는 민간이 공공과 협력하여 추진

3. 2005-6년도 교육목표 및 사업계획

3.1 추진계획

- 농촌관광과 관련된 현장특화기술과 교육을 연계활용체계구축
- 총 5만여명에 대한 그린투어교육 실시와 이중 우수핵심인력을 고급인력으로 양성
- 농촌관광과 관련된 교육을 위한 장비개발과 시스템확보
- 다양한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인력육성을 위한 강좌개설
- 핵심강좌에 대한 Web 기반강좌 마련과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킹체계지원
- 다양한 세미나와 발전사례,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 홍보와 참여 인식전환을 구축

3.2 농촌관광 교육계획 총괄

- 농촌관광 총괄계획은 구체적인 교육과정, 교과, 교육인원, 교육대상, 교육회수, 교육방법 등에 대해 서술
- 각 교육기관의 여건분석을 통해 교육활성화 방안과 강사 확보 교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검토가 사전에 검토
- 기초과정은 대중성에 중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중급과정은 실무능력향상과 중견지도력향상
- 지역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계획이론을 가지고 지역에 적합한 농촌개발을 적용
- 고급과정은 지역을 개발하는 핵심지도역량강화
- 도시민은 도농녹색교류의 윈윈 이해하고 건전한 농촌서포터스로 육성
- 공무원교육은 실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교육실시

3.3 교육대상자 선발

- 각 과정별 교육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대상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농촌관광에 관심이 있거나 민박을 운영중인자
- 마을지도자이거나 지도력이 있는자중 그린투어를 할 예정자
- 도농녹색교류에 실적이 있는 핵심지도자

4. 구체적인 단기 실행교육계획

4.1 교육시행기관 및 교육인원

- 2013년까지 장기 목표아래 실시함을 원칙으로 1단계에서는 농촌관광도입에 중점을 두며 2004년-2006년에 실시
- 기초과정은 연 5천명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며 각 기관의 현행교육체계를 활용하여 교육을 추진함을 원칙

4.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교육의 내실화

- 전문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지도력강화와 지역역량을 주민과 더불어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발적 발전방향을 도출
- 교육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반영
- 공무원과 고급대상자는 관련 전문교육과정은 평가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유지
- 합리적인 농촌관광 계획의 수립과 교육생 선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5. 교재개발과 강사선정계획

5.1 기본방향

- 인쇄물교재와 시청각교재로 구분하여 개발과 제작
- 교육교재는 과정별로 기본 교과목을 선정, 교육목표와 피교육자의 수준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편성
- 부처간의 연계 방안 수립해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도농교류센터와 콘텐츠 공동활용 방안 수립·추진

5.2 교재편찬

- 교재발간은 수업이전에 가능하도록 하며 과정 후에도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수업관련 자료와 교육사이트를 개설 인터넷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수업교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를 발간
- 교육과정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5.3 강사수급계획

- 5,000명 수준의 교육을 위해서는 강사 배가계획이 시급
-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지명도가 높은 강사를 분야별, 과정별로 적극 발굴,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
- 강사자원 DB구축 및 강사선정 과정을 시스템화

5.4 교육평가

- 농촌관광 성적평가는 평가항목의 합리성과 공정성·객관성이 보장되도록 농림부의 평가관리
- 교육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교육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의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 교육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도 충분히 고려와 농촌관광 종합평가회 및 계획심의회 운영
- 농촌관광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으로 농촌관광의 내용·방법을 논의하고 운영

5.5 인터넷 강좌 시행방안

- 도시민과 농민이 필요한 농촌관광교육과 정보를 손쉽게 활용해 학습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정보망 구축
- 그린투어중 농민의 관심이 크고 사이버교육이 용이한 교육과정 선정 및 시범 실시 후 단계적 교육시간 확대 실시
- 신규교육수요 발굴, 수목을 위해 도농교류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교육 수요를 발굴 교육
- 신규 농촌관광교육 서비스의 발굴, 기존농촌관광교육의 보완 등 수록정보의 내실화
- 농촌관광교육 DB의 인터넷 연동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

6. 지역혁신체계와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교육과 연계

6.1 참여정부의 新 활력지역정책비전

- 지역스스로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개발
- 그린투어는 좋은 사례로 평가

6.2 지역혁신체계구축과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교육

-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토론 및 학습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혁신을 창출
- 지역의 개성 있는 발전, 자긍심 및 자신감 회복 등의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나 홍보시책을 준비

V. 결론

1. 예상결과

1.1 인력육성방안

- 공공과 민간 등을 통해 체계적인 농업인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실제 민박과 농촌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타 교육기관의 농촌관광 교육과 차별화
- 농업인 농촌관광마인드 확산과 도농교류 교육 기반체계 확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재택반복교육, 상위 전문과정의 교육이수를 위한 사이버학당 원격콘텐츠를 농촌관광경영관련 분야로 대폭 확충

2. 정책제언

- 시행초기에는 과정별 교육내용이 선택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만족도 떨어질 가능성이 예상
- 교육과정과 내용이 교육생의 수준, 교육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보다 명확한 구분이 필요
- 교육 희망자의 활용 유형에 따라 기초심화 등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도시민교육과정은 민간기관과 언론기관을 적극 교육해야 할 것으로 사료

목 차

요 약 문	i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1.1 배경	3
1.2 필요성	4
2. 연구목적과 내용	5
2.1 연구목적	5
2.2 연구내용	6
3. 인적자원의 개념	7
3.1 검토배경	7
3.2 '인적자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	8
3.3 '인적자원'의 개념과 변화	9
3.4 주체역량의 개념	11
3.5 농촌인력과 육성의 개념	13
4.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관점에서의 인적자원 개념	17
4.1 선행연구	17
4.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관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17
4.3 농촌지역개발(rural development)과 인적자원의 범주	18
II.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현황과 문제점	21
1. 한국농촌의 인구 현황	23
1.1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23
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의 현황	26
2.1 현재까지 농촌인력의 확보 수단	26
2.2 농촌인력의 양성	27
2.3 농촌인력의 신규 진입	32

2.4 농촌 인력의 육성	35
2.5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인력의 사회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40
3.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의 문제점	52
3.1 농촌인력 확보의 문제점	52
3.2 농촌인력 양성의 문제점	54
3.3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 신규 진입의 문제점	58
3.4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의 유지·개선의 문제점	60
3.5 기타	62
4.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의 인적자원 사례분석	63
4.1 홍성 문당리 주영로회장과 주민사례	63
4.2 광양 청매실농원 사례	71
4.3 마을 발전 요인별 분석	79
4.4 농촌관광과 지도자역할	83
4.5 정책적 함의	87
5. 기업체 등 타 분야의 인력육성현황	90
5.1 한국 기업에 있어서 인재 육성	90
5.2 리더의 육성에 관련된 이슈	95
5.3 리더의 유지 및 이탈 방지와 관련된 이슈	99
5.4 한국의 인재육성의 특징	100
5.5 기업의 인재육성의 교훈	101
6. 정책과제	106
6.1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인력교육 시스템 구축	106
6.2 농촌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읍, 면 등 기초단위의 역할	109
6.3 농촌관광인력 사회교육기관의 특성화 및 전문화	114
6.4 교육참여 여건의 조성	117
III. 외국의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관련 인력개발	119
1. 외국의 인적자원육성	121
1.1 선진국의 지역분권과 인적자원개발 의미	121

1.2 외국의 동향 및 사례	123
2. EU의 LEADER 프로그램	127
2.1 EU의 LEADER 프로그램의 배경	127
2.2 EU의 LEADER 프로그램	127
2.3 LEADER 프로그램 개관	130
3. 선진국의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	136
3.1 영국	136
3.2 프랑스	139
3.3 독일	140
3.4 일본	143
IV.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인력 육성방안	147
1.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의 개선방안	149
1.1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을 위한 이미지 제고	149
1.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인력의 양성 방안	151
1.3 농촌인력의 신규 진입 유도 방안	155
1.4 기존의 농촌 인력의 육성방안	158
1.5 기타	161
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의 세부목표 및 대안	166
2.1 인재육성 추진목표	166
2.2 단계별 추진방향	170
2.3 세부추진방향	172
3. 2005-6년도 교육목표 및 사업계획	174
3.1 추진계획	174
3.2 농촌관광 교육계획 총괄	178
3.3 교육대상자 선발	188
4. 구체적인 단기 실행교육계획	191
4.1 교육시행기관 및 교육인원	191
4.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교육의 내실화	192

5. 교재개발과 강사선정계획	199
5.1 기본방향	199
5.2 교재편찬	200
5.3 강사수급계획	201
5.4 교육평가	204
5.5 인터넷 강좌 시행방안	207
6. 지역혁신체계와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교육과 연계	210
6.1 참여정부의 新 활력지역정책비전	210
6.2 지역혁신체계구축과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교육	211
V. 결론	215
1. 예상결과	217
1.1 인력육성방안	218
2. 정책제언	219
참고 및 인용문헌	223

표 목 차

<표 1-1> 인적자원의 다양한 개념	10
<표 1-2> 농촌인력과 관련된 개념	14
<표 1-3> 농촌인력육성 관련 주요개념	15
<표 1-4> 농업·농촌관련 주요용어의 개념과 정의	16
<표 1-5> 농촌지역개발과 인력육성방향	19
<표 2-1> 농업인력의 현황	25
<표 2-2> 한국4H연합회 조직현황	26
<표 2-3> 농업계 고등학교 학교수 및 학급수의 변화 추이	28
<표 2-4> 농업계 전문대학별 입학 정원의 현황	29
<표 2-5> 농학계 대학의 대학별 입학정원	30
<표 2-6> 전국 12개 지역개발 관련학과 현황	31
<표 2-7> 귀농희망자대상 영농 교육훈련 현황	32
<표 2-8> 연도별 신지식인 선발 현황	33
<표 2-9> 농촌관련 공공교육기관	37
<표 2-10> 농업인 컨설팅 및 교육	38
<표 2-11> 2004년 농업연수부 교육과정	44
<표 2-12> 2004년 교육훈련 총괄계획	45
<표 2-13>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공무원대상 교육	46
<표 2-14> 신지식 농업기술 및 축산기술아카데미 교육일정	47
<표 2-15> 농협 연수부 주요 교육과정	48
<표 2-16> 농협교육원 연도별 교육현황	49
<표 2-17> 2004년도 농기공의 도농교류센터 교육계획	49
<표 2-18> 2004년도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교육계획	50
<표 2-19> 농촌인력개발 개념	63
<표 2-20> 홍성 문당리의 인구구조	68
<표 2-21> 홍성 문당리 토지이용 현황	69
<표 2-22> 홍성 오리농법 확산과 정책지원	69
<표 2-23> 홍성과 광양의 지도자 유형비교	88
<표 2-24> 한미일의 인재교육비교	104

<표 2-25>	농촌관광체계 활성화 방안	111
<표 3-1>	OECD 인적자원개발관련 의사결정비중	122
<표 3-2>	EU의 LEADER 프로그램의 개요	135
<표 4-1>	농촌리더 육성의 개선방안	152
<표 4-2>	신규 농촌지도인력의 육성방안	156
<표 4-3>	전국의 행정구역	167
<표 4-4>	농촌관광 핵심지도력 5천명 육성 목표('05'13)	168
<표 4-5>	교육과정별 교육기관('05'13)	169
<표 4-6>	단계별추진방향	171
<표 4-7>	농촌리더강화의 개요	172
<표 4-8>	농촌관광교육의 목표	175
<표 4-9>	중간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교육내용	176
<표 4-10>	농촌관광 교육계획과 구분('05'06)	177
<표 4-11>	농촌관광 기초과정 교육계획	179
<표 4-12>	농촌관광 중급(심화과정) 연차계획	181
<표 4-13>	농촌관광 고급(전문가과정)계획	183
<표 4-14>	농촌관광 도시민과정 계획	184
<표 4-15>	2004년 농업연수원의 교육개요	185
<표 4-16>	농촌관광 공무원교육 계획	187
<표 4-17>	교육선발의 기준	189
<표 4-18>	교육기간과 시간	195
<표 4-19>	교재제작과 활용	199
<표 4-20>	교재활용방안	201
<표 4-21>	그린투어 관련 대표강사	203
<표 4-22>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205
<표 4-23>	기존방송교육과 인터넷교육의 비교	208
<표 4-24>	신활력추진과제	210
<표 4-25>	지역혁신체계속에서 교육과 리더양성	213
<표 5-1>	농촌관광교육의 기본시스템	220
<표 5-2>	중간 리더양성필요	221
<표 5-3>	교육매뉴얼 작성	221

그림 목 차

<그림 1-1> 미국 인사관리성에서 보는 인적자원개념 변화	11
<그림 1-2> 인적자원의 개념 변화	12
<그림 2-1> 2020년의 총인구대비 농업인구 예측	24
<그림 2-2> 문당리 오리농법 실천 농가 수 및 논 면적	68
<그림 2-3> 2004년 가을 문당리의 떡잔치와 추수	70
<그림 2-4> 주민자체 친환경농업교육과 문당리에서 교육을 받는 충북농민들 ...	71
<그림 2-5> 홍쌍리여사의 매실설명(좌)과 매실항아리(우)	77
<그림 4-1> 농촌인력 구조 및 수급예측 체제도	153
<그림 4-2>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164
<그림 4-3> 농촌리더지도력 함양방법	165
<그림 4-4> 교육과정 구성도	192
<그림 4-5> 추진체계	194
<그림 4-6> 신활력 비전구상도	211
<그림 4-7>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	212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과 내용
3. 인적자원의 개념
4.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관점에서의 인적자원 개념

여 백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향후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농촌과 도시의 연계를 위한 조직 강화와 교육체계 확립 등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농촌관광과 지역개발부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농촌지도력향상의 필요성과 인재육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한다.

1.1 배경

- 농촌 위기를 극복위한 다양한 농촌 활성화 방안모색
- 주5일제 실시로 농촌관광수요 증대
- 고속전철 개통으로 전국적 접근성 개선
- 1사1촌을 중심으로 하는 도농녹색교류 증진

최근 농촌현실은 무척 어렵다. FTA, DDA협상 후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지켜 내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농촌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농촌 활성화 방안이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진흥책”을 말한다. 농촌이 가진 지장(地場)¹⁾적 요소인 경관, 자원, 문화, 환경, 예술 등을 살려나가면서 지역진흥을 해야 의미가 있다.

둘째, 주5일제의 본격 실시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농촌관광은 기존의 제도권 관광과의 차별화와 역할분리를 위한 정체성마련이 아직 덜 됐다. 또 농업적 특성을 살려 새로운 도농녹색교류를 할 충분한 준비도 돼 있지 못하다. 주5일제의 여가시간증대를 도농복합교류로 승화하고 다양한 촉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고속전철 개통으로 전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과거의 공간거리개념이 시간거리개념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반일 생활권으로 시간거리

1) 지장(地場)이라하면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것임

와 공간이 축소됐다. 이는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밖에 1사1촌운동을 비롯한 도시와 농촌의 녹색교류요구가 확산되는 등 국민들이 농촌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관광의 수요를 잘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촌구조 개혁과 혁신 필요성 제기된다. 또 농업인구감소 및 소득정체와 농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요구와 함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정립도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농민과 지역지도자에 대한 농촌관광교육과 공무원의 지원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농촌을 이해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도시민이나 귀농희망자들에 대한 농촌교육이 적극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1.2 필요성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
- 농민과 지도자가 지역발전주체로 전환
- 도농연계시스템 마련필요
- 귀농촉진을 위한 프로그램마련

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농업만의 문제로 보고 해결하기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그 어떤 제도권역에서의 정책을 써도 그 효과는 과거와 달리 미미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에서 좀 더 다양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도농녹색교류를 위해서는 농촌관련 추진주체의 역량강화와 육성지원 교육의 필요하다.

또한 농민과 지도자가 지역발전추진주체로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생산적 복지증대와 지역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역계획과 지역설계가 지역민에 의해서 전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계획은 전문가와 행정에 의해 진행되고 농민은 수동적인 거수기 역할만 할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농촌이 변화하기 힘들다. 따라서 건전한 지역발전추진주체로서 농민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를 연계하는 지원서비스기능 강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도농 녹색교류는 농민과 도시민의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섬세한 부분의 교정이 요구된다. 이 역할은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농촌이 변화한다.

마지막으로 도시민의 농촌이해와 귀농촉진을 위한 도농교류교육이 필요하다. 농촌 관광과 도농교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농촌의 상대측인 도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농촌이해에 관한 교육과 진정성 향상을 위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2. 연구목적과 내용

2.1 연구목적

- 도농교류 촉진과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체제 구축
- 교육을 통한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의 경쟁력 제고와 운영 효율화
-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육성
-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시스템화하고 지역개발주체의 역량제고

연구의 목적은 “농촌진흥을 위한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육성방안”이다. 농촌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녹색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농촌의 다양한 기능을 지역사회발전과 소득에 연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지도 인력 양성과 농민들의 농외소득확보를 위한 농촌관광기초교육, 지역개발교육, 도시민의 농촌이해와 도농교류촉진 교육 등이 국가적 위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은 농촌관광과 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교육과 농민, 지도자, 공무원, 도시민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거버넌스²⁾ 개념의 지역도입과 내발적 지역활성화 교육추진이 농촌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2). 거버넌스 [governance]란 정부역할과 기능간 불일치에서 탄생한 대안적 국정관리 개념으로 정부와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위해 서로 참여와 협력을 요구한다. 거버넌스는 정부를 포함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이고 비정부적인 매커니즘들도 포함하며 역동적이고 다양하며 복잡해진 사회관계를 전통적 의미의 정부가 조정·해결하는 데 취약성을 드러내자 새로운 유형의 국정관리 매커니즘으로 거버넌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2 연구내용

-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그리고 지역개발 교육의 전문성을 신장
- 농촌관광 지도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 인력육성
- 도농 교류시스템을 마련
- 지역개발분야는 직무분야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본 연구는 과업내용³⁾에 충실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서술하겠다. 첫째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그리고 지역개발 교육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 이를 위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패러다임에서 전환하고 주문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요구된다.

또 현장 - 교육 - 지도 - 실천의 4위 일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화된 교육체계의 마련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 교육이수자가 지방화시대를 적극적으로 선도할 지역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관광 지도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 인력육성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3) 연구명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방안'으로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적자원과 주체역량의 개념

- 일반적 개념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관점에서의 인적자원
- 현재 한국농촌의 인적자원 및 육성현황
 - 전체농촌과 지역개발 측면으로 구분, 분석(인적구성, 인적비율, 활용실태 문제 등)
 - 지역개발 인적자원을 기능(열할)별로 구분하여 분석(리더, 일반주민 등)
 - 마을 등을 예시하면서 사례분석(문제점 등)
 - 기업체 등 타분야의 인적자원실태 비교
 - 국내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인적자원 육성현황(프로그램, 기관별 교육실태 등)

○ 외국의 인적자원 육성사례

- 육성프로그램(SEADER 프로그램 등) 내용
- 교육(현장교육, 개론교육 등) 방식(현장감있는 교육내용 강조 필요)
 - 인력육성 목표, 교육대상 및 인원
 - 교육내용, 방법 및 교육기관(지역별)
- 인적자원 육성담당 기관 및 활용사례 제시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한국농촌의 인적자원 육성방향

- 단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제시(연도별 제시)
 - 기본방향, 목표, 단계별 계획, 및 기대효과 제시
- 프로그램(개선 및 신규도입 프로그램), 추진체계, 전문가 구성 등
- 인적자원 사후관리방안, 제도도입 및 개선사항
-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와의 관계설정

관한 연구를 하겠다. 가능하다면 농촌지도자 육성은 향후 10년 동안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농촌지도인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또 이들에 의한 농촌발전방법이 상향식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 교육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농촌관광모델 개발이나 교육받는 지역민이나 농촌관광종사자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제공, 지역에 잠재하는 교육수요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농촌관광 교육계획 수립 등이 요구된다.

셋째, 도·농 교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대안으로 확립돼야 한다. 즉, 신속하고 정확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제도를 설치·운영하고 교육학습의 효과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또 교육과정을 수요자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문성 있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수요』 - 『참여』 - 『교육』 - 『평가』 - 『연대』 - 『교육관리』를 통한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의 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

넷째, 지역개발분야는 직무분야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이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전문가, 현장지도자의 교육과정에 참여와 교육이수 후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⁴⁾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교육과 직무가 연계되는 전문교과를 집중적으로 편성해 교육수강생들에게 학습효과를 배가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3. 인적자원의 개념

3.1 검토배경

- 용어개념의 혼재와 불명확

인적자원의 개념은 대학 등에서 연구자간에 쓰이는 강학(講學)상 혹은 학제(學際)적 개념과 법상 개념 등이 혼재된 상태이다. 또한 우리 정부⁵⁾가 채택하여 쓰는 의미와 국제 사회에서 쓰이는 의미가 일치하지 않아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인적자원(Human Resources), 인적자본(Human

4) 현재 농촌관광분야는 국가공인자격증이 없으며 지역개발분야는 기사와 기술사 자격증은 있으나 이는 농촌리더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5) 여기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 자원개념을 말한다.

Capital), 인력(Man power) 등 유사개념 간의 혼동 역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3.2 '인적자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

- OECD :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복지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 기술, 능력 및 속성
- Oxford 사전 :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사람

1) OECD 등 선진국의 '인적자원' 개념 정의

OECD에서는 인적자원과 유사한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으로 “개인이 중심이 되어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복지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 기술, 능력 및 속성...”(2001)으로 정의하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노동교육훈련 수준 등 노동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서 '기술'과는 다른 속성을 포함하는 '인적자본'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인적자본은 “개인에게 통합되어 개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복지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 기술, 능력 및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적자본은 개인의 물리적, 정서적 및 정신적 건강과 함께 동기 및 행동의 측면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인적자본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은 '인적자본'의 개념이 사람을 비인간화한다는 비난을 반박하는데 도움을 주며, OECD의 1998년 보고서는 인적자본의 개념이 지식 및 능력 기반 경제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오히려 크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개념이 개인의 정서적 측면과 동기·행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에서 제시된 능력은 “개인”에게 통합 또는 체화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2) 일반적 개념 정의

Oxford 사전에는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을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사람(People as a significant asset of a business etc.)”으로 정의한다.

박세일 교수에 따르면, 인적자원은 '사람 개개인 속에 체화된 지식과 정보, 기술과 기능, 경험과 지혜 등'을 의미한다. 지식정보사회로 들어가면 갈수록 바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양과 질이 구성된 개개인의 삶의 질과 그 나라의 국가경

쟁력을 좌우한다.

김신복 교수는 인적자원을 ‘국가사회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력, 정보력 그리고 도덕적 성숙 등 가치 있는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3 ‘인적자원’의 개념과 변화

- 인적자원 : 국민 개개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
- 인적자원개발 :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기 위한 재반활동
- 인적자본의 개념변화 : 인적자본→양적(stock)·부가가치→질적·부가가치→인적자원

인적자원이란 쉽게 말해 ‘사람(human)으로부터 나오는 또는 나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resources)’이다.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정책에 대한 국제동향과 국내 학계의 학술연구 등을 통대로 인적자원 개념과 인적자원 정책을 정립시켜 왔다.

2001년에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국가인적자원기본계획’에서도 인적자원을 사람에게 체화된 지식·기술·정보 등으로 상정한 바 있다. 즉, 인적자원의 개념을 지식, 기능, 태도 등 인적요소의 종합으로서 저장(貯量 : stock)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또한 인적자원이란 구체적으로 ‘사람 개개인에 체화되어 있는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 기술과 기능, 경험과 지혜, 도덕적 품성’ 등을 말한다. 결국 인적자원이란 “가치 있는 지식과 기술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지식경제에서 강조되는 지식이란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에게 체화된 지식을 지칭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인적자원은 사람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 속에서 체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연구소 등이 가지고 있는 지식자산과 시스템 등은 조직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최근 기업차원의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1> 인적자원의 다양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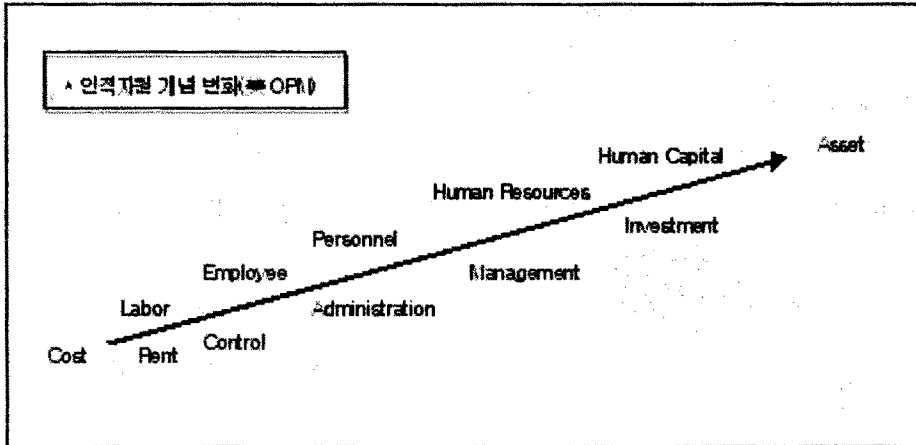
개념	정의
(일반론) 인적자원	사람(human)으로부터 나오는 또는 나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resources)
(국가인적자원기본계획)인 적자원	사람에게 체화된 지식·기술·정보 등
(구체적 개념) 인적자원	사람 개개인에 체화되어 있는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 기술과 기능, 경험과 지혜, 도덕적 품성 등을 가진 사람
(인적자원기본법) 인적자원-2조1항	국민 개개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
(인적자원기본법) 인적자원개발-2조2항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

자원의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도 거래자들 사이에 평가되어 인정되는 가치도 있다. 인적자원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거래되는 시장을 창출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기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나라가 인적자원 강국이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정의에 의하면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또한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인적자원' 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과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가치 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고 하겠다.

본래 인적자원이란 경제학에서 논의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인적자본 개념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때 인적자본이란 대체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존의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 그리고 화폐자본 등에 대비된 개념으로 활용되며, 최근 경제학에서 새로운 생산요소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된다. 이는 인적자본을 주로 양적(stock)인 개념, 즉 쌓여져 있는 상태로 부가가치를 발하는 인적자원의 총량으로 보는 견해이다.

인적자원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될 수 있음은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 즉, 초기 산업화시대 인간은 생산과 비용을 유발하는 단순한 생산요소 중의 하나인 노동력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점차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리의 대상으로 변화하여 이제는 투자의 대상이며 국가나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 미국 인사관리성에서 보는 인적자원개념 변화

3.4 주체역량의 개념

- 주체역량 :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종합화와 능력과 품성의 향상과 습득을 촉진

최근 지식과 정보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업에 있어서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급속한 과학기술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가·기업·학교의 패러다임 변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와 on/off line의 네트워크화는 이제 인적자원의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크게 확대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적자원(Human Resource)⁶⁾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술·정보·판단력·도덕적 품성 등의 개별적 자질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6) '인적자원'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정보능력 그리고 도덕적 성숙 등 가치 있는 인간의 모든 능력과 품성을 지칭(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www.nhrd.go.kr)한다.

축적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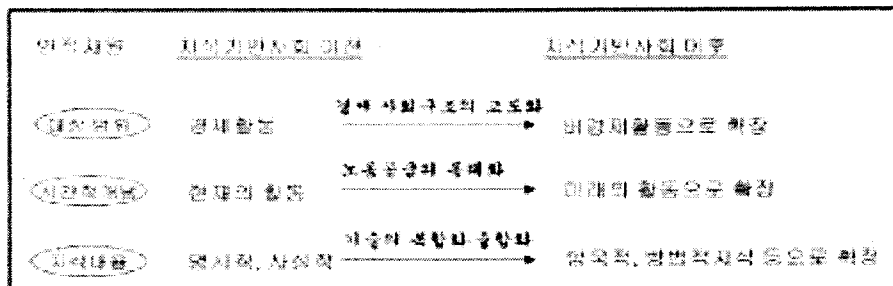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농업자원 개념은 거시적으로는 주로 자연조건을 이용한 자원생산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고, 농촌에서는 농업자금과 농지·건물·기계·설비·자재 등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자산(資産) 또는 재원(財源)의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농업자산은 특히 농촌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의 척도로서 이를 증식시키고 보존하는 것을 경영의 중요한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주체(主體)는 표준국어사전에는 1:핵심(核心), 중심(中心) 2:주(主) 3:주사(主辭), 주부(主部) 4:마음, 주관(主觀) 5:자아(自我), 순수자아(純粹自我)등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단체나 물건의 주가 되는 부분이나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역량이란 어떤 일을 해 낼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따라서 주체역량이란 “어떤 단체나 개인의 의지로 객체(客體)의 변화를 위한 작용이나 어떤 행동을 해 낼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주체역량은 “농촌지역에 있어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종합화를 의미하고 주체의 능력과 품성의 향상과 습득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아래 그림은 지식기반사회로 이전과 더불어 인적자원 개념의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2> 인적자원의 개념 변화

결국 농촌활성화를 위한 주체역량강화는 국가가 중심이 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근간에는

농민과 농촌이 근간이 되는 자율적 자발적 참여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획하는 원동력은 국가적 관점에서 개별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기타 문화적 활동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국가·사회적 노력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관심 주제인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주체의 역량개발도 마찬가지다.

3.5 농촌인력과 육성의 개념

- 농촌인력 : 대통령이 정한 농촌 즉, 군지역과 일부 시지역에서 농업과 이에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사람
- 농촌인력 육성 :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비농촌인력이나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농촌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양성

1) 농촌인력의 개념

농업농촌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을 1차산업인 생산농업(production agriculture, farming)에 국한하고 있다. 최근 농업의 세계화와 교역의 확대의 영향으로 정부정책이 농업에서 어느 정도 농촌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근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농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정의는 없다. 지금까지는 농업인력과 관련하여 쓰이고 있는 용어들도 영농인력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이제는 농촌인력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농업인력과 농촌인력이 혼재되게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인력을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농촌인력, 전문농촌인력, 기타로 구분하여 사용’하겠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이 다르듯이 농업에서의 산업적인 측면과 농촌에서의 지역적 공간적 범주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농촌인력이란 ‘대통령령이 정한 농촌 즉, 군지역과 일부 시 지역에서 농업과 이에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 사람’을 말한다.

협의를 농촌인적자원개발은 “농촌에서 생애단계별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이 중심”을 이룬다. 그에 비해 광의의 농촌인적자원개발은 “교육, 훈련, R&D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cultivating, fostering)활동이 기본이지만, 양성된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posting, arrangement)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utilizing)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성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공급→수요, 학교→농업세계), 또는 직업세계(농촌) 안에서의 이동(flow, circulation)을 포함

한다. 즉, 인적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표 1-2> 농촌인력과 관련된 개념

개념	정의
농촌인력	대통령령이 정한 농촌 즉, 군지역과 일부 시 지역에서 농업과 이에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 사람
(협의적 개념) 농촌인적자원개발	농촌에서 생애단계별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
(광의적 개념) 농촌인적자원개발	교육, 훈련, R&D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 활동이 기본→양성된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 → 효과적으로 활용(utilizing)

2) 농촌인력 육성의 개념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농업인력에 대한 규정이며 농촌인력의 육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먼저 농촌인력 육성의 개념을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비농촌인력이나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농촌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양성”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농업인력의 육성은 주로 학교교육기관이나 사회교육기관에서 예비농업인 또는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양성 교육훈련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인력은 농업인력 육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의 개념을 적용해 협의의 개념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시각을 확대하여야 한다.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농업인력과 농촌인력 육성이 혼재될 수 있는데 과거 후기 산업사회와 같이 소품종 대량생산농업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지역의 다양성과 지역적 풍토가 농업속에 혼재됨을 말한다. 따라서 농촌인력의 육성은 “농업활성화를 위한 지역인프라를 공급하는 개념으로 지역개발적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그린투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즉, 지역자원개발, 지역프로그램 육성, 지역인재육성의 3가지 측면에서 지역개발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이밖에도 경제개발을 위한, 마케팅, 홍보, 상품개발 등 지역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도 농촌인력육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결국 농촌발전을 위해 농업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키우고, 이웃 소싱해 지역이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제거, 유지, 발전, 개발, 창조하는 제반시스템을 말한다.

<표 1-3> 농촌인력육성 관련 주요개념

용어	개념
농촌인력 확보	지역발전주체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비 농촌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을 새롭게 창조할 지역개발과 경영을 수행할 인력육성
농촌인력 양성	지역의 현장성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교육(work to work)
농촌인력 육성	신규농촌인력 유입, 후계농업인 선정 및 지원,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선정 및 지원, 신규창업 및 벤처지원, 실버농업, 귀농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농촌인력 유지·개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컨설팅 서비스, 전문 지역개발 기술 정보 및 교육훈련 제공 등을 통하여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로 성장을 유도
(지역개발차원) 농촌인력육성	주민주체의 지역자원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도출하고, 발전목표를 세우고 개발전략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프로세스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을 위한 농촌인력육성을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촌인력의 확보는 지역발전주체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비 농촌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을 새롭게 창조할 지역개발과 경영을 수행할 인력육성을 말한다. 지역경영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수행했으나 지금부터는 지자체와 지역리더, 주민들이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교육훈련으로의 잠재 농업 인력의 유인, 농업인력 전망과 제한⁷⁾, 농촌인구 확보, 농가인구 확보, 외부인력 도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농촌인력의 양성은 확보된 신규인력,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필요한 농업농촌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교육 또는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현장성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교육(work to work)이 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인력의 육성은 양성된 신규농촌인력을 놓고, 농대 등에서 농업농촌분야로 유입시키는 것을 말하며 후계농업인 선정 및 지원,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선정 및 지원, 신규영농창업 및 벤처농업 지원, 실버농업, 귀농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과 관련이 깊다.

7) 제한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농업경쟁력이 없는 초고령층이 농업에 종사하기 보다는 농촌지역의 소프트웨어 즉, 옛날이야기, 지역의 고유자원 발굴, 계승 등 청장년층이 할 수 없는 일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 농업·농촌관련 주요용어의 개념과 정의

농촌인력 용어		개념 규정
신규 농업인력	신규 후계 농업인	현재 40세 미만인 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농림사업시행지침서)
	취농창업 후계 농업인	현재 35세 미만인 자 중 농업계 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 직후 영농 승계를 원하는 자, 영농 승계를 원하는 자와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 졸업자 중 농촌 정착을 원하거나 농촌에 정착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산업기능요원 후계 농업인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서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신규창업농	농업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 최초로 영농에 종사하게 되는 농업인으로서, 주로 영농 시작을 창업의 개념으로 접근한 용어(농정발전기획단)
	귀농자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서 농촌으로 귀향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인력
	그린투어농	새롭게 그린투어를 하며 숙박, 농업, 체험 등에 종사하는 인력
전문 농업인력	전업농	자립을 위해 타 산업종사자에 버금가는 소득수준을 달성해야 하는 동시에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노동력이 최대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 경영체
	농업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한 형태(농업농촌기본법)
	농업회사법인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농업농촌기본법)
	선도농업경영체	농업을 선도해 나갈 전업농 내지 농업법인이며, 경영규모, 생산기술, 경영기법, 시설장비, 소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농림사업시행지침서)
	신지식농업인	학력과 전문자격증에 관계없이 새로운 발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능률을 실현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농림부)
기	(일반)농업인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해당되는 자(농업농촌기본법)
	농가인구	농가에서 3개월 이상 살았거나 3개월은 살지 않았어도 3개월 이상 같이 살게 될 가구원(통계청)
	농업숙련종사자	정기적으로 전답작물, 과수작물을 재배·수확하고, 야생과일 및 식물을 채취하거나, 동물을 번식·사육하여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경지를 경작, 보존 및 개발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기획하며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를 수렵하는 자(통계청)
타	농업관련 단순노동 종사자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거나 상당한 육체적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영농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자(통계청)
	농촌인력육성	농촌발전을 위해 농업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키우고, 이웃 소싱해 지역이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제거, 유지, 발전, 개발, 창조하는 제반시스템
본문용어정의	주체역량	어떤 단체나 개인의 의지로 객체(客體)의 변화를 위한 작용이나 어떤 행동을 해낼 수 있는 힘
	인적자원	국민 개개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

넷째, 농촌인력의 유지·개선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컨설팅 서비스, 전문 지역개발기술 정보 및 교육훈련 제공 등을 통하여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로 성장을 유도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 농업분야

에서 농촌개발 분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을 지역개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력육성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자원을 분석하고 지역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발전목표를 세우고 개발전략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에서 하는 계획과 더불어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을 홍보하고 파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속에 그린투어가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것은 도농녹색교류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대안으로서 방법이 되어야 한다.

4.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관점에서의 인적자원 개념

4.1 선행연구

- 현재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관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논의가 전개

최근 농림부에서는 DDA협상과 FTA이후 대안으로서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관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은 없는 상태다.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관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관계설정은 인적자원 정책의 범위, 교육부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환경부, 문광부 등 타 부처의 역할 및 정체성 등과도 관련된 문제도 해결되면서 빠른 시일 안에 개념이 정립하고 적용되는 것이 요구된다.

4.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관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 지역개발 : 주체적으로 지역지도자나 주민(인적자원)이 농촌관광 혹은 지역 활성화를 하는 것
- 농촌관광과 지역개발관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농민 개개인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연마해 경제사회적 이득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농촌관광 교육은 “농민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그린투어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의도적이면서 계획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신장시켜 도시민과 연계하면서 지역자원개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과 교육에 연계된 일체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개념은 대체적으로 “지리적으로 구성원간의 이동이 용이하고 비슷한 지역산업의 구조를 가지며 비교적 동질적인 정서를 가진 공간적 범주” (이병준, 2001)로 이해되고 있다. 지역개발이란 공간적 범주를 개발, 혹은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지도자나 주민(인적자원)이 주체적으로 농촌관광 혹은 지역 활성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역개발 측면으로 볼 때, 지역경제발전, 지역고유문화와 자원개발, 민주적 지방자치의 신장에 관련되지만, 이 모든 조건은 지역에 적합한 체제로 지역개발과 그린투어역량을 기르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며, 무엇보다 교육의 관심은 우선 인간 그 자체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농촌관광과 지역개발관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은 “농민 개개인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연마해 경제사회적 이득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볼 수 있다.

4.3 농촌지역개발(rural development)과 인적자원의 범주

- 인적자원개발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전략과 교육훈련시스템, 지역혁신시스템이 상호 관련
-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혁신체제(Industrial innovation system)와 교육혁신체제(Educational innovation system)를 병행
- 두 혁신체제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역건설을 위한 혁신활동과 의식화 운동이 수반

농촌지역개발의 선행조건으로는 “지리적, 공간적으로 규모가 협소하고 인근지역이나 농촌사회 안에서 산업간의 연계와 인력이동이 있고 클러스터조성에 관한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농촌의 경우 농촌인력 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수립이 초기단계이고 농촌지역은 자치행정과 인근 지역과의 연계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은 우선적으로 지역안의 혁신과 클러스터형성에 한정하되 점차적으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사업에 대한 추진체제 구축과 전략형성이 필요하다.

농촌단위에서 인적자원개발은 각 지역내외에 어떠한 영역들이 연계되어 구성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에서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전략과 교

육훈련시스템, 지역혁신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인 시스템 형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관광과 지역개발과 밀착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산업혁신체제(Industrial innovation system)와 교육혁신체제(Educational innovation system)를 병행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두 혁신체제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역건설을 위한 혁신활동과 의식화 운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김태준, 2001: 104)

농촌활성화를 위한 인력육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기관(농림부, 행자부, 해양수산부, 농진청 등)들의 중복된 농촌활성화 대책이나 각종투자사업 등은 지역클러스터로 통합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은 지역혁신체제(RIS) 구축과 더불어 교육혁신체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현장과 사회교육 내용을 연계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분석·정리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갱신하는 지역단위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농촌내 산업혁신체제나 교육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하다.

<표 1-5> 농촌지역개발과 인력육성방향

농 촌 지 역 개 발 방 향	지역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선택과 결정이 병행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지원	다양한 지원기관들의 중복된 농촌활성화 대책이나 각종투자사업 등은 지역클러스터로 통합
	지역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지역혁신체제(RIS) 구축과 더불어 교육혁신체제가 반드시 마련
	농촌현장과 사회교육 내용을 연계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분석·정리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지역단위의 조직을 구성
	농촌 산업·교육혁신체제를 구축: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

여 백

II.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 현황과 문제점

1. 한국농촌 인구의 현황과 변화
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육성의 현황
3.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의 문제점
4. 농촌관광과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사례분석
5. 기업체 등 타 분야의 인력육성현황
6. 정책과제

여 백

Ⅱ.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현황과 문제점

1. 한국농촌의 인구 현황

1.1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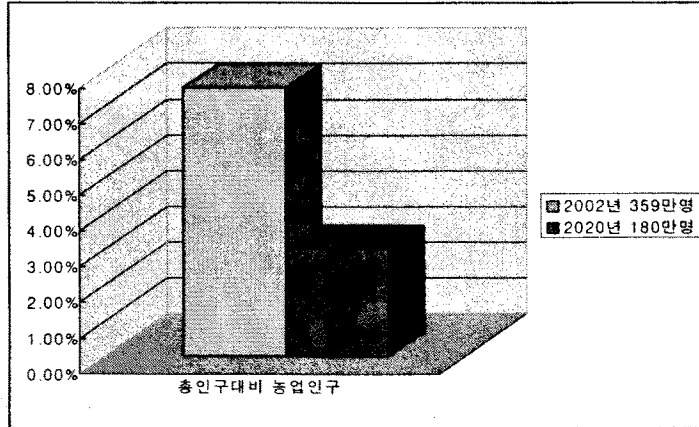
- 2004년 330만명 총인구대비 7.2%
- 2020년 180만명 총인구대비 2%대로 예상

최근 40여 년간 농촌은 급격히 변모해 왔으며 농촌사회의 제반 변화의 실상과 유형은 우리역사상 어떤 세기에서도 볼 수 없는 농민의 이농으로 귀결돼 왔다. 즉,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급속한 이농현상을 경험하였다. 청장년층의 이탈로 농업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전업농이 육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쌀에 대한 경쟁력감소와 시장축소로 농업경영이 미곡위주에서 채소, 과수, 화훼 등 시장지향형 작목 중심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다품종소량생산'은 지역특성을 살려 최근에는 농촌관광 중심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러한 측면이 인구적 측면에서는 어떤 동인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농촌인구(而部)는 1960년 총인구의 63%인 1,570만명에서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해 1995년에는 13.6%인 608만명(而部인구는 총인구의 21.5%, 956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김남일, 1997)

이러한 추세는 1997년 IMF를 겪으면서 점차 증폭해 2000년에는 403만 8.6%에서 지난 2002년에는 359만으로 총인구대비 7.4%로 대폭 축소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의 농촌인구가 총인구대비 7.6%로 일본의 농업인구보다도 낮은 수치로 우리농촌사회와 농업이 급속히 해체됨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농촌인구증대와 지역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http://www.maf.go.kr/asp/05_data/data01_0202.asp)



<그림 2-1> 2020년의 총인구대비 농업인구 예측

농촌에서는 도시보다는 훨씬 급격한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 15세 미만 유소년인구의 비율이 1975년 41.1%에서 1995년 18.4%로 크게 줄었고,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4.9%에서 13.9%로 크게 늘어 농촌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연령계층별 인구비율은 각 郡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의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부른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고령화인구가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사회로 이행했다.

농어업 일변도였던 농촌지역 취업자의 산업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다. 남성 취업자의 경우 농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1975년 80.2%에서 1995년에는 51.7%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여성 취업자도 동기간중 87.4%에서 64.2%로 감소확도 있다. 이는 겸업농의 증가와 농촌사회내 다양한 산업이 침투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령화 속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이 7% 초과)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19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71년, 프랑스 115년, 영국 47년이 걸렸고, 선진국 중 가장 빨랐던 일본도 24년이 걸렸다.

그만큼 노인부양과 복지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KDI는, 연금·의료보험 같은

복지지출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6.6%(35조7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14.5%(188조5600억원)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 2020 미래로 가자, 2002-03-05, 39면)

<표 2-1> 농업인력의 현황

연도	농가인구(만명)	총인구대비(%)
1960	1570	63
1970	1500	45
1980	1083	28
2000	391	8.6
2004	330	7.2
2020	180	2.5%로 예상

참고) 2000년 미국2.3%, 프랑스, 네덜란드3.5%, 덴마크3.9%, 일본4.2%

농촌지역 취업자의 고용상태도 최근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감소한 반면(남성 24.1%→6.2%, 여성 74.2%→55.1%), 피고용자,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은 높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 종사자의 경우는 종전과는 달리 남에게 고용되어 농사일을 하거나 남을 고용하여 농사짓는 사람이 최근 들어 크게 줄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기 노동력을 통해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농사를 짓고 있다.

농촌가구의 평균가구원수가 크게 격감하여 최근에는 도시보다 적게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도시보다 농촌가구의 가구원수가 많던 것이 1990년을 기점으로 도시의 평균가구원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농촌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감소는 최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며, 농촌 1인가구는 주로 남편과 사별한 고령여성들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은 1인가구의 증가는 도시보다 오히려 농촌에서 가족해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다. 1인가구의 비율은 각 郡별로 10%미만에서 22%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나 장래에는 거의 대부분의 郡이 20%에 가까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다.

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의 현황

2.1 현재까지 농촌인력의 확보 수단

- 농촌 인력의 대부분은 4-H회원과 새마을 출신
- 이외에도 농민운동으로서는 가톨릭농민회, 전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민연합회 등 농촌지도력을 향상시킴

전통적으로 4-H회원과 새마을 출신이 우리나라 농촌 주체인력의 약 60-80%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은 농업분야에 종사하거나 인접 분야에 종사하면서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외에도 가톨릭농민회, 전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민연합회 등 다양한 농민단체가 자체 인력육성과 운동의 배가성과 지도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촌운동과 전문성을 가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각종 과수, 양돈, 양계 등 협회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한 농촌인력만의 측면을 본다면 4H와 새마을중앙회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먼저 4H의 역할을 보자. 농업인력의 단계별 육성이나 예비 농촌인력확보차원에서 4-H연합회는 회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4-H회는 영농 4-H회, 학생 4-H회, 일반 4-H회로 구분하며, 2004년 현재 전체 회원수는 64,740명이고, 영농 4-H회 10,587명, 학생 4-H회 52,522명, 일반 4-H회 1,631명이다.

<표 2-2> 한국4H연합회 조직현황(<http://www.korea4-h.or.kr>)

연도	전체회원수	구체조직 회원수		
		영농 4-H회	학생 4-H회	일반 4-H회
2001	58,957	13	35	21
2004	64,740	10,587	52,522	1,631

주)2001년 구체적인 회원수는 개별 조직당 평균 인원임

새마을중앙회의 경우 새마을 사업시책 연찬과정, 새마을 기본과정, 새마을 총무과정, 새마을 관리자과정, 독서문화운동과정, 수범사례 워크숍 과정, 프로그램 기획 실무운동가 과정 등과 민주시민교육, 청소년수련과정 등을 매년 2만명이상 농민 지도자,

청년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http://www.saemaul.com/training/educ1.html>)

한편, 농업계 학교로의 학생 유인 및 귀농교육훈련기관으로의 귀농자 유인은 크게 재정 지원이나 선발시 가산점 부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농업계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농업계 고등학생의 동일계 진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자격증이나 영농종사 경험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농업계 전문대학으로의 입학 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농학계 대학의 경우에는 농어촌학생에 대한 특별 전형을 통하여 농촌인구 확보와 더불어 예비 농촌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귀농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주로 실직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나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으면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기관도 있고, 귀농정착자금을 수혜받기 위한 조건으로 귀농교육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들을 귀농교육기관으로 유인하고 있다. 더불어, 후계농업인이나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제도로 간접적으로 농업관련 교육훈련기관으로의 유인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인구의 충분한 확보라는 측면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가족농 중심의 농업체제에서의 농가는 생산농업을 이끌어내는 최소단위의 농업경영체제이므로, 적정 농가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2.2 농촌인력의 양성

- 농촌인력의 양성은 예비 농업인력을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하여 신규농촌인력으로 전환
- 학교교육을 통한 농촌인력 양성과 사회교육을 통한 농촌인력 양성으로 구분

1) 학교교육을 통한 농촌인력 양성

농업계 학교에서의 신규 농촌인력 양성은 크게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전문대학, 농학계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계 고등학교는 농업관련 학과만을 설치한 순수농업고등학교와 부분적으로 농업관련 학과를 설치한 비순수 농업고등학교(농업계열학과 설치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교수, 학급수, 그리고 학생수는 1980년을 중심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다. 2004년 현재, 순수농업고등학교의 학교수는 30개교, 농업계열학과 설치교는 80개교로 1970년에 비하여 순수농업고등학교의 학교수가 24.3%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표2-3) 참조

<표 2-3> 농업계 고등학교 학교수 및 학급수의 변화 추이* (단위 : 개, 명)

연도	학 교 수			학 급 수	
	순수농업 고등학교	농업계열학과 설치고교	실업계 고교 전 체	농업계열 ²	실업계 전체
1970	123 (25.6%)	77 (16.0%)	481 (100.0%)	1,057 (20.5%)	5,160 (100.0%)
1975	69 (14.4%)	103 (21.5%)	479 (100.0%)	1,103 (12.9%)	8,534 (100.0%)
1985	61 (9.6%)	42 (6.6%)	635 (100.0%)	1,373 (8.6%)	15,958 (100.0%)
1990	55 (9.4%)	41 (7.0%)	587 (100.0%)	1,245 (7.9%)	15,737 (100.0%)
1995	29 (3.8%)	60 (7.9%)	762 (100.0%)	895 (5.3%)	16,775 (100.0%)
2000	24 (3.3%)	77 (10.1%)	764 (100.0%)	838 (4.9%)	17,083 (100.0%)
2004	30 (3.9%)	80 (10.3%)	758 (100.0%)	-	-

주 : 1) 괄호안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2) 농업계열 학급수에는 종·실고에서 설치한 농업계열 학급수를 포함하였음.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해당연도).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한편, 농업계 전문대학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2004년 4월 현재 농업계열 학과를 설치한 농업계 전문대학은 국립으로 설립된 한국농업전문대학과 사립인 연암축산원예대학을 비롯하여 총 13개교이며, 전문대학에 설치된 농업계열학과는 축산과와 원예과를 중심으로 38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현행 농학계 대학은 종합대학의 형태, 단과대학의 형태, 단과대학의 학부 형태, 다른 성격의 대학 속에 농학계 학과나 학부가 있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농학계 대학에 대한 규정은 농업계 전문대학에서와 같이 농업 또는 농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농학계 관련학과에 속하는 14개의 관련학문을 기초로 하여 이들 학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과대학을 농학계 대학으로 정의하면, 농학계 대학의 설립주체별, 지역별 분포는 <표2-5>와 같다. 종합하여 볼 때, 국립의 경우는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사립의 경우는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학과수에 있어서도 서울경기지역에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 농업계 전문대학별 입학 정원의 현황

(단위 : 명)

설립 주체	지역	학 교 명	입학정원 (계)	농업계열 설치학과 (2004학년도 학생모집정원)	비고
국립	경기	한국농업전문학교	219명	작물계열 : 식량작물학과(54), 특용작물학과(35) 원예계열 : 채소학과(29), 과수학과(29), 화훼학과(38) 축산계열 : 축산학과(54)	종합순수 전문대학
	전북	익산대학	360명	농업계열 : 농업경영학과(40)/동물자원학과(40)/ 환경원예학과(40)/식량환경학과(40)/녹지조경학과(40) 공업계열 : 식품공업과(80)/목재산업공학과(40)/생명공학과(40)	-
사립	경기	농협대학	100명	협동조합계열(100) : 금융보험전공, 유통경제전공	-
		신구대학	240명	농업계열 : 도시원예과(80)/조경과(80)/ 자원동물산업과(80)	-
		삼육의명대학	80명	농업계열 : 동물자원과(80)	-
	강원	상지영서대학	80명	농업계열 : 동물과학과(80)	-
	대전	우송정보대학	160명	동물과학과(80)/원예조경과(80)	-
	대구	계명문화대학	160명	자연과학계열 : 원예조경과(80)/동물산업과(80)	-
	경북	구미1대학	80명	환경원예과학과(80)	-
	경남	경남정보대학	120명	환경조경과(120)	-
	전남	전남과학대학	40명	농업계열 : 화훼원예과(40)	-
	충남	연암축산원예대학	520명	축산학부 : 축산과(80)/낙농한우과(40)/ 사료자원과(40)/식육유통과(40) 원예학부 : 원예과(80)/생물배양과(80)/ 관광농업과(40)/화훼장식과(40)/ 조경과(80)	종합순수 전문대학
	제주	제주산업정보대학	60명	생명자원계열(60)	-
계	13 개교	2,219	총 학과 수 : 38개 학과(전공)		-

주 : 교육인적자원부(2001a). 전국 전문대학 입학 정원 현황.

교육부, 전국 유.초.중.고.대학 일람표(2004. 4. 1기준)

<http://cesi.kedi.re.kr/jcgi-bin/index.jsp>

<표 2-5> 농학계 대학의 대학별 입학정원

(단위 : 개교, 명)

지역	국립			사립			계
	대학명칭	모집단위 (학과/ 학부)	모집 인원	대학명칭	모집단위 (학과/ 학부)	모집 인원	
서울 경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9	416	건국대 농축산생명과학대학	10	380	농학계대학: 10개 학과: 49개 모집인원: 2,283명
	서울대 수의과대학	1	50	건국대 수의과대학	1	70	
	한경대 농학부	8	300	경희대 생명과학부(수원)	5	200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	5	297	
				국민대 산림과학대학	2	100	
				동국대 생명자원과학대학	4	150	
				중앙대 산업과학대학(안성)	4	320	
강원	강릉대 생명과학대학	3	80	상지대 생명자원과학대학	6	250	농학계대학: 6개 학과: 29개 모집인원: 1,037명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	9	315				
	강원대 산림과학대학	5	166				
	강원대 동물자원과학대학	5	186				
	강원대 수의과대학	1	40				
대전 충남	공주대 산업과학대학	12	420	단국대 생명자원과학부	4	160	농학계대학: 5개 학과: 34개 모집인원: 1,290명
	충남대 농과대학	12	470	중부대 자연자원학부	5	180	
	충남대 수의과대학	1	60				
충북	충북대 농과대학	12	470	건국대(충주) 자연과학대학	6	310	농학계대학: 3개 학과: 19개 모집인원: 820명
	충북대 수의과대학	1	40				
대구 경북	경북대 농과대학	13	384	대구대 자연자원대학	6	250	농학계대학: 6개 학과: 38개 모집인원: 1,435명
	경북대 수의과대학	1	60	효성카톨릭대 자연대학	5	261	
	상주산업대 농학계	5	150	영남대 자연자원대학	8	330	
부산 경남	경상대 농과대학	12	445	동아대 생명자원과학대학	4	200	농학계대학: 5개 학과: 27개 모집인원: 1,015명
	경상대 수의과대학	1	-				
	밀양산업대 농학부	4	80				
	진주산업대 농학부	6	290				
광주 전남	순천대 농과대학	10	345	-	-	-	농학계대학: 3개 학과: 23개 모집인원: 909명
	전남대 농과대학	12	514				
	전남대 수의과대학	1	50				
전북	전북대 농과대학	12	470	우석대 생명자원과학부	2	70	농학계대학: 4개 학과: 19개 모집인원: 700명
	전북대 수의과대학	1	0	원광대 생명자원과학대학	4	160	
제주	제주대 농학대학	5	200	-	-	-	농학계대학: 2개 학과: 6개 모집인원: 240명
	제주대 수의과대학	1	40				
계	16개 대학교 27개 농학계 대학	163	6,041	15개 대학교 17개 농학계 대학	81	3,688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1b). 전국 대학 정원 현황.

교육부, 전국 유.초.중.고.대학 일람표(2004. 4. 1기준)

<http://cesi.kedi.re.kr/jcgi-bin/index.jsp>

구체적으로 농촌관광에 전담하는 4년제 대학 학과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관광학과에서 커리큘럼으로 농촌관광에 대해 강의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4년제 대학의 교육이수는 향후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대단히 필요한 수준이나 아직까지 대학에서 학과를 설치해 강의하지 않는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다.

한편 지역개발학과는 전국에 12개 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것도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혹은 지역계획학과가 혼합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순수하게 지역개발만을 강의하는 대학은 경원대, 강릉대, 협성대, 울산대, 중부대학 등 5개 대학뿐이다.

<표 2-6> 전국 12개 지역개발 관련학과 현황

대학	소속 학부	전공 명칭
청주대학교	행정·도시계획학부	도시계획학 전공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부	도시·지역계획학 전공
경원대학교	지역개발·신문방송학부	지역개발학과
영남대학교	정행학부	지역개발학 전공
중앙대학교	산업정보계열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부	도시·지역계획학 전공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부	지역개발학과
협성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지역개발학과
성결대학교	도시지역과학부	지역사회개발학과
울산대학교	산경대학	지역개발학과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지역개발학과
목포대학교	정경학부	도시·지역개발학과

2) 사회교육을 통한 농업인력 양성

신규농업인력 양성은 학교교육을 주축으로 이루어지지만, 귀농희망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교육기관에서도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교육기관별로 교육과정,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기관, 교육대상자를 제시하면 <표 2-7>와 같다.

<표 2-7> 귀농희망자대상 영농 교육훈련 현황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목적	교육용	교육방법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농촌진흥청	귀농인 영농교육	영농에 필요한 정보 및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	품목별 경쟁력제고 방안, 농업경영, 기술정보 수집 관리	합숙교육 (강의/실습)	4일	귀농 창업자금 수혜자
농협중앙회	돌아오는 농촌교육	귀향 도시민에 대한 영농조기 정착 지도 및 돌아오는 농촌의 실현	영농기술, 경영정보, 농장건축 및 영농체험학습, 영농정착 사례 등	합숙교육	3-4일	귀농희망자, 일반인, 귀농자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학교	올바른 귀농방향 정립, 농업농민문제의 이해 확대, 농업의 중요성 인식	친환경적 유기농법, 영농정착사례 등	강의/실습	7주 (주2일)	귀농희망자, 일반인
	지역부문 귀농학교	올바른 귀농방향 정립, 농업농민문제의 이해 확대, 귀농정착 지원	친환경적 유기농법, 영농정착사례 등	강의	5주	귀농희망자, 일반인
	실상사 장기 귀농학교	농사 체험을 통한 성공적 귀농 정착 도모	분야별 영농 실습	농사체험	3개월	귀농학교출신자
	전문강좌	조화로운 마을 공동체의 형성,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방편 체험 등	다양한 우리 맛을 체험하는 문화강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강좌	강의/실습	3일	일반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귀농교육	실직 도시민을 위한 귀농조기 정착 지도 및 귀향 농업인 정착 지원	영농기술, 농업경영정보, 농장건축, 영농체험 등	강의/실습	3-14일	귀농희망자

2.3 농촌인력의 신규 진입

- 학교교육기관이나 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양성된 농촌인력을 관련분야로 신규 취업하도록 유도
- 행정적 지원으로 후계농업인의 선장지원, 신규영농창업벤처농업 지원, 귀농정착 지원, 신지식농업인 육성 등으로 구분
- 신지식농업인의 양성은 기술강의·현장실습 등 단계별 신지식농업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 육성
-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영농후계자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후계농업인 제도를 마련

1) 신지식농업인

국민의 정부 들어 농림부는 산업사회에서 비교열위에 있던 농업을 지식·농업화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선도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지식농업인육성을 적극 유도했다.

신지식인의 지정현황을 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총173명이 지정됐다. 하지만 지역개발이나 그린투어에 관련된 농어민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중 최애순이 2001년도, 심혁중이 2003년도에 그린투어로 신지식인에 선정되었다.

<표 2-8> 연도별 신지식인 선발 현황

단위:명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신지식인	78	13	26	15	17	24

신지식농업인은 향후 우리농업과 농촌진흥을 위한 새로운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신지식인을 활용한 지역지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전개된다면 다원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신지식농업인의 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지식농업인을 선도농업인으로 지정,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⁸⁾와 신지식농업인의 생산품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또는 장기적으로 농업 C·I(Corporate Identity)를 개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신지식농업인의 양성은 기술강의·현장실습 등 단계별 신지식농업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지식농업인력 육성하고 있으며 초·중학생 등 미래의 지식농업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부 신지식인들은 초·중학생과 초등교사가 농업에 흥미와 발전가능성과 첨단생명산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체험 연수프로그램 개발실천하고 있다.

또 그린투어의 아리랜드의 최애순의 경우는 신지식농업인 강의, 경영체 현장체험 및 그린투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앞으로 지식농업의 확산 및 육성기반조성을 위해 지식농업인 경영체 견학체험 투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지식농업의 확산과 인력육성 대상으로서의 신지식농업인 법제화와 협회의 법인화 등으로 지식농업기반의 단계적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마련이 요구된다.

- 그린투어리즘과 연계추진 :관광농업육성차원에서 국내관광코스·신지식농업투어 코스 및 지역농업문화축제를 연계하여 농업인, 농학계 대학교 재학생, 국내외 관광객, 초중고교생 및 교사까지 투어확대 추진.

- 신지식농업경영체의 역할 마련: 현장견학·체험·사례청취 등을 통해 농업인·농과계 학생 등의 신지식기술 습득기회 제공.

8) 농어촌발전선도농업인신용보증준칙을 개정(2001.3.5)해 실시하고 있다.

- 신지식농업인경영체와 그린투어제휴: 희망자를 신청 받아 각 경영체별 투어파일을 작성하여 투어풀(pool) 구축.
- 관광농업 활성화와 연계 추진 :작목별·지역별, 종합작목·동일작목·인터넷투어코스 등 선택적 투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코스를 개발.
- 수요자중심의 투어 추진: 농업인·농과계 학교에 투어프로그램과 투어 풀을 제공하여 프로그램에 따른 투어희망자를 신청 받음.

2) 후계영농인 육성

정부는 농가인구의 노령화 현상 심화, 농촌임금 상승과 농촌일손의 부족 문제 대두, 특히 농촌청소년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영농후계자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후계농업인(기존의 농업인후계자)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영농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3년에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농업인후계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1994년부터는 농업인후계자로 선발되면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농촌진흥청, 1994).

후계농업인은 신규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구분된다. 신규후계농업인은 사업시행년도 1.1일 현재 만40세 미만인 자로 지원대상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예정자 포함)로서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육성대상자로 선발된 자다.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사업시행년도 1.1일 현재 만35세 미만인 자로 지원대상은 농업계학교 졸업(예정자)후 5년 이내에 영농승계를 원하는 자 및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예정자 포함)이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중 영농승계 및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예정자 포함) 혹은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자 및 영농에 종사한 지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후계농업인 육성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연도에 따라 큰 폭의 증감이 있었지만, 1995년 이후에는 전체 육성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 지원액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1년부터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은 신규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이원화되었고, 신규후계농업인은 축소하고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을 대폭 확보하고, 음식, 숙박업, 유통업 등 48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창업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농업관련 농업인기업도 1999년 하반기부터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8월 현재 농업관련 벤처기업은 161개로서 전체 산업의 약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농업분야 벤처기업은 매출액, 수출증가률, 경상이익률 등 경영성과에서는 타산업 벤처기업 못지않게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귀농자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50억원(2000년 기준)의 재원을 확보하여 1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영농창업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2.4 농촌 인력의 육성

-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지식기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예농업 인력을 확보
- 전업농선도농으로 성장, 전문농업교육훈련, 농업컨설팅, 농업인력에 대한 행정정책 지원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1) 전업농선도농으로의 성장

전업농은 1994년까지 후계자 자금 지원과 마찬가지로 전액 국고 용자로 지원되었으나 1995년부터는 쌀전업농과 그 밖의 전업농으로 구분하여 지원책도 차별화시켰다. 쌀 전업농에 대하여는 1997년까지는 농기계구입자금을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의 조건으로 지원하였으나, 1999년에는 보조를 20%로 축소하고, 2000년부터는 보조를 폐지하고 융자지원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선도농업경영체 육성 현황을 보면, 1995년과 1996년에 60호를 선정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9년 이후부터 선도농업경영체를 더 이상 선정하지는 않고 있다.

2) 전문농업교육훈련

농업인에 대한 전문농업교육훈련을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농촌진흥청 및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전문농업인교육', '농기계 전문기술교육' 등 매년 20여개의 중앙, 도, 시군단위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2004년에는 대략 960,000명의 농업인이 이들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촌지도공무원에 대한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지원교육으로 농협영농지도요원 영농교육, 한국농업전문학교 농기계 교육, 농업교사 자격연수 농기계교육, 농과계 대학생 농기계교육, 외국인 농기계교육 등의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원:

'농업의 생명산업화를 선도하는 신지식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크게 전문교육과정과 민간인과정으로 나누고, 전문교육과정은 다시 공통전문교육과 선택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총 72개의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703명의 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농학계 대학 부설 최고농경영자과정:

2004년 현재 전국 22개 대학에 총 60개의 전공과정을 운영하여 1,500여명의 인원을 모집하였다.

- 농협중앙회부설 교육원:

안성교육원과 창녕교육원 및 축산교육원을 중심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한국농림수산센터 농업정보교육원:

농업인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높여 농업의 소프트화, 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3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컴퓨터를 통한 농업정보 활용, 농업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농업경영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21세기 선진유통문화를 창조하는 유통인 양성을 목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를 주도할 전문 유통인 양성, 우리 농산물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신지식 수출 농업인 육성, 농산물 유통개혁 및 수출진흥담당 공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농업기반공사 교육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1977년 교육원을 설립하여 농어촌 근대화사업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종합 정리하여 실천과 행동에 연결되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농업기반공사 전 직원은 물론 전국의 농지관리위원 32,000명에 대한 단기연수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공무원에 대한 물관리 교육 등 기술이전훈련을 실시하여 국위선양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기타 농업관련 학교부설 교육기관

순천대학교 부설 영농교육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전문교육원, 진주산업대학교의 최고영농자교육원, 농협대학 특별교육과정 등이 있다.

<표 2-9> 농촌관련 공공교육기관

기관	내용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전문농업인교육', '농기계 전문기술교육' 등 매년 20여개의 중앙, 도, 시군단위의 교육과정을 설치
농업연수원	'농업의 생명산업화를 선도하는 신지식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문교육과정과 민간인과정으로 나누고, 전문교육과정은 다시 공통전문교육과 선택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전국 농학계 대학 부설 최고농경영자과정	2004년 현재 전국 22개 대학에 총 60개의 전공과정을 운영하여 약 1,500명의 인원을 모집
농협중앙회부설 교육원	안성교육원과 창녕교육원 및 축산교육원을 중심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영농기술교육을 실시
한국농림수산센터 농업정보교육원	농업인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높여 농업의 소프트화, 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통한 농업정보 활용, 농업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농업경영 실현을 추구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를 주도할 전문 유통인 양성, 우리 농산물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신지식 수출 농업인 육성, 농산물 유통개혁 및 수출진흥담당 공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담당
농업기반공사 교육원	농어촌 근대화사업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종합 정리하여 실천과 행동에 연결되는 교육에 역점
기타 농업관련 학교부설 교육기관	순천대학교 부설 영농교육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전문교육원, 진주산업대학교의 최고영농자교육원, 농협대학 특별교육과정

3)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컨설팅

농업인력을 위해 기술적·정보적인 면을 지원하는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컨설팅은 성격의 거의 비슷하지만, 농촌지도는 주로 농촌진흥청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또는 지방 정부를 주축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역사가 비교적 긴 반면 농업컨설팅은 최근 들어 농업경영과 관련된 측면에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농촌지도사업은 중앙의 시험장에서 생산된 표준 기술을 농촌지도사업 채널을 통하여 농민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정보사회에서는 농업분야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농촌지도사업의 지도 내용과 방법 및 체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농업컨설팅은 개별 농업 경영체(단위별 농가, 농업법인 등)가 자신의 농업경영, 즉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제반 요소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또는 조언을 구하는 종합적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와서는 농업투융자 확대 및 구조개선으로 영농이 규모화되고 농업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 수준에 따라 농가소득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농가경영 현장의 경영성과를 높이는 전문컨설팅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도가 일반적으로 증대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에서는 1992년에 시군농촌지도소에 경영상담계를 신설하고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기초를 닦았다.

1996년부터 벤치마킹기법에 의한 농업경영컨설팅 개념을 도입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1999년부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규모화된 농가 및 영농법인 중심의 농업컨설팅을 시범사업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2004년까지는 농업경영컨설팅비의 국고보조율이 30%이나 2005년부터는 50%로 상향조정하고 교육훈련비도 약 30%정도 상향조정해 농업경영컨설팅에 국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표 2-10> 농업인 컨설팅 및 교육

항목	2004년	2005년
농업경영컨설팅	20억원(837개소)	40억원(1000개소)
농업인교육훈련	29억원(45천명)	36억원(50천명)

출처: 농림부 200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4) 농촌인력에 대한 행정적 지원

농촌관광과 관련된 대표적인 행정적 지원제도로는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제도가 있다. 농업경영종합자금은 농촌관광, 원예·특작, 축산분야, 재배 등 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분야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기업경영자금, 축산전업경영자금의 연계 운용에 따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설자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연계 운용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으로는 ①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② 원예특작, 축산분야 유통가공 저장산업 등 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시설로 사업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③ 경주마 사육 축산농가, ④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업사업자 등이다.

하지만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없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마을단위의 각종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사업비를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으나 개인이 실시하는 지역개발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IMF 경제위기로 농가소득이 줄고 부채는 크게 늘어난 가운데, 태풍 등 재해가 잦고 경기가 위축되는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라, 농업인들의 부채경감을 위한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가 관광농업이나 지역개발주체인력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없는 것에 반해 유럽에서는 급격한 농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안을 농촌관광으로 보고 있다. 또 농촌관광인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EU의 영농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20%내외지만 향후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농촌관광부문은 필수적인 노동력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실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같은 농업선진국의 경우 농가민박을 하는 경우가 40%이상이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농가소득30%, 농외소득30%, 정부보조금 30-40%로 농가소득이 구성되는데 이중 농외소득의 대부분이 농가민박이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대동소이한 특성을 볼 수 있다.

농업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농촌관광인력이 여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농가주부나 농가보조자로 인식되고 있어, 농촌관광인력으로서 여성의 기여도가 과소평가 되고 있다. 또한 농업내부의 성별분업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의사결정권한도 낮은 실정이다. 실제 경상북도 농림어업종사자 가구의 경우 남편 위주의 의사결정을 하는 부부가 68.5%로나 돼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매우 불평등한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었다.

농촌의 경우 농촌관광인력의 역할증대가 반드시 지위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인력 스스로도 전문 농업인으로서 성취감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우 양성평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여성 스스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농촌관광인력농업인 정체성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5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인력의 사회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 대부분의 사회교육기관은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주체인력개발교육은 실시하지 않음
-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모색과 농촌관광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
- 농촌 관광인력의 정보화교육 필요

1) 기관별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인력에 관한 사회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분석

농촌관광인력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 지역개발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교육과 일반 영농교육, 농협의 주부대학과 취미/영농교육, 지자체의 대학위탁 교육과 여성대학,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사회교육, 도서관의 문화강좌 등 다양하다.

그러나 대개의 프로그램이 취미교육과 교양교육에 치우쳐 기관별로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특히 영농관련 교육은 일부의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모색과 농촌관광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교육기관이며, 사회교육시설이 부족한 군 지역에서도 1개소씩 개설되어 있다. 또한 교통/거리, 가사 및 육아부담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농촌관광에 관련된 청장년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도 다수 실시하고 있어 농촌사회교육기관으로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농촌관광인력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 대체로 일상생활관리교육에 치우쳐 있고, 일반영농교육의 경우도 생산기술보급위주의 교육비중이 커 농촌관광인력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 농협

농협은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주요 농촌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해 왔지만, 재정적 어려움과 교육수요의 부족으로 농협의 사회교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참가율을 보면 취미교육(69.8%)이 가장 많고, 농기계/영농교육(8.0%), 부녀교실(7.6%), 주부대학(7.3%), 정보화 교육(3.5%)순으로 영농관련 교육의 비중이 낮다. 따라서 농촌관광인력농업인 교육기관으로서보다는 문화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주부대학의 경우도 취미/건강강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정적 여력과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 주부대학을 개설하는 농협이 줄어들고 대신 취미교실위주로 전환하는 농협이 늘고 있다.

-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센터는 면단위 농촌지역에 설치되어있으므로 지리적 거리감과 교통문제로 교육에 참여하기 힘든 여성인력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점이 많고, 교육단위가 소집단이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높다. 또 지역실정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다른 사회교육기관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꾀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센터가 지역 접근성이 높고, 농촌관광인력들에게 필수적인 복지사업을 비롯하여 단체 활동, 문화 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장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사업과 지역사회활동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대학위탁교육 및 후계농업인 교육

지자체의 최고경영자과정을 비롯한 대학위탁교육의 경우 일반 농촌관광인력들은 교육비, 교통비, 가사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참여할 수 없다. 특히 후계농업인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과정이 4년으로 길고 보수적 농촌환경에서 선불리 교육에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농촌관광인력참여율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농촌관광인력의 사회교육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수적 농촌문화개선과 남성들의 의식전환교육도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책이 확대되어 농촌 관광인력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노력들도 병행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농민대학

농민대학의 프로그램은 농협의 주부대학과 교육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차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교육기관별로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의 차별화 이외에 교육담당자들은 예산부족과 이로 인한 강사 확보 곤란, 강사수당의 비현실화 등의 문제점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시지역에는 최소한 1개소 이상의 평생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군 지역에는 가야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없다. 읍/면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 10개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은 취미/교양 교육을 비롯하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전문과정도 대체로 도시농촌관광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촌 관광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은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다.

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의 정보화교육

정보화는 농촌지역의 소외를 극복하는 동시에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회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현재 농협, 농업기술센터, 사군청, 읍면사무소, 우체국,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도 정보화 교육기회는 많이 확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관광인력의 정보화교육 참가율은 여전히 낮는데 이는 교육장이 멀고, 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그린투어인력, 특히 기존농촌관광인력의 경우 컴퓨터이용률이 9.0%, 인터넷이용률이 5.4%로 정보격차가 가장 심한 집단으로 나타나 적극적 개입이 없으면 향후에도 정보지체집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린투어 인력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컴퓨터 기술의 활용과 더불어 정보화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며, 여타 사회교육과 마찬가지로 농촌관광인력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농업연수부(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농업연수부는 21세기 선진농업을 이끌어 갈 우수농정 인력 육성, 농업경영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력 육성, 농업인부터 신뢰받는 농업공직자상 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농업연수부는 '56. 11 「신생활지도자훈련원」 설립이후 「농림공무원교육원」 및 「농업공무원교육원」 이란 기관명칭으로 국가, 지방농림 공직자 위주의 교육훈련 실시했으며 설립 후'92까지 농업, 축산, 등 1012개 분야, '93'98까지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3개 분야에서 연평균 4,700여명 교육했다.

'99. 1 교육훈련기관 통합 이후 '99. 1 농업연수부로 개편되면서 민간인과정 대폭 확대(77개 8,846명)해 '00.1 수요자중심의 교육지향을 위해 본 수요조사 전 기초 수요조사 실시 도입(83개 8,696명)을 교육했다.

'01.1 농업·농촌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별과정 신설(80개 8,050명), 금 토요일 집중교육 실시 및 교육생에게 자기계발 시간 부여 등을 했으며 어학훈련, 음악 및 영화감상, 산책, 체련, 독서, 전산학습 등 활용했다.

'02.1 농업의 지속산업·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과정운영(81개 6,893명),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등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 정책실현 교육측면 지원하고 '03.1 우수사례발표, 현장실습 등 참여식 교육 대폭 확대(78개 7,073명)하고 주입식교육 탈피 총 78개 과정중 53개 과정을 참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2-11> 2004년 농업연수부 교육과정

과 정 명	주 교 육 대 상	교육기간	동물및축산물검역반	공무원,농업인	5일,비합속
<공통전문교육>			동물약품관리반	공무원,농업인	3일,합속
종합농정반	5급이하 공무원	10일,합속	동물약품마케팅반	공무원,농업인	3일,합속
농업행정관리반	5, 6급 공무원	10일,합속	축산식품HACCP반	공무원,농업인	5일,합속
농업행정실무반	7급이하 공무원	10일,합속	가축질병예찰및방역	공무원,농업인	5일,합속
<선택전문교육>			축산물가공품검사반	공무원,단체협회원	5일,비합속
농정시책반(신규)	공무원,농업인	5일,합속	농업기반조성반	공무원,농업공무원	10일,비합속
여성농업정책반	여성담당공무원	3일,합속	농지관리반	공무원	5일,합속
농업인교육교관반	공무원,담당자	2일,합속	경지정리반	공무원,농업기반공사	5일,비합속
농산물유통반	공무원,유통담당자	5일,합속	농촌관광육성반	공무원,농촌관광업자	5일,합속
농업통상수출반	공무원,농업인	5일,합속	농업통계기초반	농관원,업무담당	5일,합속
농산반	공무원	5일,합속	농업통계전문반	농관원,공무원	5일,합속
농업재해대책반	공무원,업무담당자	5일,합속	농산물유통정보반	공무원,유통종사자	5일,합속
농업기계반	공무원	5일,비합속	정보처리기초반	공무원	5일,합속
시설원예반	공무원,농업인	5일,비합속	홈페이지작성반	공무원	5일,합속
기능성장잠반	공무원,양잠농업인	3일,합속	컴퓨터능력자격증반	엑셀기초습득공무원	5일,합속
농산물품질인증반	공무원,농업인	5일,합속	단기농업중국어반	공무원,농업인	5일,합속
농산물안전관리사반	공무원	5일,합속	여직원실무반	기능직공무원	3일,합속
검사검역반	검역담당자	3일,합속	<민간인과정>		
원산지GMO표시관리반	농관원,공무원	5일,합속	법인경영반	농업법인대표,임직원	3일,합속
한우사업반	공무원,농업인	5일,합속	벤처농업반	벤처농업인,지도사	3일,합속
낙농사업반	공무원,농업인	5일,합속	여성농업경영인반	여성농업경영인	3일,합속
양돈양계사업반	공무원,농업인	5일,합속	여성농업인교관반	여성농업인,지도사	3일,합속
축산환경반	공무원,농업인	5일,합속	한농전졸업예정자반	한농전졸업예정자	2일,합속
축산물유통반	공무원,농업인	5일,합속	여농경전졸업예정자반	졸업예정자	2일,합속
축산물위생검사반	공무원,농업인	5일,합속	어린이농업교실	도시초등학교어린이	2일,비합속
육류병원성미생물반	공무원,농업인	5일,비합속	초등교원농업탐방반	도시지역초등교원	3일,합속
축산물잔류물질검사반	공무원,농업인	5일,비합속	도시주부농업교실	도시 55세이하주부	2일,합속
가축질병진단전문가반	공무원,농업인	10일,비합속	종자관리사반	종자관리사자격자	3일,합속
사료품질관리반	공무원,농업인	4일,합속	마사회직원기획력개발	마사회대리급직원	2일,비합속

<표 2-12> 2004년 교육훈련 총괄계획

구 분	과정수	교육 횟수	교육인원	연인원
공통전문교육	3	15	723	723
민간인교육	14	24	1,975	1,975
선택전문교육	55	67	2,830	2,830
총계	72	106	5528	5528

* 2003년 교육 수료생은 공무원5,504명, 민간인 2,012명임

2004년도 실적은 다음과 같다. '04.1 참여정부 농업, 농촌 정책 지원을 목표로 과 정운영하고 참여정부의 농정기본 방향인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전국의 농림공직 자 공통과목으로 지정 교과목 편성한다. 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교육비 부담 등 으로 교육의 자발적 참여 유도하고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과목, 시기 등을 파악 맞춤형교육 실시한다.

당초 2004년 연간계획 72개 과정 5528명에서 5,703명으로 상향하고 → 실적은 81 개 과정 7,257명(127%)으로 초과달성했다.

- 전문교육 : 종합농정반, 농업행정실무자반 등 58개 과정 3,195명
- 민간교육 : 여성농업인교관반, 어린이농업교실반 등 14개 과정 1,782명
- 특별교육 : 창업후계농업인반, 최고농업경영자반 등 9개 과정 2,280명

하지만 현재 농촌지도인력육성은 미미한 실적이며 지난 10월 장관보고 후 2005년 부터는 농촌지도인력육성과 그린투어교육에 비중을 줄 예정이다.(이상용 농업연수부 장 인터뷰 04.12.5)

4) 한국농업전문학교(농촌진흥청)

한국농업전문학교는 농업관련 공무원에겐 전문기술을, 농업인 소득증대 기술보급 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다.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촌진흥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교육, 농기계교육 및 현지순회정비 기술지원, 농협 등 유관기관 요원 등에 대한 영농교육이 실시된다. 교육과정은 농촌민박과정이나 농촌 전통테마마을을 운영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표 2-13>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공무원대상 교육

교육기간	대상	기수	과정
2003.06.16 ~ 2003.06.20	지도사(공무원)	1	농촌관광지도자반
2004.03.08 ~ 2004.03.19	지도사 등	1	농촌지도실무반
2004.04.19 ~ 2004.05.14	지도사 등	1	농촌지도기초반
2004.04.19 ~ 2004.04.30	지도사 등	2	농촌지도실무반
2004.05.10 ~ 2004.05.14	농촌생활공무원	1	녹색관광개발과정
2004.09.13 ~ 2004.09.17	지도사 등	1	농촌관광반

* 기수별 30여명을 기준으로 교육 총 210명 교육 이수

5) 농협 교육원

농협교육원은 주로 임직원 전문직무 교육 및 농업인을 위한 영농기술, 농업경영 등 현장중심의 교육기관이다.

<표 2-14> 신지식 농업기술 및 축산기술아카데미 교육일정

교육 과정명	교과명	해당작목	인 원
영 농 기 술 경 영	신지식 농업기술	○ 품목별 신지식농업 기술교육(3일) - 품목 : 배, 복숭아, 딸기, 단감, 과수(여성), 포도	1,200
	핵심영농 기술향상	○ 특정분야 기술 중심(2일)교육(예: 정지, 전정)	600
	전문농업기술	○ 설진농장 중심 교육원 및 현장교육(2일*3회) - 품목 : 복숭아, 사과	50
	최고기술 아카데미	○ 재배경력 10년이상 농업인대상 최고기술교육 - 품목 : 복숭아, 수도작, 딸기, 배	60
	농업인 1인 1기술	○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발굴, 농외소득 증가를 위한 1인 1기술교육	200
	들어오는 농촌	○ 귀농(창업, 퇴직자)인의 사전교육으로 농촌정착도모	100
축 산 기 술 경 영	신지식축산기술	○ 한우 축산기술 기초교육 - 품목 : 한우 기술경영 교육프로그램	150
	전문 축산기술	○ 농장경영 3년이상 양축인대상 경영아카데미 - 품목 : 한우(2기), 염소, 사슴, 오리	400
	핵심 축산기술	○ 심포지엄 형식 테마중심교육(예:수태율 향상) - 품목 : 낙농(3기), 한우(2기), 양돈	840
	현장축산	○ 경영 컨설팅 현장중심 축산기술경영 및 컨설팅교육(2일) - 품목 : 회원축협 중심 현장교육	800
	산학연축산	○ 경영 아카데미 축산관련 전문가, 학회, 농협관계자 세미나식 산학협동교육(1일 2회)	400
	한우산업	○ 선도요원 농림부 주관 한우기술경영 교육 - 품목 : 축발기금 교육, 선도한우농가 대상	900
협 동 조 합 운 영 활 성 화	임원경영 능력	○ 회원조합 임원(이, 감사)경영능력 향상	2,000
	범농협인 한마음팀빌딩	○ 시군단위 관내 농업인, 임직원 합동교육 - 품목 : 3개조합 이상 합동교육	840
	산지 농산물유통 활성화팀 빌딩	○ 정부 유통활성화 자금지원 조합농업인 대상 - 품목 : 유통사업 활성화 교육	600
	유통 활성화 한마음팀빌딩	○ 출하 유통활성화 자금지원 조합 농업인대상 - 품목 : 유통사업 활성화 교육	600
	공관 사업 활성화	○ 공관장 조직활성화 팀빌딩 - 품목 : 공관장 한마음팀빌딩을 통한 경제사업활성화	400
	여성조합원 활성화	○ 여성조합원조합사업 참여 활성화 교육	400
	조합경영활성화	○ 경영약체조합 농업인, 임직원 한마음팀빌딩조합의 경 영분석, 조직활성화 방안 토론 등	600

(표 계속)

교육 과정명	교과명	해당작목	인 원
협 동 조 합	현장이동교육원	○ 농번기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 법률구조사업, 건강관리, 농촌일손돕기, 농기계수리	640
	유관기관	○ 농축인삼업 관련 단체, 기타 정부단체 등의 농협이 해교육	750
운 동	지역개발 특색사업	○ 지역농업개발 민관합동교육, 시군단위 공부원, 농업 인 합동교육	250
확 산	지역개발	○ 여성지도자 - 부녀회, 농가주부모임 등 여성조합원과 합동교육	800

<표 2-15> 농협 연수부 주요 교육과정

해당 과정명		계획인원		수요조사		증감(조정)		비 고
		기	인원	기	인원	기	인원	
벤치 환경 농업	수도작	1	200	2	600	1	400	3기증가로 일정 조정
	시설채소	1	180	2	520	1	340	
	과수	1	180	2	400	1	220	
	소계	3	560	6	1,520	3	960	
정보 화	농업인정보화	41	1,400	45	1,800	4	400	특정기수에 과다신청한 경우 일정조정
	사이버농업경영	8	260	10	410	2	150	
	축산경영	3	80	10	300	7	220	
	소계	52	1,740	65	2,510	13	770	
농촌 조직 육성	협동조직운영활성화	8	2,000	11	2,880	3	880	기수증가 과정 일정조정
	여성조직운영활성화	3	700	5	1,280	2	580	
	원로청년부	1	150	1	260		110	
	농협청년부	1	200	1	260		60	
	주부대동창회	3	500	4	650	1	150	2기 폐지
	임원여성대의원 활성화	4	800	2	430	△2	△370	
	소계	20	4,350	24	5,760	4	1,410	
합 계		75	6,650	95	9,790	20	3,140	

<표 2-16> 농협교육원 연도별 교육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교육현황	24,980	25,700	25,988	27,000	30,000

6) 농업기반공사교육원(도농교류센터)

농업기반공사교육원은 기반공사 직원 전문직무 교육 및 농지관리위원 대상 농지관리업무 전담 교육기관이다.

<표 2-17> 2004년도 농기공의 도농교류센터 교육계획

교육과정	기 간	개최회수	비고
○ 도농교류 일반과정	1박2일	3	3*100명
○ 도농교류 지도자 과정	4박5일	2	2*40명
○ 도농교류 전문가 과정	4개월(8회)	1	8*40명
○ 도농교류 특별강좌			
① 농촌관광 서비스 강좌	1박2일	2	2*100명
② 도농교류지역가꾸기 실무	2박3일	2	2*40명
③ 전통놀이와 레크리에이션실제	1일(6시간)	1	1*40명
④ 도시자본 농촌투자유치	1일(6시간)	-	2005년 이후

*2004년에 총 800명 교육

7)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업관련 민간전문교육기관으로 매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농업과 농촌,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린투어리즘 관련교육은 독보성을 가지고 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는 도농녹색교류를 중심정책중 하나로 선택해 시행하고 있다. 도농녹색교류란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는 인간성 회복의 이념 아래 도·농 신뢰를 기반으로 도시주민의 요구(Needs)에 부응하여 농촌·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지역 특성으로 가꾸어 따스한 품과 푸근한 인심을 매개로 한 상호교류”를 말한다. 다음 내용은 협회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개요다.

<표 2-18> 2004년도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교육계획

구분	내용
1.도농녹색교류 최고지도자과정 (16주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아름마을, 우수생태마을, 어촌관광마을, 팜스테이마을, 산촌종합개발, 새농어촌건설사업 지도자 대상 -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가능 - 이론과 실습을 겸해 현장에서 직접 실천 가능한 교육
2.도농녹색교류 맞춤형 교육과정 (2박3일)	<p>시·군 지자체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읍면별, 마을 단위별로 도농녹색교류 관련 소재 (7거리-불거리, 먹거리, 쉼거리, 놀거리, 알거리, 할거리, 살거리)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팅 - 분야별, 단계별 체험지도, 숙박, 레스토랑 운영 전문과정 개설 - 시군 지자체 단위의 도농녹색교류 모델 및 운영시스템 개발
3.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 의 마을가꾸기 컨설팅 및 사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과 도농교류의 연계 - 마을 특산물개발과 주민(특히 노인과 부녀자)의 역량 함양 - 같은 주민 및 도시민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과 자부심 고양 - 도농통합시대의 여가, 체험, 교류, 정주공간을 위한 마을가꾸기
4.은퇴농원개설 및 운영 교육과정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시대의 노인 및 가족 복지와 일거리 제공 - 농업에 대한 접근과 기초과정 습득의 기회 제공 - 도시 퇴직자의 여가, 취미, 건강 농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
5.친농 및 도농교류 교육과정(4주) 도 시퇴직자, 은퇴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및 접근 - 지역정주자를 위한 농업 및 생활 교육 - 도시 퇴직자의 여가, 취미, 건강 농업에 대한 접근 - 토지, 가옥, 농기계의 임대 및 구입 알선 - 지자체와 연계하여 농촌정주 활동 및 지속적인 지도
6.도농녹색교류 관련 맞춤형 해외 연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유럽, 대만 등의 도농녹색교류 관련 알찬 연수 기획 - 지자체의 지역과 테마 선택에 부응한 연수 - 각 지역별 최고의 전문가 안내 및 설명과 7거리체험

교육내용과 수강생(수강생은 과정당 20-50명 내외로 평균 30여명임)

*2003년도 교육생 220명, 2004년도 예상교육생 300명

◇ 도·농 녹색교류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

1. 이념정립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 1) 연구활동- 녹색교류 연구위원회 구성
- 2)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성공사례(개인, 지자체) 발굴 및 발표>
- 3) 각종 매체 홍보 (범국민적 운동전개)

2. 교육사업

- 1) 도·농 교류 희망자 교육 (안전한 먹거리, 여가, 체험, 교육)
- 2)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틈새농업, 벤처농업)
- 3) 녹색교류 지도자 육성교육 (최고경영자 과정-16주)
- 4) 농촌정착 희망자를 위한 정착교육 (경륜과 전문성 활용)

3. 도·농 교류 알선 및 농업 알리기 사업

- 1) 도·농 교류 희망자 알선(생산자와 소비자-농소정사업)
- 2) 아파트 베란다 가든 만들기 주말 농장소개
- 3) 농촌정주 희망자 알선 (지역, 토지, 농기계, 가옥)
- 4)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알선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

4. 농촌환경 가꾸기 사업

- 1) 개별농가 단위 환경가꾸기 (편안함 추구)
- 2) 마을 단위 환경가꾸기(쾌적함 추구)
- 3) 지자체(시·군) 단위 환경 가꾸기(특성화 추구)

이중에서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하는 교육중 백미는 도농녹색교류최고지도자과정(16주과정)이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 전통태마마을(농진청), 이름마을(행자), 우수생태마을(환경), 어촌관광마을(해수), 산촌종합개발(산림), 새농어촌건설사업(강원)등에서 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민간지도역량을 육성하는 교육이 그것이다.

교육방법은 각계최고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이후 현장실습을 병행한다. 마지막에는 학생 스스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연습까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론과 실습을 겸해 현장에서 직접 실천 가능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3.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의 문제점

충남 태안의 벗가리마을의 경우 농업주종사자 중 농촌관광에 관계하면서 농사도 짓는 인력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역농업에 있어서도 과거 전업농중심에서 겸업농 내지는 관광농으로 구조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동강도는 가족노동구조보다 더욱 강해졌으며 과거 새마을운동이후 농기계보급 등으로 사라져 보지 못한 협업이 생기고 공동농업체험 등 도시민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벗가리마을과 같은 경우도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촌들이 농촌지도인력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벗가리마을이나 문당리, 신대리와 같은 선진지역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3.1 농촌인력 확보의 문제점

- 예비 농촌인력과 전문필요인력 유인 미흡
- 농촌인구 및 농가인구의 확보 어려움

1) 예비 농촌인력과 전문필요인력 유인 미흡

최근 농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농대의 경우도 농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농촌으로 I턴하는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또한 청소년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농업계 고등학교로 유입하기란 더욱 힘들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농업계 전문대학이나 농학계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농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이 되기 위한 특단의 조치⁹⁾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인력이 최근 지역개발과 그린투어를 위해서는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력은 거의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급방법도 유연하지 못하고 귀농을 원하고 있다.

9) 유럽의 경우 전체수입의 1/3이 농업소득, 1/3이 그린투어 등 농외소득, 1/3이 정부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우는 이 소득의 평균금액이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보다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농촌을 지키며 교육, 복지, 의료, 문화시설이 미약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

실제로 프로그램오퍼레이터의 경우는 농촌에 정착하거나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면 돌아 도시로 나오는 형태이다. 이러한 살 것이나 말 것이나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농촌에 살며 그들과 함께하지는 않는다. 농촌필요 전문인력도 선택의 폭이 최소 공무원보다 나아가지 농촌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마을에 정착하기 보다는 먼단위에 지역개발기획가, 지역교육기획가, 그린투어 기획가, 마케팅기획가 등이 있어 이들을 활용하는 사업들이 요구되고 이들의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과 유사한 형태로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농촌지역과 불화나 문제발생소지가 적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농촌인구 및 농가인구의 확보 미흡

경제개발 및 산업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촌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농촌인구의 대다수를 이루는 농가인구 또한 급격히 줄어들었다. 더욱이 농촌인구 중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감소하여 가족농 중심의 우리 농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인구 감소 문제는 상점, 시장, 학교, 약국, 행정 기관 등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시설들이 축소 또는 소멸되어 지역사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농촌 붕괴는 물론 농촌에 거주하는 농가 인구도 없어지게 되는 연쇄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농촌인구확보를 위해 현재 강구된 것이 도시민의 세컨드하우스를 농촌에 짓는 것을 보다 유연하게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농촌의 경관과 농촌의 정서에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과 의식에 관한 부분이 충분히 협의¹⁰⁾되어야 할 것이다.

세컨드하우스의 경우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방식보다는 러시아의 다차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가시간 증대와 정부에서 적극적인 제도완화가 필요하다.

10) 일례로 강원도 화천군 동촌리의 경우는 이장이 귀농예상자에게 친교프로그램과 귀농 의사를 확인하고 친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에 소극적이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3.2 농촌인력 양성의 문제점

- 농촌경제인구 수급 대폭 개선 요망
- 농업농촌인력 양성관련 기관간 연계 부족
- 농촌인력 양성기관의 특성화 미흡
- 농촌교육훈련 내용의 현장 적용상 어려움
- 교육훈련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 양성기관의 교육여건 미흡
- 행정재정적 지원의 차등화 부족

1) 농촌 인력 수급 대폭 개선 요망

의약학법률분야나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분야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필요한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하여,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인력 수급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국 농업이 돈이 안 된다는 것이고 농업경쟁력이 없는데 농촌에 종사할 사람들은 더더욱 오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종합산업으로서의 농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통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농업생산분야를 중심으로 작성됨에 따라, 지식기반 농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에 대한 기초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 결과 농업인력 양성기관의 전공별 적정수의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농촌개발에 관련한 기술인력은 대부분이 도시에 소속을 하고 있으며 그린투어의 경우도 꼭 필요한 서비스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전문가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대충 대충하는 초보수준이다.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 초보수준의 서비스에 대해 농심을 전달해 준다고 장려하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농촌도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농업복합체로서 농촌을 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함께 필요하다면 외부인력을 아웃 소싱 하고 이것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공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농촌인구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과 지역균형개발이 요구된다.

2) 농촌인력 양성관련 기관간 연계 부족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조, 중앙정부 부처간의 협조,

농업인력 양성기관간의 연계 등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농업인력 양성을 이러한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특성의 농업에 필요한 농업 농촌 인력 육성 부족과 중앙정부의 지도 미흡
-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부족
- 학교교육 체제와 사회교육 체제의 상호연계 미흡

일례로 정부의 농업농촌 담당교육 기관중 가장 상위적인 개념이 농업연수원인데 이곳에는 농촌이나 그린투어 관련된 교과목은 전체 100여 강좌 이상 중 3강좌에 불과하다. 이것이 농촌이나 그린투어 중심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실제 농촌에서 지역개발과 그린투어가 현장성을 가질 수 있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3) 농촌인력 양성기관의 특성화 미흡

최근 들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농업과 지역개발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농업에 맞는 농업분야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력 육성기관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개설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영농교육훈련의 내용 수준 또는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영농교육훈련에 참여한 농업인들의 반응도 영농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학교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신규농업인력 또는 지역농업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농업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로 영농에 종사하게 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영농의 차별성이나 지역특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개발이나 그린투어에 있어서는 아직 그 맹아조차 지역에 없는 곳이 많다.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전환하려고 하지만 기존의 관습과 성공사례에 대한 학습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린투어나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성공사례의 유형화와 실패사례의 유형화를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먼저 일반화에 대해 교육시키고 다음 특성화에 대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러한 교육과 홍보정책이 없다면

우왕좌왕하는 지역만이 있으며 실효가 없는데 돈만 솟아 붓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4) 농촌교육훈련 내용의 현장 적용상 미흡

교육훈련 내용의 현장 적용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교육강좌의 절대량이 부족
- 지식기반적 농업농촌의 특성을 교육훈련 내용에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수요자중심의 교육훈련 제공 미흡
- 자격증과의 연계 미흡
- 경제적 측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
- 구체적으로 성공사례에 대한 부분이나 실패요인에 대해 교육하지 못함
- 교육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 그린투어와 지역개발의 일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음

5) 교육훈련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교육훈련 담당자는 전공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에 전문성 있는 교육담당자 부재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용 능력 부족
- 교육훈련 담당자의 자기개발 기회 부족
- 중앙의 교수들은 너무 바빠 일회성교육뿐이 안됨

따라서 대안으로 교육을 담당할 강사진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전문학교에 농촌관광과를 설치·운영하고 이곳에서 일정부분 강사진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대학에 농촌교육을 담당할 전담학과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현실성면에서는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진다.

당장 시급한 교육강사 인력은 농협, 기술센터, 기반공사, 공무원, 지역식자, 지역대학 등에서 교육해 농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미흡하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

6) 양성기관의 교육여건 미흡

농촌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여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급이 존재하지 않음
- 실험·실습 교육을 위한 제반 시설과 설비 절대부족
- 기자재 확충 및 유지·관리 미흡
- 중앙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방에서는 이년에 1차례 교육받기도 어려움

이러한 문제점으로 볼 때 절대량의 농촌계획과 농가민박 등 그린투어교육이 요구되나 초기 교육인력은 대단히 많으며 중기, 장기 교육인원은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인력과 강사진의 수급문제에 대해서 심층적 검토와 판단이 요망된다.

또한 농업농촌인력 육성 체제에 대한 평가가 학교교육 체제와 사회교육 체제 모두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 체제에서의 농업인력 육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 학생들의 전공분야로의 취업률(영농분야로의 취업률 포함)이 만족스럽지 못함
- 학생들의 취업률에 대한 다차원적이며 구체적인 분석 미흡
-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효과평가에 있어서의 구체성 부족

7) 행·재정적 지원의 차등화 미흡

지금까지 농촌개발에 관련 인력을 육성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국공립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거의 모든 농업관련 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는 농업인력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기관별로 보면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농촌인력은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유를 제시한다. 따라서 교육기관별로 지난 인재육성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기관별로 재정 지원을 차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 신규 진입의 문제점

- 신규 농촌인력 진입 장애 요인의 문제
- 그린투어농업인 선정 및 지원의 문제
- 귀농 정착 지원의 문제
- 벤처농업 지원의 문제

1) 신규 농촌인력 진입 장애 요인의 문제

신규로 농촌에 정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 장애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안덕현 외, 2001),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또한 다시 농업분야에 진입을 하고 싶어도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영농기반 조성자금 및 시설자금 확보 곤란(53.2%)'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같은 맥락에서 '농지 확보 문제(52.1%)'를 들었다.

즉, 농사를 짓고 싶어도 영농기반이 없어서, 특히 농지가 없어서 쉽게 농업에 진입하기 힘들다고 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영농기술 부족(38.3%), 농기계 등 농업기반 시설 부족(22.3%), 농촌의 열악한 생활과 교육문화적 환경(13.8%), 후계농업인 연령 및 학력 제한(8.5%), 농업 비전 불투명(저소득, 악성노동)(7.4%) 순이었고, 이 밖에 가격 및 판로 불안정과 결혼하기 힘들다는 이유 또한 농촌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차별의식 등 복합적인 경제외적인 요인을 들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농업의 침체는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농촌에 정주하거나 반정주(半定住)하기 위한 유연한 시스템이 농촌지역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역개발을 통한 농촌관광 등의 지역주체인력을 육성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그린투어농업인 선정 및 지원의 문제

그린투어농업인이 정부차원에서 육성을 위한 전략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농협에서 2000년부터 팜스테이 운영사업은 부족한 그린투어나 민박인력의 양적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함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선정된 그린투어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린투어 농업인 선정 및 지원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예비 그린투어인력(귀농예정 도시민) 양성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농업인 선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그린투어농업인 선발하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내 확보
- 지자체 행정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한 자의성과 공정성 결여문제 보완
- 팜스테이 등 선발 대상자의 연령 제한 및 선발기준의 비현실성
- 선정될 그린투어 농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의 영세성과 일회성에서 탈피¹¹⁾해야 함
- 대상자 선정의 잘못과 관리 소홀

3) 귀농 정착 지원의 문제

귀농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채용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자를 선발하여 귀농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업과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귀농정책의 주목적이다.

더욱이, IMF 이후 귀농자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농가인구가 증가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가 경기 회복과 더불어 다시 귀농 추세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귀농 정책을 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 영농 지식, 기술 및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의 기회 부족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농과 지역과 관련된 기술교육 및 경영교육의 부족과 영농 정보의 제공 미흡
- 귀농 정착 자금 지원에 대한 기준의 모호와 비현실성
- 귀농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농업생산 및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이 시급함

4) 벤처농업 지원의 문제

신규영농창업이나 벤처농업의 경우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농업분야에 새롭게 뛰어들어든 신규 농업인력이나 벤처농기업에 대한 신기술 신경영기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업분야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 나갈 농업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농업분야에서 오랫동안

11) 과가 정부의 영농후계자나 산업기능요원, 신규창업농, 벤처농 등의 지원방법은 용두사미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과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인다.

동안 종사한 전문인력들이 벤처 사업의 의지를 조장할만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벤처농업 육성 계획이 지속적으로 공평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벤처의 범위를 농업에 한정하지 말고 농업과 관련이 있는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등 유관부분으로 확대한다면 그린투어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잠재력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3.4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의 유지·개선의 문제점

- 국가적 지원의 미흡
- 농업농촌컨설팅 서비스 미흡
- 그린투어 인력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미흡

1) 국가적 지원의 미흡

신규 농업인력이 진입을 한 후에 농업인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으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59.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운영자금 부족'(56.4%), '경영기술 부족'(18.1%), '자녀교육, 문화생활 문제'(15.9%), '판로 불안정'(14.8%), '투자에 비해 적은 소득'(11.7%), '생산에만 전념할 수 없는 환경'(4.3%), '병해충'(2.1%) 순이었다(안덕현 외, 2001).

그린투어에 관련한 영농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역자원개발이나 마케팅 등은 지자체가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고 안정적인 도시민유입에 관해서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력의 단계별 성장 유도 정책은 “후계농업인 → 전업농 또는 농업법인 → 선도경영체”의 형태인데 정부는 농업인력이 이러한 성장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이 요구되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아직은 그린투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2) 농촌컨설팅 서비스 미흡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 도시민의 수요는 사회적 여건으로 급증하는데 이에 대한 준

비는 미약한 실정이다. 농업인들이 그린투어를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기관은 각각 업무취급 담당과가 다르거나 심한 경우 부처까지 다른 경우가 많다. 농업인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도 업무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는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소프트웨어나 기술적으로 유동적인 부문이 있고 농촌과 농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현실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했지만 이에 대한 운영노하우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할 수 없다는 시설은 폐물과 유사하다. 따라서 농촌관광이나 지역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부문별 전문가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상담요원은 대단히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3) 그린투어 인력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미흡

농업교육훈련을 보면 학교교육기관에서는 비교적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그린투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훈련은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린투어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자협회를 제외한다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그린투어 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린투어 농업인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영농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족
- 농업관련 지식과 농촌관련 정보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미흡
- 대부분 집단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 수요자인 그린투어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의견 조사나 현지 조사와 같은 요구분석 미흡
- 현장 중심의 수업 진행 미흡

3.5 기타

- 농촌체험 현장 중심 “연구-교육-컨설팅”의 연계 미흡
- 농업 지식정보의 공유 미흡

1) 농촌체험 현장 중심 “연구-교육-컨설팅”의 연계 미흡

우리 농촌체험도 지역별 특성과 입지 상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농업을 하는 것이 농업의 지방화시대를 실현하고, 지식기반사회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특히, 농촌체험관련 연구는 농학계 관광계 대학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학·관·연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협조 체제 하에서 새로운 기술의 연구 및 보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의 구성원이 ‘연구조합’ 등을 결성하여 그린투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연구 프로젝트로 개발해야 한다. 참여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업 등이 연구과제의 설계 및 평가에 참여하여 함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의 보급 및 농촌지도는 기술과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농업 현장과 연구자간 또는 농업인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농촌의 지도와 기술의 보급 형태는 그린투어농업인과 연구자 및 관련 산업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고 서로 배우는 “연구회”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며,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은 참여 농업인의 농장 경영에 직접 적용하여 그 효과를 농촌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농업 지식정보의 공유 미흡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농촌지역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보급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이 필요로 하는 농업정보로는 국내 및 국제 농산물 시장 및 가격 정보, 예찰 정보, 국내외

농촌기술정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등 수없이 많다.

이러한 정보들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집·분류·정리되어 필요한 기관에 전송되고 지역별로 자원개발과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회의 소식지 형태로 관련 농업인에게 배포되도록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표 2-19> 농촌인력개발 개념

농촌인력 확보	→	농촌인력 양성	→	농촌인력 신규진입	→	농촌인력의 유지, 발전
농업에 적합한 우수 예비인력을 각 분야별로 충분하게 확보 -도시에서 귀농촉진책마련 -아웃 소싱도 고려	→	농업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 -농업에서 농촌인력으로 전환 -그린투어와 지역전문가 개발	→	양성된 인력이 농업, 농촌 현장에 진입 -원활한 정착을 위한 소시얼 케어시스템마련 -지역민과 융화협조체제	→	현직에 있는 농업인력이 농촌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용·유지·발전시킴과 함께 부적합한 농업인력에게는 제3의 길을 마련해 줌

4.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의 인적자원 사례분석

4.1 홍성 문당리 주영로회장과 주민사례¹²⁾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 이념적 영향을 받음
- 일에 대한 그의 열의와 추진력은 상당히 강하며 전략과 계획이 있음
- 환경농업교육관을 건립과 유기축산을 시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환경친화적 마을 발전도모
- 마을 주민의 참여를 동반한 오리농법의 성공으로 마을에서 점차 인정
- 마을 발전을 위한 탁월한 비전 제시와 지속적인 설득, 헌신적인 봉사에 의해 생성

1) 개관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는 1987년 오리농법에 의한 벼 친환경농업을 도입하고 생태마을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문당리 지역을 포함하여 인근지역에 현재 약 200만평의 오리를 활용한 유기농법에 의한 벼농사를 짓는 모델로 일본 규슈의 야마기시방식

12) 사례에 대해서는 농경련 농촌마을의 리더십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를 기초(허장, 정기환)로 주영로회장과 홍쌍리여사의 인터뷰와 기사를 바탕으로 서술함

에 의한 오리농법을 재치고 동아시아 최대 최고의 유기수도작에 있어서 성공모델로 지칭되는 곳이다.

문당리는 전국에 오리농법을 보급시키는 친환경농업 기술혁신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2004년 현재에는 홍동면 약 480여농가 200만평 규모로 확대되었다. 또 무농약 농사를 짓고 있다. 생산한 오리쌀은 <풀무생협> 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고, 2003년에는 생식업체, 2001년부터는 이유식업체(매일유업)의 대량주문도 있어 오리쌀 5만 가마를 전량 판매할 수 있었다. 가격도 일반 쌀보다 30퍼센트 더 받아 4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 2001년부터 웹 사이트를 개설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매년 수확후 판매분이 6월에 결정 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밥상의 안전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오리쌀의 전망은 밝아 보인다.

이곳 친환경농업지구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량 홍동농협, 풀무생활협동조합, 정농유통, 매일유업, 한겨레마을, 한살림 등과의 계약을 통해 '홍주골 청둥오리쌀'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출하된다. 홍동면에서의 2000년 공동매출액은 12억원, 2001년 16억원으로 알려졌으며 2004년에는 약 30억원이상의 매출일 전망이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도농일심'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오리입식행사와 가을걷이나눔의 축제를 소비자와 함께하면서 홍동면 전체에 1천명 정도, 문당리에만 3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따라 이 마을은 각종 농업정책의 시범, 우수마을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마을이 되었다. 1999년에 친환경농업시범마을, 2002년에 친환경농업지구 및 환경부 선정 자연생태 조성 우수마을, 그리고 행정자치부 선정 정보화시범마을로 지정되었다. 또 2004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권역의 하드웨어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마을의 지도자는 '홍성 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주형로(남)로서 1997년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2000년 농림부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으며, 2001년 대산농촌문화상을 수상하였다. 2004년 현재 가장 성공한 농촌지도자로 인식되고 있다.

2) 변화의 계기

인근 홍동면 팔패리에 있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출신인 주형로는 1990년대 초 은사로부터 오리농법에 관한 야마기시 농법이나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생태적 농업과

삶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1993년부터 구체적인 실험하고 인근 농가에 전파하게 되었다. 그가 이처럼 새로운 농법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이미 당시 출범한 정농회에 가입하고 졸업 후인 1981년부터 자신의 농경지에 유기농업을 도입하는 등 일찍부터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 배경이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실험도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었다.

한편 1993년 UR 협상이 타결되고 농업의 장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농촌에 번지는 상황에서, 주형로는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 그러나 준비하는 농민은 살 수 있다”며 “쌀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길 좋은 쌀 생산밖에 없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나의 대안으로 오리농법을 소개하였다. 농업을 둘러싼 외부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수용의 필요성이 모색되는 가운데 그의 설명은 마을 주민에게 점차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이다(김백준 2000).

3) 지도자의 역할과 리더십 구조

주형로는 만44세(2004년, 이하 연령은 모두 2004년 기준임)로 4대째 문당리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 고장 출신이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다니면서 이 학교의 이념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¹³⁾ 그는 풀무학교의 정신이 자신을 이끌고 마을의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한다.

일에 대한 그의 열의와 추진력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녹색연합 녹색연구소와 서울대환경대학원 양병이교수와 더불어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농업교육관을 건립하였으며 유기축산을 시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환경친화적 마을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987년 오리농법을 시작할 무렵, 그는 결코 마을에서 지도자로서 인식되는 인물이 아니었다. 단지 유기농법에 미쳐있는 별난 젊은이로서 인식되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마을 주민의 참여를 동반한 오리농법의 성공으로 마을에서 점차 인정받는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 그의 리더

13)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1958년도에 설립된 고등학교 학력 인정학교로서, 학생 수 70여명(전원 기숙사 생활)에 교사는 14명 정도이다. “흙 속에서 진리를 공동생산하는 참농부 육성”을 목표로 “무공해 유기농법에 바탕한 신농법 개발과 참진리 공동생산”을 추구한다. 졸업생들이 홍성군 지역의 각 마을과 생산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홍성신문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유기농업 확산의 주축이 되고 있다(홈페이지 www.poolmoo.or.kr 참조).

십은 강력한 카리스마보다는 마을 발전을 위한 탁월한 비전 제시와 지속적인 설득, 헌신적인 봉사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백준 2000).

그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흥동농협 오리농법 작목회장, 흥동농협 이사, 풀무신용협동조합 부이사장, 정농회 수도분과 위원장 및 이사, 한국오리농법연구회 회장 등 마을 안팎의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마을의 리더십 구조는 주형로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노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오리농법이 도입된 이후 귀농한 3호의 젊은 농가(42세, 녹색평론 편집장 출신; 44세, 목사 등)가 활동하고 있으며, 풀무학교 출신들(문당리 내 6명)도 활동하고 있다. 부녀회 회장, 총무(주형로의 부인) 등도 젊은 사람들이다. 전 이장(62세, 영농조합법인 부회장)을 비롯한 노령층은 지도자에 대한 지지세력이다.

4) 마을의 사회적 관계

지난 10년 정도에 이룩한 성과를 상징하는 하나의 지표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하여 이 마을의 인구가 일반적인 농촌의 인구감소 추세와는 달리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홍성군 전체의 1990-2000년 인구 연평균 감소율이 1.5%이고 흥동면은 3.3%인데 비하여, 문당리의 경우에는 전출자는 별로 없고 오히려 오리농법의 성공 이후 3호의 젊은 세대가 귀농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문당리는 90호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의 연령별 인구구성을 보면 20-50대의 청장년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있다. 전국 인구의 연령별 분포와 비교한 <표 5-1>을 보면 특히 20-30대의 청년층 인구비율이 40.6%로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농촌의 인구구성이 전국의 그것에 비하여 노령층으로 집중화되어 있음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것은 젊은 리더십 구조의 구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을의 활력유지에 크게 기여한다. 문당리에는 1990년대 이후 귀농한 젊은 농가가 3호 있으나 그 이외에는 마을 주민 중 외지인은 없다. 따라서 각성마을이긴 하지만 마을 주민의 동질성은 높은 편으로 사회적 유대감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문당리는 전통적으로 상업적 축산, 대규모 전작이 미약하고 미작 중심의 마을로서 대지주도 없어서 빈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다. 홍성군이 우리나라 한우 주산지

의 한 곳이며, 흥동면의 경우 약 460가구가 한우를 사육함으로써 축산업이 지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당리에서 축산이 발달하지 않은 점은 특이하다. 이것 역시 이 마을 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없고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쉽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이다(김백준 2000).

실제로 주민 사이에 마을 공동작업에의 참여도가 높다. 오리농법 덕분에 생태순환고리가 다시 이어진 문당리에 논 메뚜기와 멧돼지 같은 야생 동물이 돌아왔다. 자연이 살아나면서 사람들의 삶도 더불어 바뀌는 걸까. 주형로 선생은 사람이 오리를 닮아가는 것 같다며 웃는다. 주영로회장은 "오리는 저 홀로 지내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집단적으로 대처하거든요. 오리농법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요즘은 마을 부역에 참여하는 게 거의 99퍼센트예요."라고 말한다.(정경일, 계간 [새길이야기] 10호2003 가을)

주형로가 오리농법을 시작하고 보급할 당시, 자신을 믿고 따르는 후배를 포함 3호로 시작할 정도로 초기에 신기술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하지만 초기 오리농법 쌀의 수확량이 일반 수확량의 90%를 차지하고 오리농법에 의한 흑향미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벼가마 80kg으로 환산하면 34만 1천 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면서 오리농법 실천농가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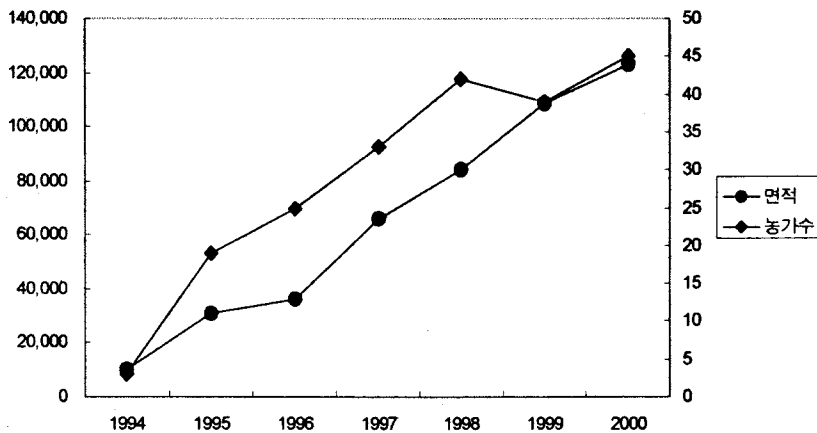
또한 매스컴으로부터 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마을로서 조명을 받게 되자 마을 주민의 의식이 조금씩 변화하였으며, 특히 일반 쌀에 비하여 3배 정도의 고소득 작목인 흑향미 벼씨는 오리농법을 실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반농가에게 우선하여 배분함으로써, 오리농법을 실천하는 농가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오리농법이라는 혁신기술이 광범하게 사용되는 현재에도 여전히 새로운 혁신기술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 혹은 환경의식은 특별히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사례는 오리농법이 마을의 주된 농법으로 자리 잡게 된 현재에도 발작물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주형로가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는 유기축산의 경우에도 마을 주민 사이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로를 겪고 있다. 유기 벼 재배로 생산되는 벃짚과 쌀겨를 사료로 활용하여 100마리 정도 규모의 한우 유기축산을 계획하면서 당초에는 모든 가구가 1마리 정도씩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협조부족으로 단지 4호만 참여하게 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표 2-20> 홍성 문당리의 인구구조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문당리	184명	43명(23.3%)	32명(17.3%)	25명(13.5%)	42명(22.8%)
전 국	4,210천명	432천명(10.3%)	363천명(8.6%)	528천명(12.5%)	710천명(16.9%)

자료: 홍성 환경농업마을(2002).



<그림 2-2> 문당리 오리농법 실천 농가 수 및 논 면적 (단위:10)

5) 정책적 지원

문당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초기에는 미미하였다. 오리농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리구입비용 및 오리망과 오리집 설치를 위한 자재비용 등 초기자금이 소요되는데,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홍성군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500만 원씩 세 차례 지원한 것이 도움이 되었고 유인책이 되었다. 마을에서 필요할 때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원되었다는 것이 주형로의 응답이었다.

초기의 오리농법 및 마을 발전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농림부의 정책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었다.

<표 2-21> 홍성군 문당리 토지이용 현황

토지	임야	답	전	기타	총면적
비층	44%	27%	17%	12%	230.4ha

<표 2-22> 홍성 오리농법 확산과 정책지원

연 도	지 원 내 역
1987	◦ 실험적으로 오리농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주영로 인터뷰)
1993	◦ 일본의 유기농법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실천을 준비함
1994	◦ 홍성군 농촌지도소에서 홍동면 문당리에 3ha, 오리 천마리에 대해 500만원 시범사업 지원
1995	◦ 홍성군 농촌지도소에서 금평리 2ha, 오리 1,800마리에 대해 500만원 환경보전형 벼농사 사업 지원
1996	◦ 홍성군 농촌지도소에서 벼논오리 가공시설 지원: 문당리 탈모기 1대, 냉동냉장시설 500만원 지원
1997	◦ 홍성군에서 특화작물 육성지원: 문당리, 금평리 30ha에 4,800만원 지원 (오리육추장 63평, 벼논오리재배 그물망 및 전기 목책시설) ◦ 7월 29일 제2차 아시아 오리농법 교류대회 200만원 지원 ◦ 농협에서 벼논오리 가공시설 지원: 가공시설 30평(청둥오리+ 한약재 가공)에 대해 1천만원 지원, 이를 통해 1면 1특화작목으로 지정됨
1998	◦ 유기농업실천농가 교육지원: 200명에 대한 교육 등 80만원 지원
1999-2001	◦ 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문당/금평), 농림부가 매년 4,500만원
2000	◦ 환경농업교육관 설립 3억(국비 1.5억, 도비 4,500만, 군비 1억500만. 주민기금 4,500만, 주민노동력 부담 3,000만, 총 3억7,500만원)
2001	◦ 문당리 백년계획을 수립
2002	◦ 농림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10억원
2004	◦ 농림부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으로 70억원을 지원받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자료: 주영로(2000); 홍성 환경농업마을(2002), 기타 주영로인터뷰(2004) 등

6) 지리적, 자연적 여건

홍성군은 광역적으로는 대전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인근에 대도시가 발달하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권은 홍성읍을 중심으로 홍성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족적 농촌이다.

문당리는 삽교천 상류에 위치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친환경농업으로의 특화가 바람직한 곳이다. 완만한 평야와 구릉지에 연평균 강수량이 1,200-1,800mm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나 홍수의 피해는 별로 많지 않아 벼농사에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문당리의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밭보다 논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27%와 17%).

7) 리더와 주민과의 관계

인터뷰를 통하여 주형로는 성공적인 농촌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도자가 취해야 할 자세, 정부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자기 욕심이 없어야 마을사람들이 따라오고 설득할 수 있다.”

“평균보다 조금 낮게 살아야 한다.”

“정부지원은 주민 스스로 하다가 꼭 필요할 때 좀 도와주는 형식이어야 한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뒤에서 밀어서 저만큼 올려놓았다가 홀로 서지도 못한 채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뒤로 떨어지게 하는 방식이면 안 된다.”

“농촌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환경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곳임을 인식하고 도시와 농민, 지역사회, 정부가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더 멋진 미래가 있다.”



<그림 2-3> 2004년 가을 문당리의 떡잔치와 추수
오른쪽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주영로 회장



<그림 2-4> 주민자체 친환경농업교육과 문당리에서 교육을 받는 충북농민들

4.2 광양 청매실농원 사례

- 스스로 매화나무를 심고 매실을 연구해 저장성을 높이고 효능도 높이면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개발
- 1995년에는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청매실농원을 탄생
- 매실의 가공, 상품화가 성공하면서 주변 마을에 매실재배가 확산하면서 매실농원 자체의 관광자원화
- 홍쌍리는 농원의 발전성과를 주민이 받아들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계기
- 고집스러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
- 홍쌍리여사는 지도력과 친화력을 고루 갖춘 여성지도인력

1) 개관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에 있는 청매실농원은 주로 매실을 재배하여 다양한 매실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는 곳이다. 이 농원은 대표인 홍쌍리(여)의 노력으로 2004년 현재 총 매출액 60억원 규모로 성장하였고, 그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매실이 상품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농원이 개발한 매실 가공품은 매실음료를 비롯한 매실농축액, 매실절임, 매실장아찌, 매실식초 등 10여 가지가 되며 매실가공업체 최초로 전통식품 제조업체로 지정을 받기도 하였다.

다압면은 인구 2,470명에 852호(2000년)가 거주하는데, 광양시에서 가장 인구가 작고 낙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도사리 이장의 말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사리 섬진마을은 섬진강 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농경지가 매우 적은 가난한 마을이었다. 휴경지는 전무할 정도로 농경지 이용률은 높으나 논은 가구당 200평도 안될 정도로 적고 밭도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현재에도 62호의 농가가 모두 합쳐서 벼 500가마 정도를 수매(가구당 10가마 정도도 안 됨)할 정도이다. 마을 내 대학 출

신자는 전무하고 고졸자도 이장을 포함하여 2-3명 정도에 불과하다. 마을 앞 도로 (편도 1차선)는 개설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에 의하면 매실을 통하여 지난 10여 년 만에 광양시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청매실농원에서 시작한 매실 재배와 상품화에 따라 광양시는 인근 하동군과 더불어 매실 주산지로 성장하였고, 다압면은 연간 824톤의 매실을 생산하면서 원액 가공공장을 3곳이나 가진 매실 가공산업의 메카가 되었다.

농원 주변 농가는 매실을 계약재배 형태로 농원에 공급하거나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혹은 직거래 형태로 출하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무농약에 퇴비만을 사용하여 재배하는 매실은 이 마을에서 kg당 평균 5,200원 정도로서, 일반 농법으로 생산하는 다른 지역의 생산물(kg 당 2,000~2,500원)보다 두 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청매실농원과 그 주위에 식재된 매화나무 동산은 광양시에서 가장 큰 관광명소로서 매화꽃이 피는 봄에는 섬진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든다. 2001년 3월 매실축제에는 20만 명 이상이 찾아와서 인근의 광양제철소에 방문 오는 사람 수보다 많았다고 한다.

청매실농원 대표인 홍쌍리는 1996년 새농민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1997년에는 정부에 의해 명인으로 지정 받았으며, 1998년에는 대통령상과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2001년에는 대산 농촌문화상을 수상하였다. 1999년에는 농림부로부터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대산농촌문화상, 전남도민상, 일가상 등을 수상해 일약 존경받는 농업인으로 성공하였다.

2) 마을 발전의 계기

홍쌍리의 시아버지인 김오천은 광양 지역의 대지주로서, 1930년대부터 일본에서 밤나무 묘목 1만주, 매화나무 묘목 5천주를 들여와 자신의 산에 심었다. 당시 매실 수확량은 줄잡아 150톤, 그 중 20톤은 식용 및 생활용품으로, 30톤은 부산에 소재한 대선주조의 매실주 원료로, 나머지 100톤은 짚에다 태운 다음 건조시켜 오매(烏梅)로 만들어 구례, 순천, 하동 등지의 한약방에 공급하였다.

45만평 대지주 집안의 평범한 며느리였던 홍쌍리는 1970년대 초 집안의 광산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고 빚을 지고 가계가 기울자 스스로 매화나무를 심고 매실을 연

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매실의 저장성을 높이고 효능도 높이면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1995년에는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청매실농원을 탄생시켰다. 매실의 가공, 상품화가 성공하면서 주변 마을에 매실재배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매실 가공품이 널리 알려지게 된 또 다른 계기는 매실농원 자체의 관광자원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섬진강 변(하동-구례간 국도 건너편)에 심긴 매화나무의 좋은 경치를 보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서 널리 알려지고 매스컴에 소개됨으로써 유명해지게 되었다.

3) 지도자의 특성

홍쌍리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만61세로 부산 출신으로 경남여고 졸업 후 1965년 아버지의 혼례주선으로 광양으로 시집을 왔다. 결혼 후 시가의 어려움으로 여러 차례 좌절을 겪었으나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청매실농원을 이끌어 왔다. 또 육체적으로도 허리디스크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임에도 스스로 건강법을 터득하고 노력해 다시 건강을 되찾는 등 기인에 가까운 여러 감동으로 주변을 숙연하게 하거나 갈채를 받아 오고 있다.

어려운 가세를 일으키고자 “읍내 시장에 나가서 군복바지 하나 사 입고, 머리도 짧게” 자른 뒤 매화나무의 재배와 가공품 개발을 위해 20여년이상 노력을 하였다. 1995년 매실음료를 개발한 뒤에는 당시로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품을 들고 군수와의 직접 면담으로 전통식품 제조허가를 얻어 낼 정도로 적극적이었다(여성특별위원회, 교육부 1999).

마을 주민의 앞에 서서 마을 발전을 도모한 다른 지도자와는 달리, 홍쌍리는 농원의 발전성과를 주민이 받아들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농원이 매실을 (주)보해에 과실주용으로 납품할 때 가격이 좋은 것에 자극 받아 주민이 1980년대 후반부터 매실 상업화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또한 1990년대의 매화축제,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 등 농원의 성공이 마을에 큰 자극이 되었다. 홍쌍리는 마을 내 특별한 공식적 지위는 본인의 고사로 가지고 있지 않다.

홍여사는 그의 고집스러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를 가졌다.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의 건강법과 매실에 대한 이

야기를 듣는다면 폭 빠트릴 수 있는 언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과의 일화를 소개하면 “추운 초겨울 아들이 학교에 다녀온 후 저녁 불빛도 없는 농장에 아들과 함께 매실농장을 가꾼 후 아들이 지치자 아들을 독려해 공부를 시킨다. 밤 12시가 넘자 아들을 밖으로 불러내 냉수마찰을 시키고 정신력으로 잠의 고통을 이겨낼 것을 당부한다.”(2004.9. 홍쌍리여사와 독일여행도중 인터뷰)

홍쌍리여사는 지도력과 친화력을 고루 갖춘 여성지도 인력으로 당대최고라는 평이 있을 만큼 완벽주의자이다. 사업면에서도 성공을 해 큰 아들이 미국에서 매실로 FDA허가를 얻어 미국전역에 케이블 방송으로 매실을 선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주 수출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주변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홍씨의 매실농장에 찾아오는 손님은 한해 50-60만명에 이른다. 이는 홍여사의 퍼주기식 마케팅 덕분이며 이는 매출로 이어지고 이 지역이미지홍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4) 농원의 사회적 관계

다압면은 섬진강 변을 따라 5개 이(里)로 구성되어 있고, 도사리는 섬진마을과 다사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섬진마을은 인구 230명 정도에 78호, 그 가운데 농가는 62호 정도이다. 인근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섬진마을은 매실을 통한 마을의 경제력 향상으로 그 동안 지난 10여 년간 인구변동이 크지 않았다고 한다. 45세 미만 가구주가 있는 가구는 약 20호로 어린이들도 많이 있는 활력 있는 마을로 변화였다. 마을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상여를 맬 때에도 45세 이상만 되면 면제받을 정도라고 한다.

특이한 것은 농원과 마을 주민의 사회적 관계이다. 이 마을은 각성마을로서 전통적 혈연에 입각한 공동체적 관계는 없지만, 홍쌍리의 시가는 과거에 일꾼만 30명 정도가 되는 대지주 집안이었고 이 집과 사회·경제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주민 가운데 많이 있다. 이들이 농원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실 종자보급과 개량, 재배기술 전수, 수확 후 안정적 수매·공급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농원에 매실을 공급하는 농가는 매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도 농원에서 가격을 낮추어 받지 않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홍쌍리’와 ‘청매실농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다압면과 도사리의 지역

적 인지도와 신뢰도도 높아졌고, 이에 따라 주민이 재배하여 출하하는 매실의 상품적 가치도 높다는 것이 주민의 평가이다.

마을에 매실의 상품화를 도입한 주체는 홍쌍리와 그녀가 세운 농원이며 현재까지도 농원은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여 실험한 뒤 동네에 나누어준다든지, 홍쌍리 본인이 개발한 매실 농사법을 적극 보급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홍쌍리의 시부는 과거에 매실과 더불어 밤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현재 이 지역이 밤 주산지의 하나로 꼽히게 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당시 마을 주민에게 접목 기술을 전수한 적이 있다. 주민은 이 접목기술을 매실에 응용함으로써 주민 자율적으로 품종갱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의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하겠다.

농원은 또한 수확기 하루 40-50명을 고용함으로써 지역 고용효과도 낳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이 지역에서 과거 대지주 집안과 주민 사이에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사회적, 경제적 관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현재에도 농원에서 일하는 주민은 '삼촌, 아지매' 등으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아직도 달집태우기나 집들이(정월보름 때 풍물을 들고 장독대, 곳간, 뒤꼍 등을 순회하는 행사) 등 공동체 행사가 남아 있을 정도로 주민 사이에 전통적 가치가 잘 보전되어 있다. 그리고 마을 위친계와 청년회('섬진청년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회는 공동방역, 경로잔치, 축제행사 지원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의 매실 출하를 위하여 매실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다. 작목반은 1990년대 초 발족 당시 60호 정도가 참여하였으나 친환경적으로 열심히 할 35농가 정도로 현재 재정비 중에 있다. 현재 다압농협, 청매실농원, 개별 직거래 등 판매처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작목반 자체의 포장상자를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5) 정책적 지원

청매실농원은 민간 농업관련기업으로서, 초기 공장 시설을 설치할 때, 그리고 농원이 유명해진 뒤 농원 진입로에 대한 시멘트 포장 및 스프링클러와 모노레일을 설치할 때 일부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체계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었다. 1995년 매화축제를 개최한 이래 최근에는 수십만 명씩 매화

꽃을 보러 관광객들이 몰려들지만 인근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주차장,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없어 현재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997년부터는 매화축제를 광양시에서 개최하면서 광양시는 이 지역을 매화특구로 지정하였지만, 도사리에 대한 지원은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숙박시설 등이 크게 부족하여 관광자원을 지역의 소득원으로 극대화하기에는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2001년이 마을에 실시된 지원사업은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 지원에 의하여 약 1km에 걸친 농로포장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재 홍쌍리여사는 전국의 유명인사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김성훈 전농림부장관이나 현 허상만 농림부 장관 등 폭넓은 교류와 지인층을 형성하고 있다.

6) 지리적, 자연적 여건

청매실의 경우 홍매와 달리 봄철 서리 피해는 약간 있지만,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과실이며 수량도 높다. 청매실농원이 있는 다압면 도사리는 섬진강 변에 북향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안개나 밤이슬이 많이 끼는데 이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매실에 자연적으로 적합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섬진강변 산 중턱에 매실농장이 위치하여 건너편 하동-구례 19번 국도에서의 경관이 아주 좋아 예술인, 언론인 등이 찾아오면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도사리는 행정구역상 광양시에 속하지만 섬진마을 생활권의 중심은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하동읍이다.

7) 언론에 소개된 지도자상

“매실의 연금술사” “매실아지매” 국내 최초로 매실을 건강식품으로 상품화한 전남 광양시 다압면 청매실농원 대표 홍쌍리 씨에게 붙여진 호칭들이다. 그는 연간 40억원의 매출과 5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농업인도 기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 출신인 홍씨가 매실과 인연을 맺은 것은 광양으로 시집온 지난 65년. 시댁의 농장에 소규모로 심어진 매실에서 신비한 정화작용을 확인했다. 매실즙을 바르면 손톱에 낀 때가 지워지고 양동이에 낀 기름때도 말끔히 제거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 그것이다.

“사람이 매실을 먹으면 몸안의 노폐물도 제거될 것이라는 생각 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홍씨는 매실을 수확, 저장한 뒤 식중독에 걸린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줘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70년대초 시댁의 투자 실패 로 많은 빚을 떠안은 데 이어 80년대초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2년 반 동안 목발을 짚고 생활하면서 농사에서 다소 멀어졌다. 그러다 매실 농축액을 먹고 자신의 병을 고친 뒤 94년 정식으로 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

97년 매실진액 부문 명인 지정, 98년 농림수산식품대축제 가공식품 부문 대상 수상, 99년 신지식농업인 지정, 2001년 대산농촌문화대상 수상 등으로 그의 명성은 높아졌다. 농축액 위주로 생산 하던 제품의 종류도 된장, 고추장, 정과, 장아찌, 잼, 술, 화장품 등 20여가지로 다양해졌다.

그는 성공사례가 언론 등에 많이 소개되면서 ‘스타농민’이 됐지만 자신을 ‘아름다운 농사꾼’으로 불러주길 원한다. 30년 넘게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실천해왔기 때문.



<그림 2-5> 홍쌍리여사의 매실설명(좌)과 매실향아리(우)

그는 지금도 수제품 생산을 고집, 2200여개의 대형 용기에 매실 을 담아 숙성시킨다. 소금도 5년이 경과해 간수가 완전히 빠진 천일염을 사용한다. ‘농사도 작품’이라는 그의 철학이 확인된다.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5만평의 청매실농원은 관광명소로도 손색이 없다. 매년 50만명이 찾아오고 ‘취화선’, ‘흑수선’등 영 화·드라마 10여 편이 촬영됐다.

홍씨는 “농사를 대충대충 지으면 소비자와 악연을 짓게 된다”며 “앞으로도 밥상을

약상(藥床)으로 만드는 농업인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4-07-29 13:13]

‘매실박사’로 불리는 홍쌍리(洪雙理·61·여) 여사는 디지털 노마드(유목민) 이자 농민이다. 전남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변 매화나무가 우거져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야산에 살며 청매실농원을 운영한다.

하지만 1년에 약 100일 이상 집에 없다. 일본, 미국, 인도, 유럽이나 국내에서 우리 매실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닌다. 홍여사는 고무신에 개량한복을 입고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데 최근 그의 트레이드에 두 가지가 추가됐다. 하나는 디지털 카메라이고 다른 하나는 MP3다.

홍여사는 “어디든 가서 새로운 것이나 고쳐야 할 것을 보면 기록하는데 늑어가면서 글쓰기가 쉽지 않다”면서 “디카는 문서나 풍경, 자료를 가장 쉽게 찍어 보관할 수 있으며 MP3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녹음하고 컴퓨터상에서 편리하게 재생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결국 홍여사는 세계 어디든 가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쉽게 공유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장비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제 홍여사에게 종이와 연필은 필요가 없다.

이런 적극적 자세 때문인지 홍여사는 40여년 동안 한방 약재로만 쓰이던 매실을 다양한 형태의 향토상품으로 개발해 새농민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석탑산업훈장 등을 받고 ‘식품명인 1호’와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다. 홍여사는 “세계 어디를 가든 이동이 쉬워야 하며 간편하고 빠른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먹을거리만큼은 우리 고추장과 된장, 장아찌와 같은 슬로푸드(slow food)가 좋다”고 강조한다.

디지털 노마드족들은 바쁘게 활동하면서도 자유와 개방, 흥가분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행태가 특징적이다. 홍여사는 60대이지만 이 부류에 속한다. [경향신문 2004-10-05 19:24]

4.3 마을 발전 요인별 분석

- 리더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실력(농업, 마케팅, 판매, 소득 등)과 주변 주민들과 차별화해야 함
- 혁신적 사고를 통해 초기에 일정한 정도로 경제적, 가시적 성과와 효과를 나타내어야 주민에게 수용
- 주민 참여를 유발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가능성 모색
- 정책적 지원은 초기 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유인책

1) 지도자의 역할

농촌주민들은 마을의 소득-발전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도자의 능력 유무보다는 주민의식이나 마을의 입지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장, 2002)

하지만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을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 두 지역에서는 지도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마을 발전을 이룩한 마을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농법과 기술 등에 대한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 이를 수용하면서도, 자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혹은 공동체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마을이 뚜렷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계기 혹은 돌파구로서 뛰어난 지도자가 존재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전통적 의미의 권위(authority)와 사회경제적 신분(status)에 입각한 이른바 '구형 리더,' 그리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와 같은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리더십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새로운 농법이나 기술을 도입, 개발하여 신념과 열의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활동하는 '신형 리더'가 마을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실력(농업, 마케팅, 판매, 소득 등) 주변 주민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어야 지도자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

마을의 현재 상태(발전-소득수준, 주민 협동심과 단체의 활성화 정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 마을 안에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고 믿는 응답자가 평균 이상으로 높아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의 현 상태에 대한 불만이 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우려와 연결되어 있다.

2) 마을 발전의 계기

사례연구를 통하여 보면 지도자의 혁신적 사고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또 혁신적인 사고가 초기 마을사람들의 비난과 행정의 무관심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겪을 때까지는 무척 고독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이 과정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주변의 관심과 배려를 얻을 수 있고 행정의 지원이 있어야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정부의 표창을 받기 시작하면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감사와 애정을 표한다. 이러한 패턴은 과거권위주의시대의 통치권자의 관심이 대부분의 결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행정과 언론의 관심이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술한 두 가지 사례로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홍성 사례에서는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한 새로운 농법(오리농법)을 유기농 벼 재배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광양의 청매실농원 대표 홍쌍리는 당시 매실주나 약재 이외로는 별다른 용도가 없었던 매실을 이용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실로 다양한 매실가공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원과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이 매실의 주산지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뿐만 아니라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귀중한 소득원으로 새로이 활용하는 것도 마을 발전의 중요한 계기였다. 광양의 매화나무, 서천의 동백동산은 물리적 여건을 도농교류를 통해 관광자원화하면서 지역의 생산물 홍보에도 성공한 사례이다.

또한 홍성사례의 경우에는 모두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불안한 미래라고 하는 어두운 모습을 마을 발전의 외부적 계기로 삼았다. “앞으로 우리 농촌의 살길은 이것뿐이다”라는 식으로 주민을 설득, 끌어들이므로써 오히려 밝은 미래를 보여 준 것이다.

3) 마을의 사회적 관계와 마을발전

한 사회의 사회적 관계는 지역사회의 안팎을 대상으로 형성된다. 그러한 관계의 망은 대내적으로는 가족 지향적이고 규모는 좁으나 밀도가 높은 ‘강한 연대’이며, 대외적으로는 공공 지향적이면서 넓고 열게 형성되는 ‘약한 연대’이다(한도현 2000). 강한 연대는 내부적 단결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외부와의 약한 연대는 지역사회의 광역화, 개방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이른바 ‘약한 연대의 강점(strength of

weak ties)’을 가진다.

해당지역주민들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도 바로 이 두 가지, 즉 ‘마을주민과의 인간관계’와 ‘적극적인 대외활동력’이다. 전자는 마을사회 안에서의 강한 연대를 말하며, 후자는 외부와의 광범한 연대를 말한다. 지도자는 이러한 마을 안팎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력, 경제력과 같은 요인보다는 새로운 기술, 농법 등의 적극적인 수용과 같은 혁신성이나 열의, 마을 안팎에서의 활동성이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마을의 여론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공식적 지도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의 대외적 관계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가입한 외부단체 수가 적고 농민단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적극 참여하는 단체의 수도 적다. 외부단체는 개인의 정보 취득원이며 필요시 마을 발전을 위하여 동원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연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폐쇄적 울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마을의 발전과 관련하여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다.

마을 주민 사이의 공동체적 유대감 혹은 신뢰는 대체로 마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며, 초기 성과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체 의식은 주민 사이의 전통적 유대감이든(광양) 지도자의 농법에 대한 믿음(홍성)이든지 지도자의 혁신적 사고를 마을 발전과 연계하는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사례지역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주민의 협동심과 단체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공식적 지도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아직은 농촌주민 사이에 신뢰관계가 남아 있으며, 이러한 높은 신뢰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마을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마을의 발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우편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이와 같은 마을 내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들은 마을 발전의 요인으로 주민의 의식이 높다는 점을 선택하고 있다. 즉 지도자의 개인적 능력이나 마을 외부적 요인보다는 응답자들이 주민 사이에 유대감이 있다고 믿고 있고, 아울러 마을 발전을 향한 주민의 의지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을이 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을의 입지여건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탓으로 돌리는데,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발전이 미흡한 것의 원인을 가능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식의 발로라고 하겠다.

그런데 마을 발전의 계기, 혁신적 사고는 초기에 일정한 정도로 경제적, 가시적, 그리고 즉각적인 성과와 효과를 나타내어야 주민에게 수용되고 주민 참여를 유발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홍성, 광양).

광양사례는 홍성과 달리 마을 주민과의 연계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두 지역 모두 선대에서의 뿌려놓은 씨앗(매화나무, 동백나무)을 활용하여 기업가적 정신으로 소득원으로 개발한 경우이다. 광양의 청매실농원은 성장 과정에서 주변마을의 주민과 가지고 있던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자본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성과를 마을과 함께 나눔으로써 파급효과를 볼 수 있었다.

4) 정책 지원의 효과

이 사례를 통해 볼 때, 마을 내부에서 발전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이 없거나 사회적 자본이 높지 않는 한, 정책적 지원이 마을 발전의 계기와 단초를 제공하는 어렵다.

홍성에서는 오리농법을 도입하는 초기에 지원이 있었으나 체계적인 정책사업으로서가 아니라 군 단위 농업기술센터(당시 농촌지도소)에서 소규모, 실험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광양의 청매실농원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농원 대표의 노력과 능력에 크게 의존하였다. 사례지역 모두 본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뒤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은 마을의 전체적인 발전, 소득수준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은 마을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초기 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유인책이기도 하다. 지원을 통하여 마을 주민을 동원하고 초기 성과를 확대하여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홍성에서는 설비자금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큰 기여를 하였다. 다른 사례이지만 이천의 부래미 마을의 경우는 고급공무원의 연고에서 출발한 지원사례이고, 화천의 토고미 마을은 지역공무원과 지도자의 역할이 결합한

경우이며 장성의 한마음공동체는 생산과 유통시설을 확대하고 매장을 확보할 수 있던 것도 정책적 지원의 도움이 컸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는 단지 대상지역에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발전을 위하여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주민을 동원하는 지도자에 대한 홍보, 시상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하여 마을의 초기 가시적 성과가 널리 알려지게 되고 주민의 자부심이 고취되면서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광양의 매화축제와 같이 마을에서의 성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자체를 홍보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5) 지리, 자연적 여건

조사 결과에서는 자기 마을의 발전-소득수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지역이 처한 지리적, 자연적 여건, 즉 입지 여건을 많이 들고 있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나름대로 외부적 요인에서 낙후의 원인을 찾는 운명론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례연구를 통하여 관찰해 보면, 지역의 물리적 여건은 발전을 위한 촉진 혹은 제약요인 모두가 될 수 있는 중립적 요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사례연구 지역에서는 이를 적용, 활용하여 발전을 이루었다.

홍성 문당리는 홍성군이 한우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을 살려 친환경 벼 재배에 초점을 맞추었다. 광양은 어려운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체 혹은 주위의 경관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물 판매 확대와 소비자가 찾아오는 농업, 도농 교류를 확대할 수 있었다.

4.4 농촌관광과 지도지역할

- 기술과 경영능력을 두루 갖추며 혁신적 사고를 가진 새로운 형태의 리더필요
- 신행리더는 이념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
- 신행리더는 기획, 관리, 정보, 조직, 기술력 등을 갖추고 있음

1) 신행리더의 탄생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 단위 개발사업을 통해 비교적 성공하였다고 판단된 마을

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전통적 리더가 아닌 신형 리더의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정부 지원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을을 이끌어온 신형 리더로서 신형리더는 전통적 의미의 권위와 사회경제적 신분에 입각한 구형 리더와는 차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말도 옳은 것만 듣는다. 또 기술과 경영능력을 두루 갖추며 혁신적 사고를 가진 새로운 형태의 리더이다.

- 환경 농업에 대한 기술력을 갖춘 경우가 많음
- 외부와의 교류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판매(marketing)에 능함
- 신형 리더는 전통적이며 가부장적인 마을 질서와의 마찰을 극복한 경우가 많음
-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
- 대부분의 경우 마찰은 경제적인 성공을 통해서 해결. 경제적인 성공이 뒷받침될 때 주민의 조직화와 리더의 위치가 강화

이러한 리더의 대표적인 사례가 홍성의 주영노, 광양의 홍쌍리, 화천의 한상열 등이다.

2) 신형리더의 전략

신형리더는 이념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즉, 마을이 유명해짐으로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며 그 이익을 마을주민에게 배분하는 체계를 민주적으로 잘 구축했다.

- 환경농업생산물의 공동 판매
- 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판매
- 마을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민박 사업
- 공동시설을 활용한 공동 생산 및 분배

배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것도 큰 잡음 없이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실현되고 있다.

- 작목반중심의 배분 : 마을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작목반원에게 이익을 배분
- 기존 마을 조직을 통한 배분 : 이벤트행사 등에서 마을 부녀회의 활동
- 성격이 다른 사업의 결합을 통한 배분 : 민박과 농사체험장과의 결합, 민박과 농산물 판매의 결합, 이벤트 행사와 농산물 판매의 결합

또 신형리더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이것을 지역기반의 강화수

단으로 자신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큰일을 성사시키고 난후 권위나 발언권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 소비자 단체의 협조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각종 공모 사업이나 시상응모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일단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선순환(善循環) 시스템이 작동하고 이것은 다음수순을 받는다.

* 시범마을선정 → 외부에 알려짐 → 외부전문가 조언 및 홍보 → 매스컴 홍보 → 방문객 증가 → 경제적 이익 증가 → 성공마을로 평가 → 또 다른 시범마을 선정

* 강원도의 경우 : 강원도 새농촌건설운동시범마을 선정 → 전문가들의 홍보 → 중앙 무대에 알려짐 → 중앙부처 시범마을 선정 → 유명도 증가 → 성공기회 확대 → 우수마을경진대회 수상 → 또 다른 시범마을 선정

또 신형리더들은 외부와의 교류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하는 데 노력한다.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마을이 유명해짐에 따라 그것이 더욱더 기반을 강화시킨다. 전문가, 행정관리, 언론 등에서의 우호 그룹이 형성되며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도 점점 개발된다. 또한 일반도시민들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고정회원 만들기에도 전념하고 있다.

3) 농촌관광 리더가 갖추어야 할 조건

□ 기획력

자기가 처한 현실적인 입장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능력.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되 미래의 비전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획을 위해서 다음을 체크해야 한다.

① 수익성이 있는가. :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가?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가? 산업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고용 문제는 없는가? 등을 검토해야 함.

- 이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정부지원이 없는 상태에 수지타산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임

② 최종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목표로 하는가. : 일회성으로 그치는 도시, 농촌교류 사업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 않는지? 지역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지역의 관련 산업과 연관관계가 높은가?

③ 실현을 위해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가. : 몇 개의 대안적인 시나리오

를 작성하여 시나리오별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시나리오는 예들 들어 최선-보통- 최악 등으로 구분하되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함.

④ 최종 목표는 가급적 수치화 하여야 함 : 수치화 되지 않는 목표는 설정 의미가 없음. 수치목표는 가급적 수와 양 등으로 설정. 예를 들어 방문객수, 이용자수, 교류단체수, 판매량, 출하량 등임. 다음으로 금액을 결정. 금액은 수량과 가격에 의해서 결정.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수량은 경영자의 노력, 지혜 등으로 달성할 수 있지만 가격은 시장(도시민)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격을 설정해야 함.

⑤ 목표 년도를 길게 잡지 않도록 한다. : 목표 년도는 5년 정도 잡는 것이 좋음. 다만 당해 연도 목표(사업 1년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⑥ 목표 달성치를 점검한다. : 수치로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그 대책을 강구. 목표의 달성도는 고객의 만족도에 비례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수시로 고객의 반응을 점검.

⑦ 외부 여건을 예의 주시한다 : 농촌관광은 정적이고 심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음. 도시민이 어떠한 것에 반응하고 즐거워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 수집활동이 요구. 특히 우리 사회가 유행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흐름에 주의

□ 정보력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요자의 동향, 그들의 요구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를 자신의 행하는 사업에 접목시켜 다시 수요자에게 발신하는 능력.

- 정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와의 연계관계가 중요. 여러 지도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정도가 지역사회 개발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국내외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음

- 또한 정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발신 수단을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최근 성공하고 있는 환경농업자 혹은 그린투어리즘 경영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정보의 수신 전달에 매우 능하다는 것임

-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듯이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지역사

회를 이끌어 가며 성공하고 있는 마을의 경우 마을 리더가 홈페이지 관리자 역할을 수행

□ 관리능력

종합적인 경영관리능력을 요구하며 재무관리, 회계관리, 상품관리, 판매관리, 재고관리, 그리고 노무관리, 세무관리 등에 관한 능력이 요구

□ 조직력

마을 공동사업은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리더는 조직력이 요구하며 조직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어떻게 잘 결집시킬 것인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등의 능력이 요구.

□ 기술력

마을 리더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이익을 창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을 지도할 수 있음

- 최근 성과를 올리고 있는 친환경농업, 팜스테이, 관광농원 등의 경영주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환경농법, 퇴비 만드는 기술, 마케팅 노하우, 향토요리 기술, 무공해 농사기술 등의 전통적인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첨단 농법 등에 관한 기술력도 요구

4.5 정책적 함의

-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경제조직의 활성화
- 마을의 '약한 연대'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마을 외부네트워크와의 사회적 자본을 취득
- 마을 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 전문가 파견 제도를 도입
-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

현재 농촌에는 여러 가지 공식적 직책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마을일을 맡아보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마을의 외부단체와의 연계가 적고 적극성이 덜하다는 것은 정보의 결핍, 마을 발전의 외부적 계기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은 마을 발전을 위한 잠재적 지도자 자원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마을 발전에 대한 남다른 열의, 사명 의식을 가진 실천적

지도자이다. 즉, 행정 위주로 규정하는 리더십, 지도자의 개념은 오늘날 적합하지 않고, 이른바 ‘신형 리더’의 출현이 필요하다(七戶長기: 1987).

따라서 마을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동기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교육수준이나 경제력과 같은 개인적 자원은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 공동체 내부에서의 연대를 마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노력과 더불어, 외부와의 연대를 통한 마을 발전의 계기를 찾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이란 한마디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 체감되고 느껴지는 자본”(한도현 2000: 153)이다. 마을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조직, 결사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그러한 사회적 관계의 망(network)이 많아지고 그만큼 사회적 자본의 양도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에 남아 있는 공동체의식, 유대관계, 신뢰는 마을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귀중한 사회적 자본이다. 홍성 문당리의 사례에서 보이듯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마을 발전과 더불어 강화되는 등 상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측면을 계속 확대하고, 마을의 발전적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표 2-23> 홍성과 광양의 지도자 유형비교

구분	주테마	계기	지도자	지역유대감	혁신적 변화수용	정책지원
홍성	수도작 오리농법	오리농법 관련 정보 입수 + UR 의 영향	홍성 고졸 44세	청장년인구 많고 벼 농사 위주로 주민간 소득격차 적고 공동 체 유대감 높음	수용성 높지 않 음. 경제적 성과 로 기술확산	초기 지도소의 지원이 큰 힘. 성 공후 중앙정부 지 원 많음.
광양	매실의 상품화 와 가공품 개 발로 주변지역 소득창출	시부가 매 화나무 다 량식재 + 좋은 경관	부산 고졸 61세	농원-주민간 오랜 경제적 관계. 전통 행사를 통한 공동체 의식 유지	매실 신제품, 기 술 수용성 매우 높음.	초기 지원 별무. 성공후 일부 지 원 있으나 부족

여기서는 특히 초기에 가시적 효과를 넘으로써 주민을 동기화와 동원(motivation and mobilization)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속적, 계획적인 마을 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다. 적절한 정책지원은 이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책적 지원은 마을 발전을 향한 주민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밑으로부터의 개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발전을 위한 초기 단계에 있는 마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자체적으로 지도자와 함께 마을 주민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경제조직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한다. 정책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조직체가 자발적으로 마을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원도에서 시행중인 새농어촌가꾸기 사업이 좋은 예가 된다. 그러나 주민이 사업을 신청하여 심사, 선정되는 과정을 갖는 정책사업들 가운데에는 결과적으로 일부 주민만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다수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메뉴가 선정되도록 질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마을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약한 연대'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마을 외부네트워크와의 사회적 자본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영농교육과 같은 일상적인 농민교육 프로그램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이를 스스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며 인근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적절한 지역단위는 읍면이 될 것이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읍면별로 조직화하여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내에서 열리는 민간단체 사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마을 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 전문가 파견제도를 도입한다. 이들은 마을의 특성과 자본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그 과정에서 마을 내부의 사회적 자본의 동원과 주민의 동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마을발전을 위한 지원은 최소한 3년 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 평가를 통하여 자생력을 갖도록 적절히 지원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성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을 내외에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받도록 한다.

5. 기업체 등 타 분야의 인력육성현황

- 기업체 등 타 분야의 인적자원육성방안은 농촌의 인력육성과 차이
- 본질적인 경쟁사회의 인력육성방안이라는 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최전선이라는 점에서 시사점

5.1 한국 기업에 있어서 인재 육성

- 신입 사원 교육은 조직 구성원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과 조직 적응 능력을 속성으로 배양하는데 중점
- 인력 풀이라고 부르는데 대개 대졸 공채생들이 대리, 과장, 부장, 이사 등으로 승진하면서 중심 세력
- 외부영입 인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리더로 성장하기는커녕, 생존도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인재육성의 중요성은 늘 강조돼 왔다. 삼성그룹을 창립한 이병철 회장의 경영이념 제 1조는 '인재제일' 이었고 SK그룹의 최종현 회장도 후계자육성을 늘 강조했다. 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역시 '기업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사회는 인재의 육성, 리더의 발굴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환위기가 닥칠 무렵, 월 스트리트 저널(1997. 12. 12일자)은 "한국 경제의 위기는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할 만큼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 헤드헌터라는 용어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잇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은 리더십의 발휘이자 안전한 기업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일에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을 뜻한다.

기업에 있어서 리더는 다시 업무형 리더, 전략형 리더, 최고경영자(CEO)로 구분하였다. 조직의 구성원을 작업층, 관리층, 경영층으로 구분한다면, 업무형 리더는 관리층 내부의 부, 과장 또는 팀장들을 지칭하고, 전략형 리더는 경영층내의 사업본부장, 지역본부장, 관리부문장 등 임원급 경영자와 이사회외의 구성원들을 뜻한다. 최고경영자는 그 조직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다.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로 육성할 우수한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기업은 내부 인력 시장과 외부 인력 시장 등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러한 자원을 확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을 볼 때 리더는 농촌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하기 보다는 마을을 관리하고 조인하는 행정 등 관련 공조직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규제와 제약을 주고 이것이 농촌발전에 심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완화를 선불리 시도했다간 그나마 지켜온 내재적 지위와 가치마저도 빼앗길 위험에 직면한다.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나 지도자들의 육성과 이들이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창의적이면서도 상상력을 가진 지역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행정의 간섭이 아닌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선 주민운동 후 행정지원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내부 시장

(가) 신입사원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신입 사원은 리더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나라는 인력을 공개 채용으로 선발하는데 대부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채용 규모는 기업체나 기업집단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보통 1회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른다. 기업이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조직의 이념과 문화를 계승하고, 간부로 육성하여 장차 유능한 경영자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들 '대졸 공채생'은 연도별 공채생들이 담합하여 회사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공식 조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대졸 공채생과 관련된 이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대졸 공채생들의 정착률이 대단히 낮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일부 대기업 집단의 경우 입사 6개월 후 약 80%, 1년 후 약 60% 수준이다. 다른 기업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그룹에서 떠나는 학생들을 면접해 보면,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란 대답이 가장 많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다른 직장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롯데에서 신입 사원 면접을 할 때 보면 20%이상이 1년 안팎의 타 회사 근무 경력이 있다. "왜 직장을 다시 옮기려 하느냐"는 질문에 근무 조건이나 보수보다는 업종과 회사의 비전, 근무분위기, 상사와의 관계, 자기 개발 가능성 등을 꼽고 있다.

둘째, 기업이 원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을 구하기 어렵다. 응모자는 많은데 막상 원하는 인재를 드물다. 예를 들면, 전자공학을 전공한 학생을 구하려고 하면 막상

이를 전공한 학생들은 극히 드물고 타 학과 출신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셋째, 대학생들의 학력이 지식기반사회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졸 신입 사원의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토론에 능하고, 자기표현에 익숙하나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데는 미숙하다. 태도에 있어서도 권위에 저항적이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미흡하다. 그리고 기업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전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신입 사원 교육은 조직 구성원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과 조직 적응 능력을 속성으로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적지 않은 문화 충격을 경험하면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다. 조직 적응 능력이란 회사의 경영 이념과 문화와 전통, 인간관계, 예절교육 등이 주된 내용이다. 기업은 홀로 뛰어난 스타보다는 '남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곳이다.

기업이 원하는 신입사원의 자질은 전공 불문하고 원가 또는 효율 의식(cost mind), 권리와 의무 등 사회 현상을 법률적으로 생각하는 능력(legal mind),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이문화 관리 능력(cross cultural management),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마인드(digital mind) 등이다. 이러한 자질은 유능한 리더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신입사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모두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능력을 장차 개발할 수 있는 싹은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이다. 기초학문(basic science), 도구 과목(basic tool)에 충실해야 이러한 싹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도 귀농후 이직율과 같이 정착율을 조사한다면 아마 기업의 신입사원과 같이 변화가 클 것이다. 아마 이와 같은 과정은 마을의 속성과 폐쇄적인 문화구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마을에 대한 준비부족일 수 있다. 향후 귀농 정착율을 높이는 부분의 교육도 대단히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인큐베이터 기능에 대해 전국귀농운동본부나,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인력 풀(pool)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대규모 기업 집단일수록 계층별, 직종별, 직군별로 일정 수준의 인재를 확보, 운용하고 있다. 이를 인력 풀이라고 부르는데 대개 대졸 공채생들이 대리, 과장, 부장, 이사 등으로 승진하면서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다.

이 인력 풀은 기업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고유 기술과 노하우, 핵심역량을 배양해 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형 리더와 전략형 리더를 배출해 내는 온상이 된다. 이 인력 풀은 너무 커도 문제이고, 적어도 탈이다. 너무 크면 인건비가 과다 지출 되고, 경쟁의 격화로 조직에 갈등이 생긴다. 너무 작으면 경쟁의 완화로 긴장감이 떨어지고 조직 분위기가 해이해지며 사업 다각화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될 경우 필요 인력을 제때에 조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적정수준의 인력 풀을 유지, 개발 하는 일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사활적 중요성을 갖는다.

인력 풀과 관련된 이슈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최근 한국 대기업의 인력 풀은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 연봉 계약제, 팀제, 소사장제 등 이른바 신인사 제도의 도입, 명예 퇴직제, 아웃 소싱(Out-sourcing)등 인력합리화 정책의 시행, 외환 위기와 더불어 몰려온 외국 기업, 벤처 기업의 러시로 대기업의 인력이 대거 이동하였다. 핵심 인력의 유출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온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의 붕괴를 가져온다. 이는 바로 경쟁력과 연결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둘째, 중간 관리 층의 회사에 대한 몰입(commitment)과 충성(loyalty)이 낮아지고 있다. 중간 관리층은 조직의 허리에 해당한다. 경영층의 목표와 전략을 행동계획으로 바꾸어 작업층을 지휘하며 일상 업무의 거의 전부를 처리한다. 따라서 관리층이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생각이 없으면 그 조직의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기강이 무너져 구성원들의 불만이 높아진다.

2) 외부 시장

필요한 리더를 내부에서 구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영입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외부에서 영입한 리더가 옮겨간 회사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것이다. 인력의 외부 시장을 편의상 국내와 해외로 나누기로 한다.

(가) 국내 인력시장

국내 인력시장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경우는 자기 회사에 없는 기술이나 영업력을 확보하기 위한 스카우트(scout)가 대부분이다. 경쟁이 심할수록 스카우트가 과열되어 상대방의 기술과 영업 조직이 괴멸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기업 윤리

차원을 넘어 범죄에 해당한다.

외부에서 영입한 인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리더로 성장하기는커녕, 생존도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유능한 인재는 외국 기업이나 벤처 기업으로 옮겨 가고 더러는 아예 해외로 빠져 나가게 된다. 드물기는 하지만 최고 경영자의 영입을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사례가 있어 이 점도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경영층의 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논의해서 소모적인 분쟁의 화근을 없애야 할 것이다.

(나) 해외인력 시장

삼성그룹은 최근 국적 불문하고 세계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입한 인재가 조기 퇴직할 경우 해당 경영자(CEO)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계열 회사에 지시했다.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의 톱(top)을 유지하려면 이를 떠받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선언이다. 이 선언은 우리나라 산업계의 인사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고, 대학 특히 이공계 대학에도 큰 충격을 줄 것 같다.

우선 인재에 대한 보상 수준이 세계 수준으로 급상승하면서 회사간, 직종간, 개인간 격차가 매우 커질 것이다. 서로 다른 인종이 서로 다른 말을 쓰면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개인과 회사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이 투명하고 엄격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뛰어난 인재'가 아닌 '보통 인재'의 좌절과 불만을 어떻게 가라앉히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 그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 가는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우리 산업사회의 체질로 보아 삼성의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후발 기업들이 자기의 처지도 모르고 무비판적으로 모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함양 미달의 사이비 인재들이 임금상승을 부추기면서 임금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5.2 리더의 육성에 관련된 이슈

- 기업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 회사 단위의 경력개발 제도의 시행이 어렵게 되자 개인 본위의 경력 개발이 활발
- '일을 통한 육성'이란 CDP를 일부 선발된 인재나 개인에게 중점 실시하여 리더를 육성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후계자 후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사내·외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고 향후 그의 리더십에 균열위험
- 승진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진술이 애매모호하여 평가자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
- 발탁 제도를 남발하면 조직 내부에 심한 갈등과 혼란

1) 경력개발제도(Career Development Program)

아직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경력개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사실 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경력 개발제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개인의 희망과 회사의 필요가 다르고, 직무의 내용과 수준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회사도 의도적이건 아니건 느슨한 상태의 경력 개발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제도는 관청 등 공공 조직에서 더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다.

경력 개발 제도가 성공하려면 먼저, 5년 후, 10년 후의 회사 비전과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인적 자원개발계획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직종별, 직급별 소요 인력을 예측해서 현재 보유 인력과 과부족을 파악해내야 한다. 그 결과 부족한 인력을 양성할 것인가, 스카우트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어서 현재 보유인력을 분석해서 각 개인의 희망과 상사의 의견도 반영하여 이를 자기 회사의 목적에 맞게 잘 짜인 전산 프로그램에 보관한다.

그 다음 순환 보임(job rotation)과 교육이 이를 뒷받침해야 될 차례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본인은 자기의 경력 관리상 회계 부서나 자금 부서의 근무를 원하는데 상사나 회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승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을 제 때에 이수해야 되는 데도 '바쁘다'는 한마디로 교육 참가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좌절이 자주 발생하면 직원들은 자기 의사대로 자신의 경력 관리를 해 나갈 수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연수원도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무별, 계층별로 수많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보유하여 직원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프로그램 개발 투자와 교수 전담요원(teaching faculty)의 확보가 필요하

지만 투자 효율과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실현되기 어렵다.

이처럼 회사 단위의 경력개발 제도의 시행이 어렵게 되자 개인 본위의 경력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원 스스로가 자기의 전공(major)과 진로(career)를 정하고 자기 비용으로 공부를 한다. 즉 자기 비용으로 경영대학원에 등록을 한다든가 학원을 찾아 어학 공부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서로 전출되면 회사를 떠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신인사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사적 경력개발계획(CDP) 실시의 과정은 유능한 리더의 발굴과 육성 기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2) '일을 통한 육성'

'일을 통한 육성'이란 CDP를 일부 선발된 인재나 개인에게 중점 실시하여 리더를 육성하는 방법이다. 회사의 중요 부서를 골고루 근무시켜 현장 감각과 경쟁관계, 협력회사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게 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양성하거나 전략형 리더 또는 최고 경영자로 육성하는 길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도전(challenge)이다. 주로 잠재성 있는 업무형 리더나 전략형 리더에게 주어지는 실력 발휘의 기회이다. 시장에서 고전하는 어려운 사업부서의 책임자, 신규 사업의 책임자, 조직 분규가 심한 부서의 장으로 보임하여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 도전에 성공하면 그는 최고 경영자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을 통한 육성' 방법은 대개 상사의 의도된 지도와 통제를 받게 마련이지만 이 방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멘토(mentor)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의 멘토는 사내 인사 보다 같은 회사를 퇴직한 원로 경영인이 맡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서로 부담 없이 애로를 털어 놓고 아이디어를 주고받기 편하다.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 '일을 통한 육성'이 가장 쉽고, 확실한 리더 육성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력대로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되는 것 같지도 않다. 일부 선발된 인재들만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선발된 인재'라 함은 권력의 핵심이 '자기들 사람'으로 편입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권력의 백업(back up)이 없으면 도전에 성공하더라도 그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수가 많다.

우리나라 기업 집단에서는 2세들에게 이 방법을 즐겨 쓰고 있다. 마치 벌들이 로

알 젤리를 먹여 여왕벌을 만드는 과정과 같다. 그러나 아무리 로알 젤리를 먹여도 여왕벌로 성장하지 못 할 경우가 문제될 것이다.

3) 후계자 육성 계획(succession plan)

최고 경영자 육성 과정을 제도화해서 이를 공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이다. 삼성, LG, SK는 90년대 초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은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으며 대내적으로도 선발 절차나 평가 기준 등이 상세히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회사들도 제도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이 방법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GE의 세션 시(session C)나 Johnson & Johnson의 크레도 리더십(Credo Leadership)처럼 제도의 핵심 내용이 회사 내외에 공개되고 특히 진행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 내용이 공개되어야 회사 구성원들이 그에 맞추어 행동 계획을 세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행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후계자 후보로 선정된 인물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사내·외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고 향후 그의 리더십에 균열이 생기기 쉽다.

4) 승진

(가) 평가 단계의 이슈

평가는 개인 평가와 회사 평가로 나누어지고, 개인 평가는 다시 능력, 자질 평가와 성과 평가로 나뉜다. 그룹 집단일 경우 회사 성과를 반영하여 종합 점수에 합산한다. 평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평가 기준의 타당도와 신뢰도 그리고 평가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대부분의 회사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진술이 애매모호하여 평가자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난다.

(나) 심사 단계의 이슈

소유 경영자들인 그룹 회장들은 임원 승진 심사를 자기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 심사에 몰두한다. 대개 회장이 신입하는 CEO나 스태프(staff)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밀한 검증을 실시한다.

이 검증 과정에는 실무 부서에서 만든 평가 자료 뿐 아니라 내부 감사 결과, 협력 업체 등 외부의 평판, 사생활의 건전성까지 참고한다.

5) 발탁

유능한 리더 후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집중 교육과 직무 경험을 시킨 뒤 전략형 리더나 최고경영자로 등용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일부 기업은 발탁 승진제(fast track), 집중연수제도라는 것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발탁 승진 제란 기업의 중요 핵심부서만 6개월 내지 1년씩 근무시키고 인사 규정에 관계없이 1계급 내지 2계급씩 특진 시켜 빠른 시일 내에 임원 또는 최고 경영자로 보임하는 제도이다. 텔레비전 연속극에서는 자주 보이는 장면이지만 실지로 기업 현장에서는 극히 드문 예에 속한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특수 기술 전문가, 또는 특정 지역 전문가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 이 제도를 남발하면 조직 내부에 심한 갈등과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6) 교육

교육은 리더 육성의 가장 흔한 방법이다. 산업 사회의 교육은 교육과정별로 직무별 교육, 계층별 교육, 조직개발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교육 형태별로는 직무 교육(On the Job Training), 직무 외 교육(Off the Job Training), 자기개발(Self Development)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리더 양성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계층별 교육이다. 계층별 교육이 우선 고쳐야 될 점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첫째, 분명한 목표 아래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이 필요하다. 계층별 교육은 리더 양성의 핵심 과정이다. 기업의 이념과 바라는 인재상을 정립해서 이를 계층별로 수준에 맞게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계층별 교육의 목표는 사고와 태도와 행동변화에 맞춰야 한다.

둘째, 교수-학습 체제도 성인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면서 작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기 회사의 실지 사례를 정형화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개발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주력해야 된다.

셋째,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나라 산

업 사회의 병폐 중의 하나가 남이 하면 나도 무작정 따라 하는 짓대 없는 풍조이다. 한때 상황대응 리더십(Paul Hersey & Kenneth Blanchard, 'Situational Leadership')이 유행하다가 일곱 가지 습관(7 Habits)이 휩쓸더니 지금은 시들해졌다. 남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으면 그것을 정밀 분석해서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자기 회사의 문화와 수준에 맞게 재구성(customize)하는 것이 필요하다.

5.3 리더의 유지 및 이탈 방지와 관련된 이슈

- 유능한 인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음
- 이탈의 원인은 주로 평가와 보상에 대한 불만
- 관리층이 이탈하는 이유와 경영층이 이탈원인은 신분 불안

1) 관리층의 이탈

관리층의 이동이 심해지면 산업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관리층의 이동이 심하다는 것은 그들의 기업에 대한 몰입(commitment)과 충성(loyalty)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회사 구성원들이 회사를 위해 능동적, 창조적으로 공헌할 의사가 없으면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도 어렵게 된다. 관리층은 작업 현장의 인력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회사에 대한 태도는 바로 조직의 유효성과 직결된다.

2) 경영층의 이탈

경영층의 이탈은 관리층과는 달리 본인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무능, 의견 불일치, 권력 투쟁 등으로 타의에 의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능한 리더를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산업 사회의 실정에 맞는 보상 방법 및 수준의 개발과 신분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5.4 한국의 인재육성의 특징

- 소유 경영자들의 교육, 자기 계발에 대한 대책이 마련
- 리더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한국형 리더십의 개발도 중요

첫째, 소유 경영자들의 교육, 자기 계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판 '제왕학(帝王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소유 경영자들은 자기가 지배하는 기업 집단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들은 전략, 투자, 자금, 인사, 연구 개발, 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최종 의사 결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소유 경영자의 수준이 그 기업 집단의 수준을 결정한다. 소유 경영자가 정보 산업이나 신소재 산업에 밝으면 그 기업 집단은 그 방면의 사업에 진출하고, 유통업이나 관광업에 자신 있으면 그 방면에 집중 투자를 한다. 소유 경영자의 글로벌 수준에 따라 그 기업의 글로벌 수준도 결정 된다.

한국의 산업 사회에서는 소유 경영자가 리더를 스스로 육성하지 않으면 훌륭한 리더는 자랄 수 없다. 소유 경영자 본인이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할수록, 부하들 중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리더는 다 질식해 탈락해 버리고 잘 길들여진 참모(staff)만 남는다. 그리고 또 이 참모들이 계열 회사 대표이사로 나가게 되면 또 유능한 리더는 도태되고 자기를 닮은 참모들이 생겨난다. 이리하여 리더가 육성될 기회는 더욱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리더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한국형 리더십의 개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산업 사회에 소개된 리더십 이론과 훈련 기법은 거의 전부 미국에서 개발된 것이다. 7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리더십 이론과 훈련기법이 쏟아져 들어와 지금까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경주하면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산업 사회에 맞는 리더십은 출현되지 않고 있다.

미국 것을 참고로 하되 그 원리와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 사회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한국형 이론과 기법으로 재창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미국의 이론과 훈련 기법을 철저히 이해하여 그것이 어느 수준의 누구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이 개발된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오정환 롯데연수원장, 리더십과 국가경쟁력 2002. 9. 13)

5.5 기업의 인재육성의 교훈

- 선진기업 CEO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의 성공요인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
- 관심사는 e- Business 추세 대응
- 요구되는 핵심기술 및 인력의 기대수준과 현실과의 차이
- 우수한 인재의 지속적 보유
- 새로운 리더의 육성 등 대부분이 지식사회에 요구되는 변화와 인적자본의 문제로 집약

1) 인적자원개발(HRD) 트렌드

첫째,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핵심역량과 핵심스킬을 육성하고 있다.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을 중심으로 핵심인재와 리더를 양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GE, HP 등에서 보듯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개념이 인재양성 부분에도 적용되고 다. 또한 인재양성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IBM, Cisco, System 등에서는 온라인 교육과 e-earning을 중심으로 24시간 활용이 가능한 학습환경을 활용하고 있으며, 리더는 하루아침에 양성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과정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학습중심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자기주도형 학습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산업시대의 교육패러다임이 시키고 받는 타율적인 차원에서의 훈련이었다면, 지금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학습이 중요한 시대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주도형 학습(self-directed learner)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자기주도형 학습조직(self-directed learner)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자기주도형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셋째, 성과중심형 교육을 중시한다. HRD에서 다루는 콘텐츠는 철저하게 현장중심의 성과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감 있는 교육을 추구하는 Action-oriented Learning(현장실천 중심의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경영현장과 교육은 분리될 수 없으며 구분조차 힘들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Learning = Work itself = Performance = Business""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교육중심의 HRD 담당자의 역할도 성과개선 전문가(performance consultant)로 전환되고 있다.

넷째, HRD는 최고 경영자의 비전과 경영전략을 전개해 나가는 강력한 수단이다. 최근 기업별 연차보고서에서 HRD 부문의 투자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기업내 지적자산인 인재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기업일수록 최고경영자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HRD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아울러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해 나가는 공감대 형성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섯째, 시공간을 초월한 적시성(just-in-time)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급속한 IT 기술의 발달은 HRD의 전개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전통적 교육방법을 24시간 활용이 가능한 첨단 학습인프라로 구축하고 있다. 스피드가 경쟁력인 시대에 걸맞은 빠른 학습전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의 확산과 더불어 지식경영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e-Learning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찰스슈왈, Cisco System 등에서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협력업체, 고객, 학생, 정부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e-Learning은 이제 임직원을 디지털형 조직을 구축해 나가는 구체적인 변화의 수단인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손영수, 2001)자료 출처 : 한국인사관리협회(<http://www.kpiok.co.kr>)

2) 전략적 인재 육성의 유형

- 기업과 조직 구성원은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공동 운명체이며, 이런 관점에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종업원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기보다는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진 기업들의 인재 육성 유형을 구별하면 다음 4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 (리더 선발 육성형) 소니와 도요타와 같이 동양의 인재 육성 문화에 충실히 따르면서 인재 육성의 핵심을 리더에 초점을 맞추고 차세대 리더를 조기에 선발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안

- (리더 맞춤 교육형) 존슨&존슨과 같이 개인의 자발적 참여, 관리자의 철저한 후원, 조직의 시스템적 지원 등 철저한 역할 배분을 통해 상호 니즈를 맞추어 내는 리더를 경영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안

- (종업원 실천 유도형) P&G와 같이 종업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재 육성 방안

- (중업원 집단 교육형) 메리어트 호텔과 같이 회사의 기본 방침을 전 사원들이 철저히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육 형태를 동원하는 방안

3) 선진 기업 사례 분석

① 리더 선발 육성형: 소니와 도요타의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 최근 일본 대기업에서는 차세대 경영간부를 내부의 젊은 인재 중에서 조기 선발하여 육성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소니는 기업 문화의 유연한 승계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차세대 리더 육성을 가장 중요한 전략 사업으로 인식한다.

- 도요타는 도요타 인스티튜트에서 글로벌 리더 후보자들에게 도요타의 경영 철학인 Toyota Way'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② 리더 맞춤 교육형: 존슨&존슨에서 배우는 인재 육성

- 존슨&존슨은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대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존슨&존슨 제품에 대해 높게 신뢰하고 있다.

- 존슨&존슨은 우리의 신조(Our Credo) 을 전 세계의 모든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이행하고 직원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리더십 스탠더드를 규정하고 있다.

- 전사적인 차원에서 임원 컨퍼런스 ,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 리더십 챌린지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젊고 유능한 직원들로 하여금 글로벌 감각을 높이기 위해 해외 자회사 근무를 순환 보직시키고, 이를 통해 현장 학습을 이루게 한다.

<표 2-24> 한미일의 인재교육비교

구분	미국기업	일본기업	한국기업
인재 육성 자세	우수한 인재의 조기 선발·육성	장기적 안목으로 인재 육성	적체적소(일기응민식)
교육 경험	평균 경영학 석사 교육을 받았고, Off-JT의 위력을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부하지도의 경험이 있고, OJT를 교육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문위탁기관에 위임 혹은 직접챙기는 스타일
기업 이념	구체적으로 사원에 대한 기업의 공헌을 정의하고 있다.	주상직이며, 사원에 대한 공헌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주상직 원대환
교육 이념	- 업무처리방법을 배움 - 전원의 능력향상을 꾀함	- 인격함양 등 추상적 - 엘리트를 양성	사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교육
훈련	체계적으로 훈련·육성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하고, 꾸준히 훈련	매년 일정기간 훈련 형식적
능력	직무능력 개발	잠재능력 개발	서무중심, 교양
교육 투자	경영간부가 교육에 대한 의식적인 투자를 충분히 함	경영간부의 투자의식이 약함	경영간부의 교육의식 미약
주요 연수	기술계 연수 중시	종합적 교육 훈련	해당 직무중심
작업 메뉴	O	X	X
교육 기관	외부기관 교육담당자(전문적 연수담당)	현장중심, 사외강사 교육담당자(사외강사를 준비하는 사무원)	내부강사+사외강사
교육 방법	개별 교육 Package Program	개종별 교육 중심 OJT 중심	승진위주의 대미교육
교육 기간	장기 중심	단기 중심	초단기

③ 종업원 실천 유도형: P&G, 모든 직원을 CEO로!

- P&G는 채용에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CEO가 될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이
들을 미래 CEO로 육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직원이면 누구나 CEO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그들 중에서 내부 경쟁
을 통해 P&G의 차세대 CEO가 탄생한다.

- 하지만 P&G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일하는 가
운데 배우는 것(learn by doing)'이라고 믿고 있다. 이 개념은 농촌에 적용이 가능
하다.

- OJT, Functional training, Corporate training 등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④ 종업원 집단 교육형: 선진 호텔의 Win-Win 직원 육성 프로그램

- 메리어트는 MDT(Management Development 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원하는 경력과 니즈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또한 메리어트의 교육 방법은 교육 극대화를 위해 실습 교육 위주로 운영되며, 직원들이 현장 감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홀리데이인은 타사와 차별화시키기 위해 모든 홀리데이 인에서 균등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홀리데이인 대학'이라는 연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홀리데이인의 4주 교육이 끝나면 모든 수련생들은 자부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진 졸업장을 부여 받는다.(현대경제연구소, 2003.3)

4)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인재 양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높이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고경영자 스스로 인재 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몰입을 보여야 한다. 또 회사내 인재개발 부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위상 정립이 필요하고, 부서 스태프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 가치관과 인재상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디자인되어 장기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기업이 도약할 수 있으며 농촌마을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식 방식에서 탈피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 러닝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의 연수원은 기업의 전략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되어야 한다.

6. 정책과제

6.1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인력교육 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관광인력 사회교육 시스템
- 군 지역 종합회관의 확충
- 과소공급 가능성이 높은 지역 교육분야에 집중 투자
- 그린투어 관련 소모임/학습동아리 지원육성방안마련
- 사회교육담당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실시

1) 군 지역 종합회관의 확충

군 지역은 대상인구의 부족과 경제적 여건 때문에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지역의 경우 문화회관, 사회복지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공공도서관이 전역에 있고, 각종 사설학원이 설치되어 있어 사회교육시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반면 군지역의 경우는 농촌종합회관이 있는 곳이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일부 농협에서 주부대학을 비롯한 취미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농업기술센터가 유일하게 적지만 농촌 인력대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사회교육시설의 주 수요층인 젊은 농촌인력들의 경우 교육 및 문화적 욕구가 높아 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촌정주를 기피함에 따라 도시로의 인력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지역 종합회관 건립을 정책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군지역에 건립되었거나 건립중인 회관은 전국에 산재되지만 시군 농촌관광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는 운영비 지원 없이 건물 건립시 국비와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는 정도이다. 4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시, 군 등 기초자치체의 지치역량이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의 주체역량을 강화시키며 교육을 진흥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장 등 하드웨어는 기본이다. 결국 하드웨어의 마련 속에 어떻게 지역특성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결합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아래선 그린투어활성화가 어려우며 빠른 시일 내 정부부처의 의견조율로 그린투어교육을 위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턱없이 낮은

군지역의 경우 건립에만 3040억이 소요되는 농촌종합회관사업을 추진하는 것조차 매우 힘든 실정이므로 사업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비보조가 확대되어야 한다.

2) 과소지역의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교육분야에 집중 투자

기존 농촌인력 사회교육기관의 경우 기관은 달라도 교육내용은 취미교양, 건강여가, 생활기술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적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포선이 작은 농촌관광인력들이 선호하는 내용은 거의 전무했다. 인기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영역 중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농촌관광이나 지역개발분야는 자발적 교육수요가 매우 낮은 부분이다. 예를 들면 자원활동과 같이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회활동에의 참여확대를 위한 사회교육이나 지역사회지도자로서의 의식교육, 농촌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교육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농촌관광 농업인 전문인력화를 논의할 때 보통 현장영농기술, 경영기법을 갖춘 농촌관광인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농촌관광 농업인으로서 직업의식 교육과 정체성확립교육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촌관광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매우 높으나 농촌관광인력들의 자발적 수요가 떨어져 사회전체로 볼 때 개선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과소지역에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이를 지원할 교육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실시하도록 한다.

3) 그린투어 관련 소모임/학습동아리 지원육성방안마련

현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식이 과제공모 및 사업선정을 통한 사업비 지원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개별 지역의 농촌관광단체가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회원수를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도단위 비영리단체지원사업 등에 공모하려 해도 회원수가 100인 이상 되어야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시군 농촌관광인력의 단체나 협의회 등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농촌관광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농촌관광 소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그린투어 인력조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이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소모임, 특

히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육성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농촌관광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참여하는 소규모 학습동아리 활동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은 “다음카페의 농촌관광사이트” 등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자발적인 농촌관광인력소모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한편 농촌여성들의 학습동아리 모임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01년부터 자체기획사업으로 도내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담당부서는 여성정책과이며 사업비는 여성발전기금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2002년의 경우는 5,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위탁을 줘 학습동아리 리더교육, 권역별 회원교육, 강사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각 시군 농촌관광인력정책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습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서 사례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촌지역에 기반을 둔 면단위 소모임, 학습동아리의 경우에는 소규모의 지원으로도 모임을 활성화하고 자체사업을 벌이는 데 많은 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예산편성을 통해 학습동아리 및 소모임을 육성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린투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아직 학습동아리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시군단위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의회나 행정의 인식이 아직 부족해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도차원에서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한 후 시군 자체 사업으로 넘겨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이천의 부래미마을의 경우 부래미포럼이 있다. 지난 2002년부터 개최돼 지금까지 20여 차례 지속됐고 정회원만 50여명이 넘는다. 삼성경제연구원, 교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 포럼의 경우 이제 부래미 마을만의 포럼이 아니라 부래미마을이 있는 읍면, 장호원, 음성군 등 이천 남동부지역의 지역활성화포럼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포럼의 주체는 이상용 농림부농업연수부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고향마을의 진흥과 농촌관광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4)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교육담당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현재는 전혀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매년 1차례 정도의 교육을 통해 지역개발 관련 사회교육기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많은 지역개발주체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생활지도사, 농촌관광인력 교육담당공무원, 농촌관광인력단체지원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교육수요조사, 사전사후평가 등 교육전반에 대한 과정 외에 농촌관광인력 소모임 활성화방안, 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과 지역자원을 발굴해내는 안목을 길러주고 이들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사례발표 등의 방법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사례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촌의 경우 한 사람의 인적자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며, 이를 자원화 하는 담당공무원의 역할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후 지역별, 권역별로 사회교육 담당자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관광인력사회교육 정보를 교환하고, 기관별 프로그램의 특성화,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6.2 농촌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읍, 면 등 기초단위의 역할

- 농촌관광인력육성에 관해 사회교육기관 역할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커질 전망
- 지역유휴시설인 농협, 학교, 우체국 등의 개방을 통하여 교육장 및 교육시설을 확보한 것이 바람직 함
- 농촌관광 사회교육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인적자원을 발굴, 육성이 가장 중요
- 지역단위의 유휴 공공시설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자원 인사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

1) 농촌관광체계 운영 활성화

농촌관광인력육성에 관해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몇몇 도 지역의 경우 타 기관과의 경쟁이 심해 시설과 교육내용, 강사진 등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지만, 별다른 사회교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경우는 질 좋은 교육을 저렴하게 제공해주는 시설과 강사가 필요하다.

지금은 군수가 바뀌 의미가 없지만 실제 군 지역으로는 최초로 문을 연 순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농촌관광교육과 세미나 심포지엄개최 등으로 지역이미지를 홍보하고 지역 내 그린투어를 하는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농촌지역에서 농촌관광센터가 갖는 기대효과를 고려해볼 때 적어도 시군단위까지는 농촌관광회관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농촌관광회관이 다음의 기능을 필수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농촌관광센터(주민지치센터)는 지역, 교육, 문화, 정보화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한다. 농촌관광인력이 지역에 존재함으로써 농촌관광인력교육 및 문화활성화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친 농촌 체험적 프로그램을 갖춘 농촌관광인력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살린다. 또한 집합교육이 어려운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단위 순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농촌관광인력들에게 교육문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군지역 농촌관광인력을 도울 수 있는 반드시 상담기능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군지역 중 상담기관이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또 농촌관광 긴급전화도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농촌관광인력 고충상담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군지역 농촌관광시스템 확충 및 운영시 이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하도록 한다.

셋째, 교육생을 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수강생과의 관계가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후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자신들이 새로이 습득한 기술을 이용하여 전문적인 자원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연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주시 농촌관광인력회관의 사례는 수강생과 강사자원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 농촌관광인력회관의 역할에 대해 새삼 기대를 갖도록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고,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공동체 참여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넷째, 농촌관광인력소모임 및 농촌관광인력 단체활동을 지원한다. 농촌관광인력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관광인력회관 강사자원을 지원하고, 이들이 모이고 학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농촌관광인력들은 모임이나 학습활동을 위한 마땅한 공간이 없다보니 대개 음식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분위기가 산만하고 공식적인 모임의 틀을 갖추기가 힘들다. 소모임을 육성하고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동아리 방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읍면 마을단위 학습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청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사자원 등을 지원한다.

<표 2-25> 농촌관광체계 활성화 방안

교육장소	농촌관광(주민자치)센터는 지역, 교육, 문화, 정보화의 중심거점으로 활용
상담기능	읍면단위 지역 농촌관광인력을 도울 수 있는 반드시 상담기능을 갖추
교육주체인력	교육생을 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
소그룹지원	농촌관광인력소모임 및 농촌관광인력 단체활동을 지원

2) 유희시설개방을 통한 교육공간 확보

농촌관광인력사회교육기관이 새로이 확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단위 같이 대상인구수가 적어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곳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농협, 학교, 우체국 등의 개방을 통하여 교육장 및 교육시설을 확보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거주지에서 가깝고, 주민들이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곳이므로 시설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없는 편이다. 창고나 다름없던 면 복지회관을 활용한 수익, 대상인구의 부족 등으로 사회교육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읍면단위의 지역에서는 읍면사무소, 농협, 복지회관, 학교 등 유희시설 개방을 통한 교육장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의 경우는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정보화 및 교육기자재가 잘 구비되어 있어 좋은 교육장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방학이나 야간을 이용한 적극적인 개방 노력이 요구된다.

3) 역량있는 민간자원 발굴 및 지원

농촌관광 사회교육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처한 지역의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이들이 결국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보면, 농촌관광 농업인이 농촌 관광인력대상 교육 및 관련사업을 담당할 경우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농촌관광인력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었다.

각각 읍지역과 면지역에서 농촌 관광인력대상 교육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임실여성농민교육문화센터는 사업주체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농촌 농업인으로서 대학 졸업후 농촌에 들어와 농촌관광인력농민단체 활동을 10여년 넘게 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자원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역량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량이다.

또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감산지라는 특성을 살린 청도 천연감물염색제품, 마늘로 유명한 지역특성을 활용해 마늘고추장을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이뤄낸 의성마늘고추장사업 등은 농업기술센터라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성공적인 소득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

기반시설 및 인적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경우 민간의 역량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지역 가용시설 및 인적자원의 DB 구축

지역농촌관광인력 사회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 및 인적자원 확충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활용할만한 인적자원도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유휴공공시설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자원인사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가용 사회교육자원이나 인적자원을 충실히 파악하여 다양한 정보자료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시군기초단체는 읍면동 단위별로 유휴가용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 지 파악하고, 각 기관의 위치, 활용가능시기, 수용인원, 교육기자재활용 가능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시군홈페이지와 책자를 통해 제공하도록 한다.

한편 지역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들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지역에 활용 가능한 전문가가 있었다는 점이 크다. 청도천연감물염색의 경우는 지역주민에게 천연염색법을 무료로 보급한 천연염색전문가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농촌지역에서 이러한 자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촌지역일수록 한사람의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 몫을 해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감안할 때 지역전문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단 유희가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회교육 자원 활동으로 연계/활용한다.

5) 읍면지역 민간위탁을 통한 통합서비스기능 제공

읍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에는 새롭게 기관을 설립하기보다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군 단위까지는 농촌관광인력회관 같은 전문농촌관광인력 교육기관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경우는 역량 있는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위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의 경우 집 가까이에 이용시설이 없으면 접근성이 떨어져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 전 읍면마다 한 개씩의 사회교육기관이 들어서지 못 할 바에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농촌(면단위) 실정을 보면, 사회교육시설도 물론 부족하지만 보육은 방치되다시피 하고, 농촌학생들의 학력은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다. 가족단위의 문화시설과 농촌관광인력의 고충을 해결할 상담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라 이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은 농가농촌관광인력들의 농촌정착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이 된다.

따라서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경우는 단순히 교육을 전문화하는 시설보다는 농촌관광인력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 방과 후 교육, 상담, 문화기능을 함께 갖춘 시설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농촌관광인력 농업인센터와 같이 통합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 더욱 많이 확충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확대가 바람직하다.

6.3 농촌관광인력 사회교육기관의 특성화 및 전문화

- 대개의 교육기관의 경우 취미 교양위주의 강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역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기술위주의 일상생활관리 교육의 비중이 높음
-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관광인력대학 역시 농협의 주부대학과 프로그램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없음
- 농촌관광인력을 사회교육기관별로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대두

1)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중 농촌관광 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상생활관리교육에 치우쳐져 있어 농촌관광 농업인을 생산자로 인식하고 그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데 있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내용은 생활기술 교육을 다소 지양하고, 영농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여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농업경영관리와 농산물의 선별, 포장, 저장, 가공 등 수확 후 제2생산과정에서 농촌관광인력농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관광인력의 경우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중요한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농촌관광과 관련된 농가 일감갓기 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성군 마늘고추장 사업의 경우처럼 농가 일감갓기 사업은 지역농촌관광인력들로 하여금 높은 부가가치 제품생산을 통해 농의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인력영농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된다.

평소 농업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관광인력이라는 이유로 무급종사자의 위치에 있던 농가농촌관광인력들에게 공장운영 경험은 경영자로서의 자신감과 소득창출을 통한 만족감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농촌관광인력농업인의 지위상승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려면, 주먹구구식의 경영이 아닌 경영자교육, 마케팅교육, 판로개척 등에 대한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센터의 전체농업인 대상 영농교육도 영농기술, 농기계 관련 교육을 주로 시행하고 있으나 농촌관광인력의 참여율이 낮고, 생산기술보급 위주의 교육 비중이 컸다. 농촌관광인력농업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단순한 생산기술교육이 아닌 농업에 대한 비전과 경영마인드를 제시해줄 수 있는 교육이 강화

되어야 하며,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친환경농업, 관광농업에 대한 인식교육도 필요하다.

2) 도농교류와 조합원 교육을 강화한 농협교육

농협교육은 생산자단체인 농가주부모임과 소비자단체인 고향주부모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은 단체의 성격과 관계없이 주로 취미/교양교육(69.8%)에 치우치고 있다.

농협이 주로 읍면단위에 설치되어 있어 주 이용대상이 농업인이고,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연계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볼 때 앞으로 농촌 관광인력대상 교육은 농협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소비자단체의 교육이 '합리적 소비'나 '농산물의 이해'에 대한 특강이외에 생산자인 농업인의 우수사례발표를 통하여 도·농간의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 가공에 따른 유통, 판로개척 등의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농협 조합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한다. 농협 분과위원회 농촌관광인력위원, 대의원, 이사 등을 대상으로 농정전반, 농촌관광인력농업인 정책, 농업환경변화와 농촌관광인력농업인의 역할 등에 대한 농촌관광인력농업인 리더십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최근 복수조합원 관련조항이 삭제되면서 눈에 띄게 늘어난 지역농협의 농촌관광인력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적인 성장에 적합한 질적인 수준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농촌관광인력의 정체성을 키워주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관광인력대학은 농협의 주부대학과 프로그램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없다. 교육프로그램의 대다수가 건강/취미강좌이며, 의식교육의 내용도 기존의 소극적 농촌관광인력관 내지 농촌관광인력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계가 많다. 군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특히 심하다. 이마저 막연한 수요예측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다보니 농협 주부대학 등 타 기관과 중복투자가 이루어져 제한된 수요층마저 고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촌관광인력대학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여타의 사회교육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인력의 정체성을 키워주는 의식교육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내용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농촌관광인력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나 사회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농촌관광적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칠곡군 종합사회복지관의 농촌관광인력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서 '공격적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지역농촌관광인력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농촌관광인력과 NGO', '현대농촌관광인력의 역할과 리더십', '21C의 새로운 농촌관광인력상' 등 농촌관광인력의식향상과 농촌관광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을 강화해 농촌 관광인력들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냄으로써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4) 각급 대학의 역할

농업절반의 생산주체로서 농촌관광인력농업인의 역할과 지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전문 농업인력으로서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농촌관광 농업인을 위한 전문 과정 개설을 지원할 필요하다.

현재 전국의 농업대학의 전문교육과정으로는 위탁 후계농업인교육과 각 대학과 연계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있다. 후계농업인 교육과정에는 수료 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반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농촌관광인력농업인만을 위한 농촌관광인력전공을 별도로 뒤 농촌관광인력수강생들의 호응이 높았지만, 학점인정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농촌관광인력농업인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인력농업인 교육과정을 평생교육과정으로 형식화,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학점은행제도와 같은 제도를 개발하거나 농촌관광인력농업인대학 형태의 특성화대학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학력상승의 효과가 있도록 현재의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촌관광대학은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2년제 전문학사 취득과정으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농촌 농촌관광인력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농촌관광 농업인들을 전문인력화 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대를 모아야 한다.

6.4 교육참여 여건의 조성

- 농촌관광인력 전용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 현장교육 및 순회교육 활성화
- 여성의 역할이 강화된 그린투어교육 강화

1) 농촌관광 친화적 교육과정 개발

농촌 관광인력은 기존 전업농 중심의 농업인들과 학력, 영농기술 수준 및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 등 인적자본 구성이 다를 뿐 아니라 자녀문제 등 가사일로 인해 교육을 위한 이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 결과 교육과정에 참여도가 낮고 교육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촌관광인력 전용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별도의 과정시설이 어렵다면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부부농업인 교육강좌를 개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도나 시군단위로 실시하는 영농교육에 농촌관광인력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과정은 농기계 교육반 외에는 거의 없다.

또한 교육과정 설계시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은 농촌 관광인력들의 인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화교육을 예를 들어본다면, 왜 정보화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화마인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주 쉬운 교재를 사용해 기초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집단에 비해 입문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기간을 조금 길게 잡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농촌 관광인력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개발된 교육내용이나 교수법을 강사자원에 대한 교육으로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관광인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농촌관광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농촌관광인력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의시간을 조정하고, 교육시간 중 탁아소 마련, 농촌관광인력교관의 채용 등 농촌관광 친화적 교육환경을 마련하도록 한다.

2) 현장교육 및 순회교육 활성화

현장교육은 집합교육이 어려운 농촌관광인력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의 특성에 따라 강의의 내용을 달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농촌관광 농업인들은 가사와 농사일로 이중적 부담을 지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위해 도단위 기관은 물론 시군 단위 기관에도 나가기 힘든 상황이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관광인력 등의 현장순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및 문화시설이 도시에 비해 매우 부족한 산간오지반의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3)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는 그린투어교육 강화

여성은 농가민박 등 농촌관광을 수행하는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촌관광에 있어서 남성의 보조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하며, 농촌관광인력의 의사결정권한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경상북도 농림어업종사자 가구에서 남편 위주의 의사결정을 하는 부부가 68.5%나 돼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매우 불평등한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농촌의 보수적 풍토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여성이 농촌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인정하고 여성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성이 참여하는 그린투어교육의 내용은 바람직한 민박경영모형, 음식물, 전통체험, 농가체험모형, 평등한 가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 남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교육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투어 교육이 남녀 간의 역할교육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거나,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부공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http://www.forwoman.or.kr>

Ⅲ. 외국의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관련 인력개발

1. 외국의 동향 및 사례
2. EU의 LEADER 프로그램
3. 선진국의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

여 백

Ⅲ 외국의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관련 인력개발

1. 외국의 인적자원육성

1.1 선진국의 지역분권과 인적자원개발 의미

- 지역실정에 맞고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혀 인적자원개발의 성과를 제고
- 지역정보망의 구축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인적자원개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
- 지역산업체와 산학협동중진 등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

교육 훈련을 비롯한 인적자원개발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적인 활동이다. 다양한 구성원들 가운데 정부부문은 다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계층화되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민간부문과 함께 인적자원개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인적자본개발에 대한 각 단계의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갖는 주요 역할로는 법령 및 규칙의 제정, 자금의 배분과 지원, 관리감독 등인데(OECD, 1995),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물론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의 지역분권화는 추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적자원개발이 지역분권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데는 정부의 기능, 경제운영 등에 대한 정치 경제적 철학이 크게 바뀐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작은 정부 및 시장기능의 중시로 인적자원개발 역시 상급단계의 정부보다는 하급단계에 있는 정부의 역할증대,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서 지역중심의 인적자원개발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

더욱이 경제의 개방화,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 서비스산업의 비중증대 등으로 인하여 경제의 기본단위가 국가경제보다는 한층 더 지역경제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짐에 따라 지역분권적인 방향으로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표 3-1> OECD 인적자원개발관련 의사결정비중

(단위: %)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정부	현장(학교)
미국	-	3	71	26
프랑스	33	-	36	31
독일	7	18	42	33
스페인	33	13	26	28
포르투갈	57	3	-	40
노르웨이	23	-	45	32
벨기에	-	25	50	25
스위스	-	50	40	10
스웨덴	4	-	48	48
덴마크	15	-	44	41
호주	28	26	8	38

자료 : OECD(1995), McGinn and Welsh(1999)에서 재구성

인적자원개발의 지역분권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분권화를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혀 인적자원개발의 성과를 제고시킨다.

둘째,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역정보망의 구축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사회적 파트너들 사이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인적자원개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지역산업체와 산학협동증진 등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능력을 제고시켜 자금조달 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 재배분을 통한 행정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점 등이다.

인적자원개발의 지역분권화는 이와 같은 이점을 갖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지역별 경제적여건 등의 차이로 인적자원개발의 지역편차가 확대되는 경우 형평성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둘째,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자금의 조달과 배분을 둘러싸고 지역내에서,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지역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차원에서 실시되는 인적자

원개발과 지나치게 중복되거나 상충될 소지가 있다 등이다.

분권화는 분산(reconcentration), 위임(delegation), 이양(devolution), 그리고 민영화(privatiz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Rondinelli; et al., 1984), 인적자원개발의 이해관계당사자들 사이에,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들 사이에 인적자원개발의 분권화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면 분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대립이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인 지역분권화를 주저하거나 꺼리는 중앙정부는 지방 또는 지역에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정도의 지역분권화, 즉 분산을 지역분권화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 이양 받거나, 또는 산업계 등 민간부문이 정부부문으로부터 주요결정권을 받거나 사회적 파트너로서 주요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지역분권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1.2 외국의 동향 및 사례

- 선진국은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인력예측모형을 비교적 고루 잘 갖추고 운영
- 미국은 지역네트워크의 관심이 인적자원개발에 집중
- 영국은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가운데 교육부문의 활동은 주로 각 지방의 지역교육행정기관 중심으로 실시
- 캐나다는 지역경제개발공사가 주축이 된 지역네트워크에 의하여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

1) 선진국에 있어서 인적자원 활용의 동향

농어촌에 있어서 지역정보체계를 통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완벽히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많지 않다. 지역정보체계의 한 축인 지역네트워크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정보체계의 또 다른 축인 지역정보의 중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인력예측모형은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국가도 많다.

반대로 지역차원의 인력예측모형은 상당히 정밀하게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네트워크는 다소 영성하게 구축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인력예측모형을 비교적 고루 잘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이 연방정부보다는 주, 학구 등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1990년대 이후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교

육과 노동의 연계가 강조되면서 지역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관련 조직들이 거미집 같은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인적자원개발관련 지역네트워크는 전적으로 인적자원개발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아닌 경우가 많지만, 최근 들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력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역네트워크의 관심이 인적자원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업무는 이와 같은 지역네트워크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역정보의 생성, 수집, 확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이 지역네트워크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기관인 지역노동력투자위원회(Local Workforce Investment Board)에는 지역내의 산업계인사, 인적자원개발기관인사,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지역노동시장 정보망구축, 인적자원개발 계획수립 및 감독, 인적자원개발기관의 요건설정, 인적자원개발의 성과측정 등과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 7월부터 발효한 노동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노동력투자위원회는 1982년 JTPA(Job Training Partnership Act)의 제정으로 출범했던 민간산업평의회(총 600여개)의 후신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인적자원개발 지역정보의 핵심인 지역차원의 인력예측모형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산하의 BLS에서 개발한 인력예측모형을 기본 틀로 하되,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 보완되어 이용되고 있다.

3) 영국

영국은 4개의 지방(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으로 이루어진 지방별로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의 개념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잉글랜드 지방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크기인 반면에 웨일즈와 북아일랜드는 지방(region)이라기보다는 지역(local)에 가까운 정도로 규모가 작다.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가운데 교육부문의 활동은 주로 각 지방의 지역교육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잉글랜드지방과 웨일즈지방의 지역교육행정기관은 카운티(county) 또는 구(borough)이며, 스코틀랜드지방과 북아일랜드지방에서는 각각 지역평의회(regional councils 또는 island councils), ELBs(Education and Library Boards)가 지역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직업훈련부문의 활동은 TECs 또는 LECs가 중심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네트워크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잉글랜드지방과 웨일즈지방의 총 82개 지역에 설치된 TECs와 스코틀랜드지방의 총 22개 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LECs는 원래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지금도 업무의 상당부분이 정부의 감독 하에 놓여 있지만, 잉글랜드의 Teams와 스코틀랜드의 LECs는 각각 교육고용부, 스코틀랜드 행정청(Scottish Office)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LECs의 경우는 스코틀랜드 행정청의 감독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지역개발기구인 SE(Scottish Enterprise)와 HIE(Highlands and Islands Enterprise)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스코틀랜드 행정청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실제운영은 지역사회의 산업계 인사들이 중심이 된 민간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네트워크의 중심조직인 TECs와 LECs의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경제활동권역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 행정구역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런던과 같은 대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TEC이 관장하는 공간적 범위가 여러 개의 지역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스코틀랜드의 LECs가 관장하는 공간적 범위는 지역행정구역의 범위보다 작은 경우도 있다.

4) 캐나다

캐나다 역시 인적자원개발 지역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주정부, 지역자치단체, 산업체, 노동조합 등 사회적 파트너들로 구성된 지역개발센터(Local Development Center)와 연방정부의 각 지역사무소가 인적자원개발 지역네트워크의 중심적인 조직이다. 전통적으로 주정부, 지역자치단체가 인적자원개발에 상당한 정도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해 온 캐나다는 1990년대 중반이후 인적자원개발의 지역분권화가 가속화되었는데, 일부 주들은 인적자원개발관련 노동행정업무를 연방정부로부터 완전히 이양 받고 있다.

캐나다의 10개 주 가운데 Alberta, Manitoba, New Brunswick, Quebec은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통하여 고용과 관련한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들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역사무소(총 300개)를 중심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자치단체들이 인적자원개발업무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점차 주정부 및 지역자치단체들의 권한이 증대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다. 참고로 Montreal시의 경우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역경제개발공사(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가 주축이 된 지역네트워크에 의하여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OECD, 1998).

5) 프랑스

프랑스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져온 국가이나, 최근 들어 고용과 관련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상당부분 지방 또는 지역에 위임하고 있다. 지방평의회(regional councils), 부서평의회(departmental councils) 등과 같은 인적자원개발관련 지방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6) 기타

호주는 헌법에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8개 지방정부(2개의 준지방정부 포함)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을 만큼 원칙적으로 지방 또는 지역차원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적자원개발 지역네트워크에 민간부문이 과거보다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인적자원개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 지역정보의 핵심인 지역차원의 인력예측모형은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가장 정교한 편이다. 현재 정부와의 계약 하에 ROA(Research Center fo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가 지역차원의 인력예측모형을 개선해나가는 작업을 지속중이다.

2. EU의 LEADER 프로그램

2.1 EU의 LEADER 프로그램의 배경

- 농촌 지역중에서 조건불리지역에서는 농민의 이농, 취업기회의 상실,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급속한 증대
- CAP의 원칙고수가 오히려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인식

EU는 1980년대 들어 공통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을 기본으로 농산물과잉재고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확대, 역내농산물시장에 대한 국제화압력 등이 고조되었다. 이에 대해 CAP의 농산물가격 억제나 하락유도가 시장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CAP의 원칙과 모순이 되었다.

한편 농촌지역중에서 조건불리지역에서는 농민의 이농, 취업기회의 상실,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급속한 증대로 인해 CAP의 원칙고수가 오히려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소득보상정책이나 환경보호농정의 등장 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또한 역내에서 농산물가격의 차이가 시해 향후 EU통합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도 있었다. 향후 EU정책의 근본방향은 1988년 EU가 공표한 공식문서“농촌사회의 장래(Future of Rural Society)”를 공표 하게 됐다. 이러한 배경을 좀 더 구체화하고 EU통합을 목적으로 회원국의 농촌발전 과 교역체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회원국들은 모색하게 된다.

2.2 EU의 LEADER 프로그램

- LEADER 프로그램의 새로운 접근방법은 지역(territorial), 다부문(multi-sectoral), 참여(participatory)로 요약
- 새로운 농촌개발 모델을 개발
- 경험교환과 노하우의 보급을 촉진
-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지도자에 의해 기획되어지고 지역을 초월한 개발프로젝트를 지원
- 실증적이고 보급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1990년을 전후하여 EU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새로운 농촌개발 접근방법’ 즉,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조성사업의 결과로서 나온 구상의 결과다. 당시 유럽 농촌이

맞이했던 전환기적 상황(농촌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변화, 농촌지역의 인구사회학적 재구성, 지구적 차원의 정치경제 환경변화)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LEADER¹⁴⁾는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접근방법들을 표방하며 등장했다. LEADER 프로그램의 새로운 접근방법은 '지역(territorial)¹⁵⁾ '다부문(multi-sectoral)', '참여(participatory)'의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유럽공동체는 구조정책기금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핵심은 구조정책기금이 "조건불리지역의 낙후성과 여러 지역들 간의 발전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EC Com, 87/100)"는 내용이다.

1988년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Future of Rural Society'를 통해 새로운 원칙에 따른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1991년부터는 Objective 1과 Objective 5b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LEADER I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실험적인 의도에서 출발했던 LEADER I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EU의 여러 농촌지역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 기간은 실험적 단계로 LEADER 프로그램이 거둔 성과를 토대로 EU가 추구하는 새로운 농촌개발 접근방법은 '지역', '다부문', '참여'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LEADER I'이 종료되고 LEADER II(1995-1999)가 진행되던 무렵인 1996년, Cork 선언¹⁶⁾에서는 이 '새로운 접근방법'이 다음과 같이 확고하게 언명되었다.

LEADER 프로그램에 소요된 비용은 LEADER I(1992-1994)시기 동안 4억2천만 유로, LEADER II(1995-1999)에 있어 14억유로가 들었다. 이렇게 비용이 후반기에 있어 소요된 것은 I기 사업실행지구가 217개소인 반면 II기에 있어서는 EU전역에 걸쳐 약800지구가 넘는 지역에서 사업이 실시됐기 때문이다.

14) LEADER 프로그램은 불어로 "Liasons Entre Actions de Development de l'Economie Rurale"의 약자로 영어로는 'Links between A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ral Economy'를 말한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농촌지역에 있어서 경제개발을 위한 활동연대라 할 수 있다.

15) 'territorial'이라는 용어는 'central'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local'이나 광역의 지리적 경계를 함의하는 'regional'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정 공간의 물질적, 상징적 고유성을 특히 강조한다.

16) 이 선언은 아일랜드의 Cork에서 1996년 11월 7-9일에 개최된 '유럽 농촌개발 컨퍼런스'에서 관련 연구자들과 활동가들, 관료들이 발표한 채택한 것으로, 현재 EU와 그 회원국들의 농촌개발 정책에 중요 지침으로 반영되고 있다. Cork 선언은 유럽에서 농촌개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수정을 초래한 전환점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농촌개발 정책은 명료한 지역적(territorial) 차원을 유지하면서, 개념적으로는 다 학문적(multi-disciplinary)이어야 하며, 적용에 있어서는 다부문적(multi-sectoral)이어야 한다. ... (중략) ... 설계와 추진 과정에 농촌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자문을 얻어야 할뿐만 아니라, 모니터링과 평가에도 그들이 참여해야 한다(Commission, 1996, p.2).”

LEADER II는 LEADER I을 통해 그 성과가 입증된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모델을 확대 적용시키는 단계였다. LEADER II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 EU 회원국들에서는 정책지원 대상자 선정작업의 지연, 참여자들 간 파트너십의 불안정, 불투명한 진행과정, 과도한 사업단위 지원으로 인한 정책효과의 저하 등등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European Commission, 2000), LEADER 프로그램이 보여준 긍정적인 이미지와 성과는 놀랄 만한 것이었다.

EU는 2000년부터는 LEADER +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젠다 2000¹⁷⁾이 대상 지역이 EU의 모든 농촌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예산 또한 대폭 증액되었다. 이는 LEADER가 제시하는 모델이 실험적인 성격을 뛰어넘어 EU의 대안적인 농촌발전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LEADER사업은 EU의 농촌지역활성화 조성사업이지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이루어진다.

- ① 새로운 농촌개발모델을 개발한다.
- ② 경험교환과 노하우의 보급을 촉진한다.
- ③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지도자에 의해 기획되어지고 지역¹⁸⁾을 초월한 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④ 새로운 농촌개발을 예증할 수 있는 혁신적이면서도 실증적이고 그러한 가운데 보급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한다.

17) LEADER 프로그램은 1999년 모든 프로그램이 완료됐으며 부수적인 프로그램은 아젠다2000에서 수행

18) 원문에서는 ‘국가’를 초월하는’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으로 함

2.3 LEADER 프로그램 개관

- 추진체계는 수평적으로는 사업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
- 재정집행은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 투자비율은 7 대 3 정도
- 사업내용은 농촌개발활동, 직업훈련 및 지원, 농촌관광, 중소기업, 수공업, 농촌서비스업 지원, 농산물 마케팅 등 다섯 가지 범주
- LEADER I기에 있어서 217개 개별사업에 있어서 약 1/3 이상의 71개소가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개발을 실행
- LEADER사업과 같이 내발형 활성화를 목적하는 경우 그린투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

1) 추진체계

LEADER 프로그램의 추진체계는 수직적으로는 지방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 / LAG), 국가나 지방정부가 위임한 중간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 / IO),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DG for Agriculture)이라는 세 층위 간의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평적으로는 사업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가) 수직적 파트너십

LAG은 LEADER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농촌 현장에서 진행되는 LEADER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주체이다. 해당 지역의 공공 및 민간부문 인사들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조직된다¹⁹⁾. LAG의 실무진은 조직활동과 운영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현장정보를 수집하는 애니메이터(animater)들로 구성된다. LAG은 사업계획(business plan)을 꾸며 제출하고 EU 집행위원회가 그것을 승인하면, LEADER가 제공하는 재정 및 활동 상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IO는 LAG이 위치한 국가의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LEADER와 관련된 사무를 위임한 공공기관이다. IO가 반드시 EU 회원국 중앙정부일 필요는 없으며, 국가마다 상이한 지방분권화 정도와 법체계가 규정하는 LAG의 법률적 지위에 따라 그 유형은 달라진다²⁰⁾.

19) 현재 LEADER +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LAG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종사자들과 민간부문의 인사들이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하되 공공기관 종사자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농업을 담당하는 장관

IO는 관련정보 수집 및 분석, LAG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선진지역의 경험과 정보 교류 촉진, 지역 및 국가간 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계획 검토작업과 EU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의 지출이나 관리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은 사업계획의 검토 및 승인, 재정지원, 모니터링과 평가, LAG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 지역 및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맡으며, LEADER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과 재정지원을 제외한 여러 기능들은 외부기구에 위탁한다.

이러한 수직적 파트너십의 특징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현장의 주민들로 구성된 LAG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진행 전 과정을 책임지며, 상층부의 단위(중앙 및 지방정부와 EU 집행위원회)는 사업승인과 지원에만 그 기능을 국한시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마다 형성되어 있던 기존의 획일화된 농촌개발 정책 메커니즘의 통제와 간섭을 덜 받고, 각 지역의 고유의 상황에 적절한 혁신적인 사업들을 창의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수평적 파트너십

방대한 지역에서 수많은 개별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LEADER의 추진체계가 지니는 강점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LAG들 간의 경험이나 정보를 교류하고 조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그러한 기능을 위탁받은 민간기구인 '지역개발을 위한 유럽정보연합(Association Europeene d'Information sur le Development Local, 이하 AEIDL로 줄임)'이 LEADER에 참여하는 모든 기구, 조직들간의 중심에 위치하여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AEDIL은 농촌개발 관련 연구자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LAG에 대한 기술적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전파, 세미나 및 포럼의 조직과 지원, EU 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공식 문서 및 보고서 작성, 일반 대중들에 대한 LEADER 프로그램 홍보, LEADER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AEIDL은 개별 LAG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격려하며, 이들에게 풍부한 기술적, 조직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인상적인 '전문가 풀'을 형성하고 있다.

급 부서(농림부)가 IO가 되지만, 네덜란드나 영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 유관 부서가 IO이다. 한편, 프랑스나 벨기에는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설립되어 있던 별도의 공공기관에 LEADER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2) 재정 집행

LEADER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자금은 EU의 구조정책 자금과 민간투자 자금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 투자비율은 국가에 따라 그리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7 대 3 정도이다.

LAG의 사업계획이 IO의 검토를 거쳐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되면 지역, 사업계획의 타당성, LAG 구성상태의 세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LEADER +의 대상 지역은 인구 1만에서 10만 사이의 EU 역내 모든 농촌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통합주제²¹⁾와의 일치성, 지역사회 주민들에 미치는 효과, 지역 특성과의 일치성, 사업의 실험적(혁신적) 성격, 독자적인 추진방법을 타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 LEADER 외의 기타 구조정책들과의 상호보완성 등 여섯 가지 측면에서 평가된다. LAG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공/민간 부문의 인적 구성비, 조직의 내부 구조, 행정적·재정적 역량이라는 세 측면에서 검토된다.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EU 집행위원회는 IO에 사업예산 지출 승인을 통보한다.

LEADER의 지원금은 세 번에 걸쳐 LAG에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은 전체 금액의 40% 정도이며, 사업계획 승인 직후에 지급된다. 2차 지원금은 LAG이 해당 IO에 1차 지원금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중간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후에, 1, 2차 지원금액 합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3차 지원은 EU 공동재정의 국가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다. 3차 지원은 IO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LAG들에 대한 최종 보고와 지출명세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뒤에 이루어진다.

LEADER의 예산을 구성하는 구조정책자금은 EAGGF,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이하 ESF로 줄임),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이하 ERDF로 줄임)로 조성된다. 서로 다른 재정계통을 통해 정책자금이 집행되고 있으나 EU는 이들을 통합한 LEADER 프로그램만을 위한 단일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정과 관련된 각각의

21) LAG은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제일 먼저 지역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역의 요구와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통합주제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통합주제에 관해서는 이 글의 후반부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책임기관들은 독자적인 규정에 따라 움직인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LAG이 상이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통제를 받기도 한다.

3) 사업내용 22)

LEADER의 개별 사업들은 그 내용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대략 농촌개발활동 지원,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지원, 농촌관광, 중소기업, 수공업, 농촌지역 서비스업 지원, 농산물 마케팅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예산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촌관광 분야이며, LEADER I 프로그램의 경우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45% 정도이다.

이렇게 사업내용이 다양한 까닭은 LEADER가 견지하는 지역 접근방법과 참여 접근방법에 있다. 모든 사업들은 농촌현장의 LAG이 자율적으로 기획하며, 각 사업들은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역상황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진단에 기초한 각 사업들은 전체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LEADER의 모든 사업들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가 하는 점이다. LEADER I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보고서에는 관련 프로젝트들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여러 지표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LEADER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특히 LEADER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농촌에서의 고용효과와 농촌의 중소기업들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자료들은 매우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LEADER I은 사업 건 당 평균 1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 기업에 미친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데, 특히 사업 건 당 평균 25개 이상의 신규 경영체 설립을 유도했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과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참여자수는 LAG 당 평균 250명, 총 5만 5,0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22) 제시되고 있는 자료들은 "European Commission(1999a) Ex-Post Evaluation of the LEADER I Community Initiative 1989-1993"에서 얻은 것임을 밝혀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LEADER 의 경우 그 내용이 더욱 광범위하다. (자료: <http://www.terrami.org/agroinfo/issue.html>)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의 언급처럼 LEADER는 '매우 현대적인 프로그램, 사실상 돈이 들지 않는 프로그램이다(Heino van Meyer, 1997).'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구축을 위주로 하는 여타 정책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계획, 추진,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지역의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 활용 극대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특징들은 농촌현장에서 전개되는 LAG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더욱 잘 드러난다.

4) LEADER프로그램과 그린투어리즘

1980년대 농촌지역의 농외비즈니스 추진이 EU의 정책프로그램이 된 후 농촌관광(rural tourism)은 조건이 불리한 농산어촌지역에 있어 인구를 유지시키며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사업은 1990년대부터 EU전역에 확대되고 농산어촌의 조건불리지역에 있어 크고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으며 LEADER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단이다.

LEADER I기에 있어서 217개 개별사업에 있어서 약 1/3 이상의 71개소가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개발을 실행했다. 그리고 전반적인 농촌개발에 있어서도 메인사업이 아닐지라도 그린투어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 그룹은 217개소중 대부분이다.

농촌지역에 있어 1차산업, 2차산업과 관련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농촌관광을 통해 소득향상을 기대하는 수준은 매우 높다. LEADER사업과 같이 내발형 활성화를 목적하는 경우 그린투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린투어에 의해 경제기반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고용의 창출, 젊은 층의 지역유출방지, 정주화 촉진, 환경을 지역장원으로 활용, 지역의 전통산업 활성화, 고유문화의 유지발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LEADER 구주사무국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유럽 각지의 다양한 그룹으로부터 여러 보고가 들어왔다. 그 내용은 지역의 상황진단, 문화, 자연자원의 실용화, 어메니티 개선,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지역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상품제공, 도시민들을 위한 상품과 루트개발, 여행관련자의 연수와 다양한 농촌자원 제공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LEADER 구주사무국은 그린투어리즘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린투어

리즘의 해설과 실천방안서를 발행했다. 그 중 하나가 “지역내 투어리즘의 잠재력평가”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그린투어리즘이 지역발전에 메리트가 되는 부분을 이해시키면서 준비부족이나 무모한 지역개발이나 투자를 제어하고 지역발전방향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투어리즘의 역할을 제안한 내용이다.

또 그린투어리즘의 매뉴얼을 체크하는 “지역에 있어서 그린투어리즘 공급분석”, “그린투어리즘의 시장경향에 대한 분석”, “지역의 그린투어리즘의 잠재력분석(강점, 약점, 가능성, 리스크분석)”, “마케팅 어프로치 방법론”, “필드조사”²³⁾, “검토그룹의 코디네이션”등의 내용이 서술되었다.²⁴⁾

<표 3-2> EU의 LEADER 프로그램의 개요

구분	EU의 LEADER 프로그램
	Liasons Entre Actions de Developement de L'Economie Rurale : 농촌경제개발을 위한 행동연대
개요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개발을 위한 지역단위의 민·관 파트너십 강조 - 지역단위 자율적 역량에 의한 농촌지역의 개발 잠재력 향상 - 농촌개발을 위한 지역주민의 노하우 습득 촉진 및 확산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서 주민, 기업, 협회, 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실행단체가 적극 참여 - 융통성 높은 포괄보조금제도를 통한 재정 지원 - 유럽 전체 차원의 농촌개발로 그룹간의 네트워크 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 - 농촌지역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 - 지역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농촌지역 정비 전략 개발 - 유럽의 농촌지역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LEADER+ 프로그램을 수행

23) 필드조사는 지역자원조사를 말한다.

24)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쓰쿠나미서방의 구주연합의 농촌계획정책을 참조바람

3. 선진국의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

3.1 영국

- 영국의 농촌관광 활성화는 다양한 대책을 중심으로 접근
- 경영조언과 컨설팅, 직업훈련과 교육, 자본투자와 보조, 마케팅 지원 4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
- 영국에서 그린투어를 통한 소득창출과 창출효과의 증대 지역이나 마을이미지관리 모든 점을 중시

1) 경영조언 및 평가

현재 농촌관광업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그린투어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농민 및 일반인에게 농촌관광 경영에 관한 조언을 한다. 즉, 현재 농가의 소득측면에서 본 경영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구체적으로 한다. 즉, 어떤 형태의 농촌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소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지를 상담해주는 것에서부터 농민이 고려하고 있는 마케팅 방법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고 있다.

주로 각 지역의 관광협회(Regional Tourist Boards)²⁵⁾에서 담당하며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된다. 각 지역 관광협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관광업자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에 관광업자들이 적극 나서는 것이 이것이 지역관광의 잠재력을 키우며 지역의 일반관광과 그린투어가 테마클러스터를 형성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지역경제기여와 소득창출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다른 기능이 경영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광업자가 지역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 보조금(Grant)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주고 실질적으로 계획서의 작성을 대행해 주기도 한다.

경영평가 지원은 지역 단체의 관련 직원이 2-3일간 현지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경영상태를 체크하며 점검 결과를 농민에게 보고서로 알려준다.

단순히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역시 무상으로 서비스되며, 만약 보조금을 위한 계획서 작성을 도와줄 경우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역단체에서 보조해 준다.

25) 관광협회에서는 일반 제도권관광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에서 하는 그린투어, 어그리투어 등 모든 형태의 지역관광에 대해서 경영지원과 평가를 해 주고 있다.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농민의 자기부담이 일부 있다.

경영평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지역단체들은 지역관광협회,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 전국농민연합(National Farmers' Union: NFU), 교육 및 기업 위원회(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s: TEC) 등이고, 이들은 관련정책비용을 EU나 정부로 부터 지원받고 있다.

2) 직업훈련 및 교육

경영 상담이나 평가 결과 관광업을 경영하는 본인이나 가족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무상으로 각 단체에서 실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나 대학 등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는 관련 비용의 50%를 보조해 준다.

직업훈련은 대부분의 지역단체에서 정책지원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책프로그램에서 직접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3) 자본투자 보조(Capital Grant)

농촌관광 지원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고 대부분의 농민이나 관광업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로, 새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시설물의 개보수에 지원된다. 지역별로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지원 대상, 내용, 지원액이 서로 다르지만, 농민이나 소규모 관광업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액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즉, 중앙정부의 규정)은 사업체당 총 투자액의 50%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통상 25%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출되는 경영계획서 상에서 본인이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본 마련(Matching funding)을 위해서 지역단체들이 자선단체나 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해 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농민이나 소규모 관광업자들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원되는 보조금은 선택된 지원자들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3년 간 분할해서 지원되며, 각각 관련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지급된다.

즉, 일단 사업자가 모든 지출을 먼저 행하고 1년 단위 또는 사업계획의 완료 이후에 후불로 받게 되는 것이다. 자본투자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보조금 없이도 사업계획을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좋거나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도 사업계획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즉,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는 부유층이거나 극히 어려운 소득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조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러한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자본투자보조 정책은 EU 구조기금 정책 중 목표 1과 5b지역에 대한 정책에서 특히 초점을 두었던 사업으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단체들이 본격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형성했던 것은 1994년 이후부터이고, 최근 농촌발전계획에서 농촌기업지원대책(Rural Enterprise Scheme)으로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다.

4) 마케팅 보조(Marketing Grant)

현재 경영하고 있는 관광업체의 선전이나 마케팅 방법에 대한 상담이나 경영조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역의 관광협회나 농장관광협회가 공동으로 팸플릿이나 업체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지원하기도 하고 개별 업체가 독자적인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지원하기도 한다. 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각 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숙박업체에 대한 소개책자이다.

이러한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협회가 정부나 기타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 관광업자에게 일정액을 받고 나머지는 협회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마케팅 방법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경영조언과 유사한 형태로 지원되지만 일시적으로 전문적인 경영인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에서 소요비용의 일정액을 보조해 준다.

위와 같은 4가지 형태의 농촌관광지원 대책은 대부분 지역 정부기관이나 단체들간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때문에 명칭을 비롯한 세부사항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목표 5b 정책의 일환으로 잉글랜드 북동부지역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정책지원사업이 총 150여 개가 넘고 있다.

3.2 프랑스

- 농촌관광초보교육과정은 농업부 산하 400여 개의 기관에서 행함
- 직간접적으로 150여 개 이상의 과정들이 농촌관광을 다룸
- 성인농업관광과정은 3개과정이 있으며 단기과정, 관광개발프로젝트 과정, 특별한 능력취득을 위한 전문과정

1) 인력 교육

일반적인 관광업에 있어서 라인센스는 호텔업 및 식당업 종사자, 여행사 직원, 관광버스 운전사, 가이드, 통역사, 체육 및 문화 활동 강사 등에 대한 교육은 관광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정 교육(과정)을 받고 나면 학위증 또는 자격 증명서가 발급된다.

영어는 거의 필수이며, 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 du Tourisme과 Brevet d'aptitude aux fonctions d'animateur의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며 자주 요구되는 학위이다.

더 나아가 일단 이런 학위를 취득하고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주제에 대한 수업을 받으면서 전문 지식을 넓히는 과정이 별도로 있다.

2) 농업관광 agritouristique 교육

농촌관광업은 관광업의 일 분야로서, 농촌관광초보교육과정은 농업부 산하 400여 개의 기관에서 행해진다. 직간접적으로 150여 개 이상의 과정들이 농촌관광을 다루고 있다.

성인농업관광과정은, 농촌관광의 일 분야로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단기 기초 과정, 더욱 장기간의 관광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과정, 특별한 능력 취득을 위한 전문 과정 등이다.

학위, brevet, 자격 증명서

5개의 등급이 있다.

- 5등급과 4등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자격이 있는 자
- 3등급: 대학에 들어가서 2년 공부
- 2등급: 대학에 들어가서 4년 공부, 학부 마친 정도
- 1등급: 대학에 입학하여 5년 이상 공부한 자

교육부, 문화부, 농업부, 노동부, 청소년 체육부, 내무부 등에서 여러 종류의 관련

학위를 발급하며, 이 이외에 연맹이나 단체들에서 나름의 자격증 또는 학위를 준다.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돈을 받는 관광업 종사자(예를 들면, 체육 강사)는 청소년 체육부에서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러나 자격증에 준하는 실력 및 경력이 인정될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

체육 강사, 직원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는 업소주도 일정 수준의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데, 예를 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뜨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뜨 드 프랑스 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Brevet National de Premiers Secours 와 Brevet dAptitude aux Fonctions dAnimateur 자격을 갖춰야 한다.

관광 가이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국가가 인정한 역사 유적이거나 국가 소유의 박물관 안에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자격은 6등급으로 나뉘짐)만이 가이드를 할 자격이 있다.

수영장, 해변이나 강변에서의 수영 안전 감시 요원에게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물론 무료 수영시설에서는 안전감시요원을 두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사상의 책임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

3.3 독일

- 농촌관광 지도자와 시설물에 대한 강의를 집중
- 농촌관광 지도자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현재 독일 농촌관광 지도자는 대부분 여성
- 교육예산지원은 추진결과와 예산집행서류를 행정기관으로 보내면 정부가 지급

1) 독일의 농촌관광지원 교육

농촌관광 지도자와 시설물에 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한다. 농촌관광 지도자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현재 독일 농촌관광 지도자는 대부분 여성들이다. 이 분야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농업분야 교육을 받은 자이거나 관광분야(주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교육을 추가로 받은 자가 대부분이다.

농촌관광업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일반 규정(위에 언급한 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단지 숙박업소에 대한 평가는 독일관광연맹(DTV)이 독일농업협회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홍보책자나 인터넷 등에 홍보하고 있다.

독일에선 그린투어리즘을 실현하는 농가 민박시설에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시설

면적에 따라 우리 돈으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물론 그냥 주지는 않는다. 사전 교육과 사후 점검을 분명히 한다. 농가정 경영학교에서 그린투어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경영부기와接客방법, 외국인接客방법에 대한 현장 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고 사용결과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한다.

이런 민박시설 보조금 제도는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처방이다. 동시에 향토경관과 지역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이다. 민박 중에서도 장애자전용 시설을 짓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추가적인 세금감면을 해 주고 있다.

독일 정부는 왜 농가민박시설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걸까. 그것은 대규모 전업농, 기업형 농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한 때문이다. 농외소득을 통한 수입원 확보가 독일 농가에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는 농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도·농 교류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와 더 중요한 차이는 교육에 있다. 독일은 지역마다 농업전문학교에서 그린투어리즘을 교육한다. 우리 농민들이 그린투어 강의 한번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나 한국농업전문학교, 국가행정연수원내 농업연수부 등에 강좌가 있지만, 모두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방의 농민들이 이 강의를 들으려면 농사일을 멈추고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의 그린투어 정책에 도시민들이 농촌사랑으로 화답하는 것도 부러운 대목이다. 도시민들은 휴가중 농촌에 1~2주일 머물면서 어린이들에게 자연체험과 전통 먹거리, 승마 등을 체험하게 한다. 그러면서 농촌에 뿌리를 둔 민족의 원류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독일에서 유행하는 구호 '농촌에서 휴가를'은 이런 토양 위에서 꽃피고 있다

독일 해선주립 농업연구소의 슈레더 박사는 "자연경관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는 가운데 도시민과 같은 소득수준 및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 농업정책의 기본목표"라고 말했다.

2) 라벤부르크 가정경영 농업직업학교

독일은 자연환경의 가치와 농촌의 휴양기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목표도

'학생으로 하여금 자연생태계의 필요성과 환경보전적인 농업기술과 농업정책과의 관계를 숙지하고 이를 농업경영에 조화롭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의 농업직업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습중심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과정은 가정경영전문교육, 성인을 위한 세미나,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 수학여행, 도농부녀자를 위한 실무직업교육 등을 가르치고 있다.

3년간의 교육기간 중 1년도는 이론교육을 받으며 주1회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2학년이 되면 직업농장 혹은 가족농장 경영자격이 있는 농장에서 숙식을 하며 주 1회만 학교에 나오게 된다. 3학년이 되면 월 1회 학교에서는 현장질의 사항과 이론교육을 받는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으며 필기 1일 실기2일을 보고 있으며 졸업시험은 스스로 졸업 작품을 만들고 이론시험도 합격해야 졸업 자격을 준다. 졸업시험은 실제 농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를 계산해 시간을 측정한다.

시험에 통과하면 농촌여성가정경영사 자격이 주어지며 병원양로원관리사, 교육지도사가 될 수 있으며 농가에서 그린투어경영도 보조금을 받으며 할 수 있다. 이후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2년을 공부하고 농장경험을 인정받으면 마스터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가) 교육내용과 방법

기본과목은 영양, 조리, 재단, 재봉, 세탁, 주거환경이고 농촌주부로서 필요한 농사 기술, 정원관리, 농가민박 등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중에서도 농촌보모, 노인간병, 민박, 농촌관광에 관계되는接客 등에 대해 교육내용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다.

농가정 경영과에서 산학협력을 받아 월중 프로그램을 작성, 리플렛을 제작해 무료 강습을 한다. 예산지원은 추진결과와 예산집행서류를 행정기관으로 보내면 정부가 지급한다.

3.4 일본

- 그린투어교육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실시
- 도시농산어촌활성화기구는 전국을 커버
- 민간은 전문가과정을 양성
- 민박교육과 인터넷교육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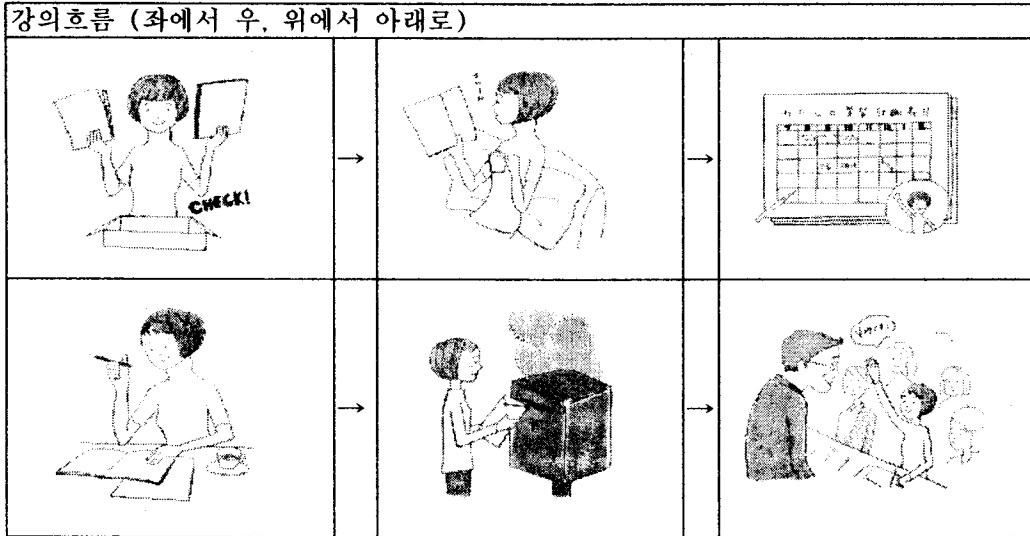
1) 일본 그린투어리즘 전문가양성 사례

<p>전문가 양성강좌 개요 (그린투어리즘 이나 여성 기업 등 분야 리더, 농산어촌 여성 역할 강화)</p>	<p>- 「전문가 양성 강좌」는 적극적인 농산어촌 여성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 강좌임</p> <p>- 강사는 각각 분야의 제일인자로 이 강좌를 위한 텍스트를 쓰고 리포트를 지도하며 강의를 담당</p> <p>- 약 반년간은 자택에서 통신교육으로 배우고 심화학습은 도쿄에서 4일간의 schooling으로 총 마무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함</p> <p>- 전국의 동료와 함께 역량과 네트워킹을 강화시키면서, 미래를 향한 지역발전을 위한 방송통신강좌에 도전해 지역지도자로서 역량강화</p>
---	--

2) 강좌개요 및 내용

강좌소개	내용
1. 그린투어리즘 전문가양성강좌	농가민박 등 그린투어리즘 관련 사업의 개업을 꿈꾸고 있는 지역민
2. 농촌여성기업 전문가양성강좌	보다 고도의 여성기업을 목표로 하는 지도자

3) 강좌의 흐름도와 과정



4) 강의 과정

강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좌의 개강 통지 도착(텍스트·리포트 과제·수강의 안내)수강안내는 텍스트나 리포트 과제에 대한 설명이 게재. -일이나 가정의 스케줄에 맞추어 나름대로 6개월간 자택에서 학습계획을 세움 -학기말에는 전국의 수강생과 함께 schooling을 받으며 많은 동료들과 강사선생과 함께 학습 -리포트를 할 수 있으면 사무국에 우수 강사에 의한 첨삭 지도는 schooling까지 행함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생각 등을 정리 리포트를 작성
수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좌의 수강이 희망되는 분은, 농업개량보급센터를 통해 신청 -강좌를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 증정 -수강료는 28,000엔임

5) 농가민박 전문가 과정

그린투어리즘 농가민박 전문가과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과 같은 농촌에서의 휴가 시스템으로서 발달한 그린투어리즘은 농가민박이나 농촌 식당, 농촌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거, 이벤트 등 많은 내용을 포함 -일본형 농산어촌과 도시 쌍방의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린투어 전문가 과정개설 -이 강좌는 농가민박 등의 개설을 희망하는 농산어촌여성을 대상으로, 노하우를 전수

(가) 통신교육 과정(텍스트로 공부해, 과제 리포트를 써 침삭 지도를 받음(5개월))

통신과정	내용
농림 어업과 농가민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투어리즘과 농가민박 ·농산어촌의 다양한 숙박시설과 농가민박 ·농가민박과 농산어촌의 생활
농가민박 경영 트레이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시에 검토해야 할 포인트 ·농가민박의 서비스 ·농가민박과 농업의 관계
지역의 자연이나 문화를 계승하는 농가민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 환경에 좋은 농가민박을 붙는 ·마음과 생활을 지지하는 문화
계약 등의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민박에 있어서의 숙박 계약 등의 손님 취급 ·고객 관리의 방법
구체적인 설비 내용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의 수속 ·증개축에의 수속
자금 계획과 경영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 계획 ·경영분석상의 필요한 포인트
일본형 농가민박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환경의 정비에 임해 ·집객 대책

(나) schooling으로 배우는 것 강의나 현장 등에서 공부 가능

과정	내용
schooling으로 배우는 것 강의나 현장 등에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투어리즘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과 그린투어리즘 ·강좌 수료생의 사례 발표와 토의, 의견교환 ·그린투어리즘의 구성요소 ·개별 농가민박의 개업의 문제점(토론회) ·농가민박의 상품 계획과 경영 ·농가민박의 시설 계획

(다) 강사소개

강사	내용
카와이 하루키 아르코트 건축설계사무소 주재	농가민박 시설에의 리폼의 방법이나 매력적인 만드는 방법, 건축 확인 신청 등에 관계되는 포인트를, 알기 쉬운 말로 구체적으로 지도
무라카미 카즈오 릿쿄 대학 관광학부 교수	농촌관광에 대해 여성이 농가민박을 경영하는 것은 지금 매우 중요 그 이유와 어떻게 만들어내면 좋은가를 제안
야마자키 히카루 대표강사 심사 메이지 대학 농학부 교수	15년 정도 전부터 독일 등의 그린투어리즘을 연구 그린투어리즘이 농가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강의에서는 농업관광, 농업교육, 농업복지 등을 소개
야마자키 지자 농산어촌 여성생활 활동지원협회 감사	농촌 지역의 다양한 여성 활동과 그린투어리즘의 관련 담론을 소개

(라) 강좌스케줄

일정	내용
7월	강좌를 개강·텍스트 등을 전달 ·텍스트로 배워 리포트 작성
8월	·자기학습
9월	·심화학습
10월	·schooling 공지
11월	·리포트 제출 기한 ·schooling 출석 준비
12월	·schooling 4일간 ·12/2(화)~5(금)

IV.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인력 육성방안

1.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인력 육성의 개선방안
2.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인력 육성의 세부목표 및 대안
3. 2004-6년도 교육목표 및 사업계획
4. 교재개발과 강사선정 계획
5. 지역혁신체제와 연계계획

여 백

IV.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인력 육성방안

1.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의 개선방안

1.1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을 위한 이미지 제고

- 농심을 전달하며 NTC기능과 농촌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
- 이를 위해서는 농촌주민자체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이 요구
- 우수한 인적 자원을 농촌교육훈련기관으로 입학시키고, 양성된 농촌인력이 적절한 농업분야로 진출
- 농촌에 대한 경제, 사회적 비전을 명확히 제시
-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촌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의 경제사회적 비전을 제시

도시민에게 농촌의 이미지는 맑은 공기와 푸른 산 자동차도 없고 그리고 생활폐수도 없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는 긍정적인 곳이다. 또 식물이 어우러진 산과 숲과 그리고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동물들까지 있는 편이어서 아이들한테도 환경교육에 좋다. 또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재배되는 지 그 과정을 보면 모르던 내용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

다른 한편농촌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생활하기 불편한곳,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곳, 의료나 교육, 문화시설이 열악한 곳 등으로 구분되고 황톳길은 쾌청한 날은 좋지만 비 오는 날은 신과 차가 빠져 불편하기 그지없는 곳으로 인식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구감소가 격심한 농촌지역을 과소 지역으로 설정하고 인구정착 기반 구축과 농촌자원 보존 및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른 한편 농업과 연관된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직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농촌부문 유망직종 및 자격을 발굴·공고한다. 현재 이러한 체제 개발이 미흡하기 때문에 농업계 고등학교에서의 농업분야 진로지도에서는 농업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될 뿐, 농촌관련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부문 유망직종 및 자격 분석의 결과는 온라인과 책자를 통해

널리 공유되도록 하며, 농촌부문 유망직종 분석서에는 직업의 특성, 직업환경, 교육 훈련 및 자격, 고용현황, 소득 또는 임금, 구체적인 직업전망, 관련정보처 등이 명시 되도록 한다.

그렇지만 예전이나 오늘날에나 변함이 없는 것은 할머니 품안과 같은 구수한 인심이다. 농심이 농촌 이미지제고의 키워드다.

이러한 농촌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농촌인력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나.

첫째, 어렵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농심을 전달하며 NTC기능과 농촌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주민자체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또 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정책입안자의 이해 증진, 청소년을 위한 교양농촌교육의 활성화, 도시민을 위한 교양농촌교육 활성화, 도시-농촌 교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우수한 인적 자원을 농촌교육훈련기관으로 입학시키고, 양성된 농촌인력이 적절한 농업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경제, 사회적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농촌의 미래상 제시, 성공적인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 홍보, 잠재적 농촌인력의 농촌 교육훈련기관으로의 유인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신지식농업인의 홍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보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셋째,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촌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의 경제사회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겠다. 도시민이 농촌에 유입되는 이유는 경제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어메니티)가 주요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1.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인력의 양성 방안

- 농촌리더의 구조 및 수급분석 체계 확립
- 농촌리더 육성 관련 기관의 역할협조 지원
- 지식기반에 부응하는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
- 수요자 중심의 농촌교육훈련 강화
- 농촌리더 육성기관의 평가체계 확립

1) 농촌인력의 구조 및 수급분석 체계 확립

주기적·체계적으로 농촌인력의 구조를 분석하고, 현재 및 향후 수급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농촌인력의 양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력센서스」와 「농촌인력 특성 연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농촌인력 구조의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농업인력센서스는 전국적인 단위로 실시하는 조사활동(survey)으로, 농업인력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및 특성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며, 실시를 위해서는 ① 현행 「농업총조사」에서 농가인구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② 「농업총조사」 등의 국가에서 수행하는 통계조사활동 내용 속에 「농업인력센서스」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한, 농업인력 특성 연구를 통해 표본(sample)을 구성하여 인적자원으로서의 농촌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인력센서스」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농업인력센서스」의 시기에 맞춰 운영하거나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연구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2) 농촌인력 육성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및 협조지원 체계 구축

농촌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을 분담하고 특성화하며, 관련기관의 협조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농촌인력을 효율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현재 농촌관련 교육이 가능한 기관은 농업연수원, 농업전문학교, 농업기술자협회, 농협, 농업기반공사, 각급대학, 농업기술센터 등 다양하다. 이들 기관이 체계적인 농촌교육을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분리와 협조체제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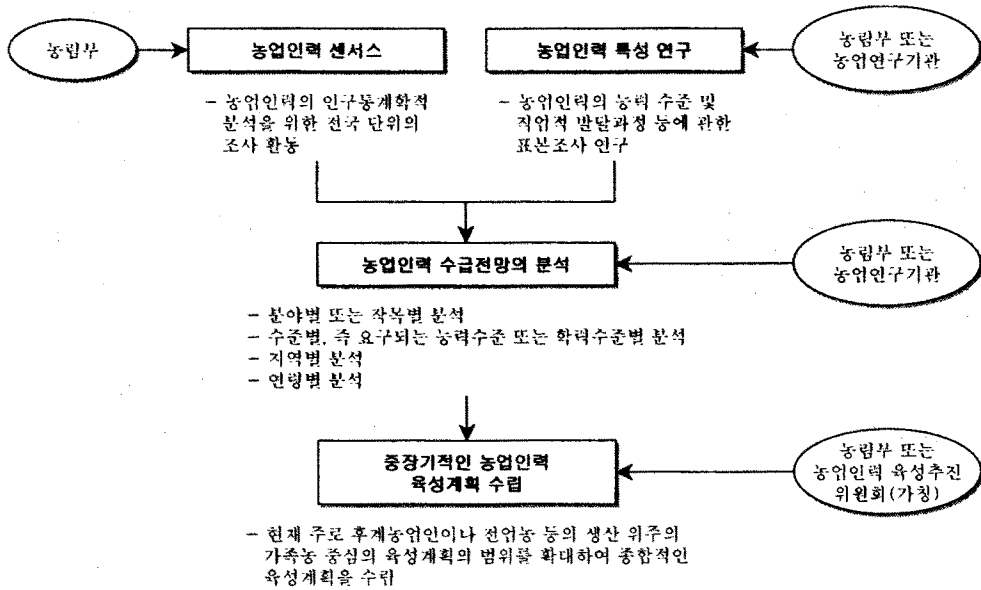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요구되는 농촌인력을 육성하여 이들을 농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농촌인력 육성기관의 역할 분담 및 연계, 농업현장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농업교육과 대학 수준에서의 농업교육을 연계시키는 Tech Prep Program,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전이 프로그램(STOW) 등이 개발되어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도 각 수준별 농업교육 기관 간에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촌인력의 양성을 주관하는 농림부 등의 정부기관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간에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렇듯 농업인력기구간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지역혁신체제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을 활용해 지역권역내에서 대학 수준에서의 교육기관간의 연계, 대학 교육기관과 농촌관련 연구기관간의 연계 등 각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간에 수평적·수직적으로 밀접한 교류와 연계를 통하여 농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표 4-1> 농촌리더 육성의 개선방안

농촌리더의 확보	농업의 이미지제고
	농촌의 제반여건개선
	농촌어메니티 확보와 도시민유치
	농촌의 그린투어실시
	농업관련 유망직종 개발 보급(5차산업)
농촌리더의 양성	농촌리더의 구조와 수요공급 체계 확립
	프로그램오퍼레이터 확보
	창업벤처, 귀농, 실버, 주말농 육성



<그림 4-1> 농촌인력 구조 및 수급예측 체제도

3)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21세기 지식기반과 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질을 갖춘 농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식, 정보, 통합,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한다. 이러한 방법은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농업이 하위산업이 아니라 고차산업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마련이어야 하며 이것을 교육혁신으로 표현해야 한다. 즉, 교육컨설팅을 과감히 변화시키고 교육과 학습방법도 변화시켜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린투어와 지역혁신주체들의 지식기반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개발을 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첫째, 농촌교육훈련 교육내용에 지식기반 농촌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식기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육성모델이 설정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농촌의 전문분야별 능력보다는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기반 농촌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둘째, 농촌현장 중심(work to work)의 농촌교육훈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선진 농업국가의 농업인 재교육 체제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그

중심이 농촌인력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농업생산의 향상뿐만 아니라 농촌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농촌현장 중심의 농촌교육훈련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교육적 요구를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농촌현장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교육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생-교사(강사)-농업경영자”간의 긴밀한 연계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장 적응력이 높은 교수-학습 방법(현장체험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농업연수원 등 중앙교육기관에 의한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현장 전문가를 전문강사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현장감 있는 농업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튜더제, 컨설팅, 카운셀링제 도입)

4) 수요자 중심의 농촌교육훈련 강화

교육훈련 수요자가 필요시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 교육훈련 바우처(voucher)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교육훈련을 정착시킬 수 있다.

교육훈련 바우처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으로써 교육훈련을 이수할 권리를 가진 교육훈련 수요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때 수강료를 대신 지불하겠다는 지불보증전표”를 말한다. 이러한 교육훈련 바우처제도를 농업인 교육훈련에 도입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농업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바우처제는 직주근접(職住近接)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테마별, 소재별 특성화 및 유형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 농업인력 육성기관의 평가체제 확립

농촌인력 육성기관의 평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농촌인력 육성기관에서 양질의 교육활동이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촌인력 육성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농촌인력 육성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

즉, 농업연수원(구 농업연수부)과 농업전문학교 등 중앙단위기관, 도단위, 시군단위를 차별화하고, 적절한 교육체계와 단계별 특성을 평가해야 한다. 또 도단위와 시군 단위에서는 자율적인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이러한 특성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1.3 농촌인력의 신규 진입 유도 방안

- 농촌리더의 유지를 위한 기반 마련
- 현직 농촌리더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의 개선 및 강화
- 도시민의 유치(새컨드하우스)
- 실버영농과 노후 전원생활을 유도
- 마을기획력을 가진 전문인력의 이동지원

1) 성장단계별 진입대책의 체계화

농가의 성장단계에 따른 경영애로를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력육성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신규 농촌인력을 세 가지 성격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육성대책을 펼쳐야 한다. 우선 영농후계자 인력이 유입되는 가장 큰 경로는 정규 농촌 직업교육(농고, 농대) 출신자이다. 이들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핵심영농인력이다.

다음으로, 4-H 회원이나 일반 고등학교의 영농 청소년회 활동회원들로서 진학을 포기한 때 영농을 시작한 영농 4-H회원과 농어촌의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 중 진학을 포기하고 영농에 뜻을 두게 된 학생들이다.

셋째로 도시로부터 또는 이농자가 귀농하여 신규로 영농에 취업하게 되는 소위 U턴 영농참여자에게층이다. 이와 같이 신규 농촌인력을 세 가지의 성격 그룹으로 나누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핵심영농인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룹은 제일의 그룹인 농촌계 학교 졸업생들이다. 그러므로 이들 영농후계자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생애단계별 육성체계와 성장단계별 취농유인 및 진입대책을 강구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 이외의 최근의 트렌드는 실버농이나 웰빙 추세에 편승한 새로운 귀농인구가 있는바 이것에 대한 성향조사와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인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보인다.

둘째, 농가의 발전단계별 경영애로 사항을 감안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미국의 경우 농촌거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크게 가격대책, 소득대책, 재해대책으로 구분하여 각각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FASASA와 BAPSA, 네덜란드의 수출환급제도 등과 같이 각국은 농민의 소득과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농촌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WTO체제속에서 자국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촌인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농촌인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없으며 여성인력, 농업인력, 농촌인력 등 따로 구분해 관리하는 실태로 이는 각각의 인자가 가진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다원성을 가지면서 통합과 지역화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또 지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바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과 자금지원을 연계해야 한다.

<표 4-2> 신규 농촌지도인력의 육성방안

농촌리더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H, 전농, 한농연 - 농업계 학교로의 유인 - 귀농교육훈련기관으로의 유인
농촌리더의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 : 농업계 고교 농업전문대학 농과대학 - 사회교육 :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촌리더의 신규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인 선정지원 - 신규영농창업, 벤처농업지원 - 귀농정착지원
농촌리더의 유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컨설팅 - 농촌리더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전문가의 튜터제, 카운셀링

신규창업농을 대상으로 창업전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영농기반을 갖추기 위한 시설자금과 농지부족을 지원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린투어농가에 대해 사전에 농가관광전문학교에서 약 6개월에서 2년까지 교육을 하며 이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차별화하고 보조금도 준다.

오스트리아와 같이 사전에 점검과 교육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농촌정책에 필요한 주거 확보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규 창업농을 제외한 일반농가에 대한 지원은 종합경영자금제로 통합하여 지속적 투자 지원을 한다. 또한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확대하여 성인 농촌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충하여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한다. 노령가구 및 부업농을 대상으로는 노령가구도 은퇴 후에도 계속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부업농의 안정적 농외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유형별 진입대책의 구체화

도시민 귀농 등 신규 진입을 위한 농촌인력육성 대책은 진입 유형별로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입 유형별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단순농업관련 후계농업인의 선정에서 그린투어와 지역개발 주체와 포함하는 인력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선정하고 있는 후계농업인의 수를 제한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신청자 모두를 수용하여 차별적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농업인으로부터 선정하지 말고 일정 비율을 신규 창업자 혹은 도시귀농인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계농업인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과 농업계 학교 출신자, 4-H 출신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기능요원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자 선발에서 모든 농업계 고등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선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규 창업농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5천명의 40세 미만의 신규 창업농을 육성하며, 현행 2014년까지 14만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10만명 육성 목표로 조정한다.

넷째, 새로운 법인체 설립이나 확대에서 혹은 법인체 지원시 신규 취농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노령 농업인의 자본 투자와 신규 인력의 기술 및 경영 능력 투자로 이루어진 법인체 설립 및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다섯째, 농지의 유동성 현실에 비추어 임대차 취농자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

요하다. 정부가 노령 농업인의 땅을 장기 임대하여 젊은 취농자에게 값싸게 재임대하여 영농 기반이 없는 젊은이도 쉽게 취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도시민의 준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5도2촌에 적합한 취농정책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1.4 기존의 농촌 인력의 육성방안

-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강화
- 지속적 관리 체계 확립
- 노령농 재촌 탈농 및 경양이양지원 시스템의 구축
- 노령자 은퇴 후 생활대책 마련
- 마을에 적합한 오퍼레이터의 마련이 요구

1) 농촌인력의 유지를 위한 기반 마련

농촌인력이 계속적으로 농업직에 종사하면서 지역발전의 역군이 되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운영자금 부족, 경영기술 부족, 자녀교육 및 문화생활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그린투어이므로 농촌개발과 농업이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린투어에 대한 투자유인책이 현실적으로 없는바 시설운영 투융자에 관련한 부분, 교육에 관한 부분, 구성원갈등에 관한 컨설팅,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도 이에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2) 현 농촌인력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의 개선 및 강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영규모와 영농경력 등을 고려한 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개발교육이나 농외소득증대방안으로서 그린투어교육을 하고, 단계별 기술교육 및 경영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혼재되어 있는 농업인교육 및 컨설팅을 발전적인 지역 및 농촌 컨설팅 제도로 점차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컨설팅 추진 시스템을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크게 정부기관(농촌지도조직 담당), 민간조직체(대학 및 연구소, 각종 시민

단체 등), 생산자협업조직체(통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3주체를 축으로 추진하여, 농업, 농촌에 종사와 거주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강화

신규 진입 유형별 사업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사업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교육기관도 중앙, 지자체, 대학, 농업관련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간의 교육과정 조정 등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한, 예비 후계자 확보 사업부터 이후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이 연계되어야 하므로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이전 단계 지원 사업의 수혜자들에게 우선권으로 부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농업인과 농촌이라는 지역 교육 및 훈련체계가 미흡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의 인력구조조정으로 지역 수준에서의 대농민 밀착 교육훈련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공인하는 자격증 제도가 미흡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

4) 지속적 관리 체계 확립

정책 사업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소득보조, 경영체 교육 훈련, 종합자금제 등 농가 단위의 정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관리 시스템인 취농인 등록제가 필요하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가대장(농업기술센터), 농가별 관리카드(농협), 전업농 대장(농업기반공사) 등의 자료 수집 및 이용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의 정의 및 유형 구분을 재정립하는 등 각종 통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5) 노령농 재촌 탈농 및 경양이양지원 시스템의 구축

영농 승계 및 이양계획서 작성농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가족경영협정서'이다. 이를 통해 재촌 탈농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정보의 제공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여가활용 프로그램 등 농촌노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며, 농지 매매에 대한 각종 세제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취농 자녀에게 농지 상속시 상속세를 면제하고, 타인에게 영농 승계를 목적으로 농지 매매시 양도세 감액 등을 지원한다.

근로능력이 부족한 노령 농업인의 생계, 의료, 교육 및 주거 등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노령 농업인의 농외취업이나 부업은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노인들의 수요를 고려하되 특히 농한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거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각종 이벤트사업, 생활환경 정비, 도·농 교류, 지역 정보화 사업 등에서도 노령 농업인을 위한 농외취업이나 부업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령자들은 옛날이야기, 농기구 만들기, 각종 알거리 등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옛 농기구를 활용한 가마니짜기·새끼꼬기·퇴비만들기·농기구의 제작 및 수리나 각종세시풍속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도시민들과 친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친교는 마을의 역사성이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

또한, 귀농한 실버도시민과 노령 농업인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량, 다품목 생산형의 마을단위 실버농장(silver farm)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을 실버농장은 노령농업인들의 공동 영농작업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초·중학생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체험현장이 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 실버농장과 자매의 관계를 맺은 도시의 초·중학교의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밖에, 힘이 부족하거나 실제 영농참여를 거의 하지 않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silver town)을 조성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처분하고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복지 시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령농업인의 진출을 촉진하고 동시에 젊은이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실버타운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전통 농업 테마별 다품종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6) 오퍼레이터의 역할과 한계

마을의 기존 농촌인력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성을 가진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다. 농림부에서는 마을 사무장제도로 이것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을사무장제도 필

요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외지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 대단히 취약하다.

따라서 오퍼레이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점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실제 한드미마을이나 다랭이마을의 경우 귀농자가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주민들과 갈등으로 이들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간 실정이다. 주민들은 이들을 이방인 내지는 외지인으로 바라보며 주민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하려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노하우나 지식을 마을에 쏟아 붓고도 지역내 입지는 외면적으로는 강화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귀농자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마을사람들에서 월급을 받으며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기는 여간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문당리나 신대리와 같이 지역리더의 역량이 훌륭한 지역에서는 잘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도 있다.

결론적으로 오퍼레이터의 실험적 적용은 과일류 사업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가운데 실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또 마을역량이 있는 지역은 오퍼레이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1.5 기타

- 체계적인 “연구-교육-지도”의 연계를 통하여 농촌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
- 산·학·관·연 협조체제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이나 그린투어에 관한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농업인들이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활성화
- www.greentour.or.kr 이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온라인의 일체성을 갖도록 유도
-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농촌관광과 지역역량강화에 대한 공개념 정립

1) 연구-교육-지도의 연계체계 구축

체계적인 “연구-교육-지도”의 연계를 통하여 농촌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관·연 협조체제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이나 그린투어에 관한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연구 컨소시엄”에서는 농민들이 지역경영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 즉, 그린투어를 실

행하는 수단이나 실행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 실행절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지 농민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농업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또는 농업기술센터)과 농학계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컨소시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효율적인 그린투어 지식의 보급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농촌개발관련 지도자들과 그린투어분야 연구자, 그리고 관련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회”의 결성을 촉진한다. “연구회”의 활동을 통하여 농촌지도자들과 연구자, 산업체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농업활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연구회가 참여하는 “농업분야 현장연구제도”를 도입하여 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2) 농촌관광 및 지역교육훈련정보 공유 체계의 확립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농업인들이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활성화해야 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농촌인력의 재교육을 위해 매우 다양한 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즉, 농촌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농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훈련기관에 관한 정보를 얻고, 필요시에는 가장 가까운 농업훈련기관에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On-line) 상에서 영농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여 현재 온라인상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단일화하며, 교육기관, 교육 일정,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린투어관련해서 www.greentour.or.kr이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되고 있으나 다른 유사사이트를 공공에서 자꾸 만들어 집적효과를 떨어트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를 위하여 그린투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이 온라인의 일체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본의 도시농산어촌활성화기구와 같이 재단법인 형태로 반민반관적인 성격의 유연성과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농촌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훈련 정보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며, 교육제공자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을 받은 농업인도 교육정보를 공유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연수원의 역할이 증시된다. 이와 함께, 그린투어 경영교육훈련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제작하여 각급 농촌지도기관, 농업관련단체, 농업교육기관 등에 비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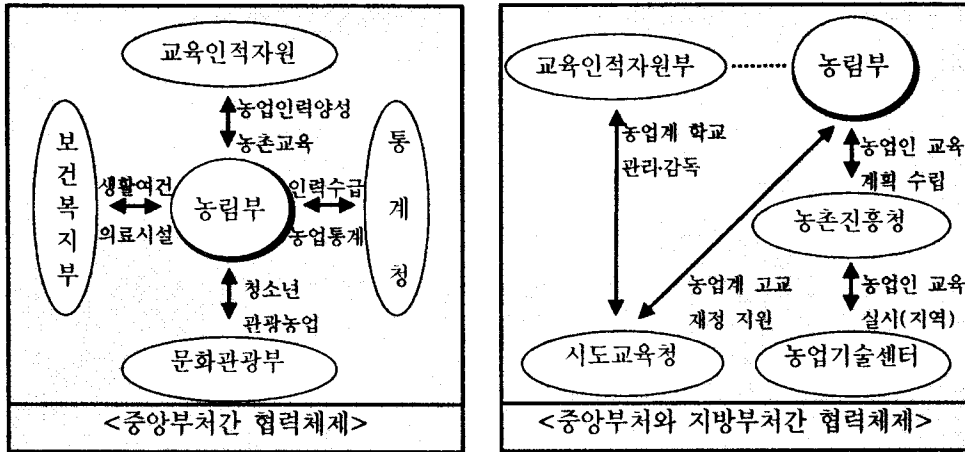
또 중요한 것이 도시민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지식과 농업농촌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불화에 대한 조절기능을 정부차원에서 교육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민관과 공공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3)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학교교육을 통한 농업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림부 주관의 사회교육을 통한 농업교육은 농민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물론 두 부처 및 교육기관의 성격상 그 교육목적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과정상 농업현장과는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진로 측면에 있어서도 두 부처간의 협력은 매우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나라 농업인력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농업계 학교의 정원 조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업인력의 수급 전망과 관련하여 통계청, 농림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농업계 학교의 입학 정원, 교육내용, 교육수준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농림부는 이렇게 양성된 농업인력을 농업분야로 유입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농민교육 및 농업·농민단체 지원 (농림부), 농촌의 생활여건 및 의료시설 등 복지개선 (보건복지부), 학교 농업교육 및 농촌교육 (교육인적자원부), 농업인력 수급 예측 및 농업관련 통계 분석(통계청), 농촌청소년 대책 및 관광농업(문화관광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중앙부처간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된다(<그림 4-2> 참고).



<그림 4-2>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정부차원에서는 지역개발리더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농산어촌체험활성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지난 7월, 5개부처 합동조사에 의해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하여 기관별 역할,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사업추진방향, 대상지역선정, 사후관리, 홍보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도농교류센터 내에 마을지원팀을 구성하여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컨설팅 지원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연합뉴스04.11.1)

이러한 계획에 의해 부처간 협력이 강화돼 농산어촌의 인력이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통합과 분산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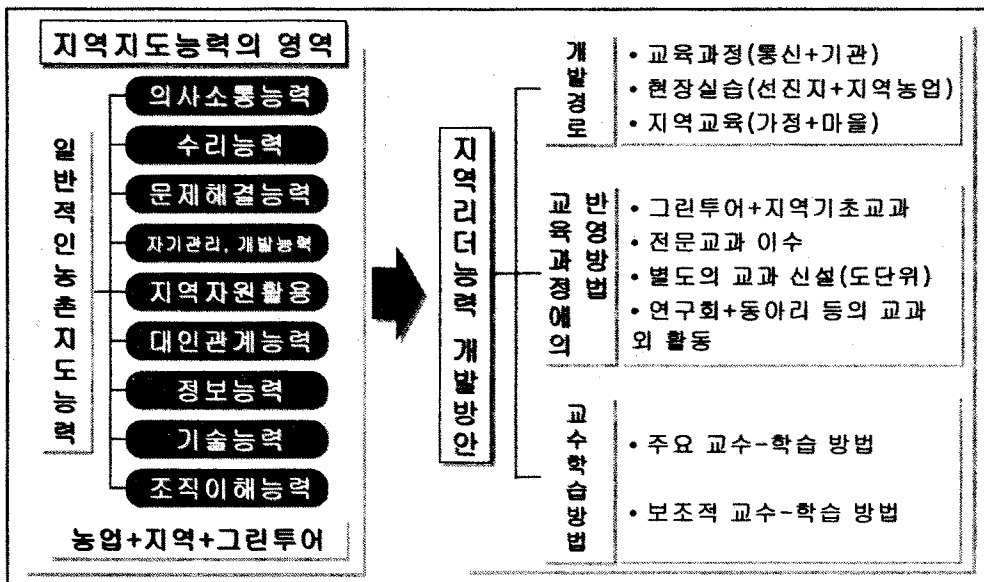
4) 농촌관광과 지역역량강화에 대한 공개념 정립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농촌관광과 지역역량강화에 대한 개념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공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농촌관광에 대한 개념은 농민 개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바라다보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으로는 우리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개념이 될 수 없다. 정부차원에서 지역발전과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공익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것을 실행하는 양주체간의 소통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식화, 국제화, 정보화, 통합화, 지역화, 다원화 등이 진행되면서 농촌과 농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 따라 그 개념과 역할, 가치 등이 변화되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농업의 범위와 대상이 전통적인 농업에 비

해 대단히 넓어졌다. 대부분의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그린투어를 농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며 판단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농정은 이 부분의 중요성을 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농업의 다원성이 중시되는 현대 농업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소품종 대량생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농업의 개념이 새롭게 보다 확대되고, 농촌관광이나 농업기술개발의 중요성 이상으로 농촌교육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정철영 2002, 21세기 농업인력 육성, 서울대)

농촌리더의 지도능력 향상 방안



<그림 4-3> 농촌리더지도력 함양방법

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인력 육성의 세부목표 및 대안

2.1 인재육성 추진목표

-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의 체질개선과 이미지변화를 추진하면서 산업구조변화를 유도
- 전국 마을 수의 1/10 수준인 농민지도자 5천명을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을 선도할 지도자로 육성할 필요성
- 농촌관광수요를 충족하면서 지역에 내재된 농촌관광잠재력을 시스템화하는 것은 무척 중요
- 발전기에서는 도입기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경영과 차별화 지역특성화 브랜딩 등을 교육시킬 필요

1)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인재육성의 범위

전술했듯이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을 공개념을 가지고 주민참여에 의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농민입장에서는 소수의 지도자만이 지역개발에 적극적이며 본인의 소득과 연관된 범위 안에서 지역개발의 의미와 방안을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의 체질개선과 이미지변화를 추진하면서 산업구조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농촌관광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은 도농교류와 이를 통한 상생과 소통의 방법, 농산물직거래, 농촌문화활성화 등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농촌관광과 지역개발교육은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농민이 중심이 되어 농촌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올해부터 정부차원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정부차원만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차원으로 확대·보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력을 농촌관광교육을 시켜야 하나”하는 점이다. 전국의 약 4만5천개의 자연부락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농촌관광교육은 일반 정보화교육 등과 달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를 중점육성하고 이들이 키맨이 되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과 농촌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05-13년까지 전국 마을 수의 1/10 수준인 농민지도자²⁶⁾ 5천명을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을 선도할 지도자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26). 지도자라 함은 농민중에서 자질과 능력이 출중하고 농촌을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013년까지 약 5천명을 육성하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중급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전국은 251개 시군구가 있으며 3,513개 읍면동이 있으며, 92,517개의 통과 법정리, 행정리가 존재한다.

이중 군 단위가 89개소, 읍이 203개, 면이 1,213개이며 통이 56,993개, 법정리가 15,350²⁷⁾ 행정리가 35,524개이다. 이중 약 4만5천여개가 농산어촌적 성격을 지닌 자연마을로 지칭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리와 통 단위에서 지역지도자가 나오기는 어려움이 많으며 복합리 단위에서 나와야 한다.

<표 4-3> 전국의 행정구역

구분	시군구 (251)	읍면동(3,513)			통, 리(92,517)	
		읍203	면1,213	동2,097	통56,993	행정리35,524
전국	군89					

자료)2003년도 통계(법정동과 리는 제외)

다른 한편 농림부에서는 전국의 농촌마을을 1,000개의 권역으로 구분해 농촌을 종합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권역에 3-5명의 자연마을이 있으며 마을당 지도자가 1인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연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가정에 유추해 볼 때 최소 3천에서 5천명의 인원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또한 이들 리더가 원활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매니저가 필요한데 이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도 요구된다. 매니저의 경우는 사무장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나 현실적으로 능력있고 유능한 사무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인재육성의 체계

농촌관광관련 지도인력 육성체계는 향후 10년 동안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관련교육을 시킬 구상이 바람직하다. 특히 농촌관광 도입기에는 약 2천명을 교육시켜 초기 농촌관광활성화와 지역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기 농촌관광수요를 충족하면서 지역에 내재된 농촌관광잠재력을 시스템화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2단계와 3단계에서는 <표4-4>와 같이 약 1천5백명 수준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27) 통과 리 합계에서 법정리 수는 제외

교육은 초기의 도입단계에서는 붐을 조성하고 그린투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성공 사례와 전세계적 추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립기반과 마스터플랜 제작 등을 만들 수 있는 교육형태가 요구된다.

발전기에서는 도입기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경영과 차별화 지역특성화 브랜딩 등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또 성숙기에는 국내만의 경쟁이 아니라 중국시장을 겨냥해 동양의 스위스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농가단위의 특성을 마련하면서 국제적인 서비스로 호텔보다도 좋고 인상 깊은 농촌문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부분에 대해 농촌지도인력이 이해와 관심이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현재의 안은 농촌의 핵심역량을 구축해 지역개발을 전문가 공무원들과 함께 농촌을 변화시킬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 안으로 교육안의 시스템화가 향후 21세기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4> 농촌관광 핵심지도력 5천명 육성 목표('05'13)

단계	연도	교육인원	구분
1단계	2005-2006	2천명	(농촌관광 도입기)
2단계	2007-2009	1천5백명	(농촌관광 발전기)
3단계	2010-2013	1천5백명	(농촌관광 성숙기)

구체적으로 '5-6년까지 공무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교육 시스템적으로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농업기반공사내 도농교류센터에서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기본적인 교육목표와 비전제시에 대해서는 농업연수원에서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5일근무제와 교통의 획기적인 발달과 도농교류의 확대에 따라 농촌관광에 활용할 인력을 구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농촌관광 관련 교육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표 4-5> 교육과정별 교육기관('05'13)

교육과정	교육기관	합 계
초급과정 ·집합교육 ·도시민 농촌체험교육 ·귀농교육	농업기술센터 농업대학, 농협 농기공 도농교류센터, NGO 관련 민간, 언론사 지자체 등	50,000 (입문과정) 농촌형 자연마을당 1인
중급과정 (공무원, 지도자)	한국농업전문학교, 농업연수원 도농교류센터, 농협, 민간	5,000 (지도자과정)
고급과정 공무원전문교육	한국농업전문학교, 민간 농과대학, 농업연수원	500 (핵심지도자과정)
합 계		55,500

<표4-5>에서 보듯이 초급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을 해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내 재생산구조를 만들어 지역의 내발적 발전방향을 지역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내 공공, 반공공(半公共), 민간이 가진 다양한 교육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중급의 경우는 광역시·도나 중앙단위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강사 수급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급의 경우는 전문교육기관은 다수가 존재하나 교육의 질적 문제와 미시행 교육 부분에 대한 새로운 교육시스템 마련 등에 관해 섬세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고급의 경우는 중앙에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과정별 이수나 과목별 이수 등 다양한 편제를 마련하여 학습여건이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인 문제로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일반론적인 것이고 이중에서 혁신역량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다면 어디를 집중 투자할 것인가. 대안으로는 기존의 농촌마을개발사업이 실시된 경험이 있는 360여개의 마을과 농협의 팜스테이 마을 등 모두 400여 곳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향후 농촌개발사업이 집중 투자된다고 가정해도 2005년까지는 모두 500여 마을이 개발될 것이고 이들 마을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개발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2 단계별 추진방향

- 1단계는 2005-2006년(농촌관광 도입기)으로 사업수행기반 구축 및 활용을 목표
- 2단계는 2007-2009년(농촌관광 발전기)으로 사업활성화와 기반조성단계를 목표
- 3단계는 2010-2013년(농촌관광 성숙기)으로 자립화단계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

1단계는 2005-2006년(농촌관광 도입기)으로 사업수행기반 구축 및 활용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 농촌관광관련 농·소·정 협동 인력양성 체계구축, 교육장비 및 시설 도입 및 설치, 도시와 농촌 수요조사(1~3차년), 농촌관광관련 지역혁신 Design 수행 자료수집 및 방안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2단계는 2007-2009년(농촌관광 발전기)으로 사업활성화와 기반조성단계를 목표로 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역별(체계) 특화분야별 기초 및 심화 교과목 운용, 그린투어 관련 Capstone Design 수행 및 기반구축, 농촌과 도시민의 협동교육 수행, 심화된 지역별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등을 실시한다.

<표 4-6> 단계별추진방향

단계	연도	교육과정 설계의 내용
1 단계	2005-2006 <사업수행기반 구축 및 활용> (농촌관광 도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관련 농·소·정 협동 인력양성 체계구축 - 교육장비 및 시설 도입 및 설치 - 인터넷 웹강좌 개발 및 장비구축(2차년) - 도시와 농촌교류교육 수요조사(1~3차년) - 현장특화사업과 고급인력 공동교육사업으로 구분실시 - 외부지원 모델개발(운영방안, 교육프로그램등) - 농촌관광관련 지역혁신 Design 수행 자료수집 및 방안마련 - 농소학협동교육 수행(2~5차년) - 국내외 학자 및 기술자를 활용한 교육기술지원(3차년) - 인터넷 웹강좌 개발 및 강좌실시(3~10차년) - 지역내 선진역량 교육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3~5차년)
2 단계	2007-2009 사업활성화와 기반조성단계 (농촌관광 발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체계) 특화분야별 기초 및 심화 교과목 운용(4~6차년) - 그린투어 관련 Capstone Design 수행 및 기반구축 - 농촌과 도시민의 협동교육 수행 - 심화된 지역별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5~8차년) - Capstone Design 수행 및 관련단체 및 조직체 참여/지원유도 - 국내외 학자 및 기술자를 활용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술 지원 - 마케팅, 지역특화, 지역개발유형 모델마련
3 단계	2010-2013 자립화단계 (농촌관광 성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 협동 인력양성 체계구축완료 - 새로운 지식형 농촌구축체계로 전환 - 인터넷 웹강좌 개발 및 장비구축을 수출 - 신동력형 농촌모델개발 수요조사(8~10차년) - Capstone Design 수행 및 저개발지자체 지원 - 우수도농교류모델 사례홍보 - 교육시스템을 농촌인력양성 사업단으로 기능전환 -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인력양성사업단을 교육자립기반으로 활용 - Capstone Design에서 창의적 공학설계로 전환

3단계는 2010-2013년(농촌관광 성숙기)으로 자립화단계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산·학 협동 인력양성 체계구축완료, 새로운 지식형 농촌구축체계로 전환, 신동력형 농촌모델개발 수요조사, Capstone Design 수행 및 저개발지자체 지원, 우수도농교류모델 사례홍보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이 원활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이 주민들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그린투어 관련농민들이 네트워킹하고 도시와 공생하려는 자세 등도 중요하다.

2.3 세부추진방향

- 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전문화차별화하고, 교육내용을 수준에 따라 선택·활용
-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효과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로 개선
- 그린투어 관련교육의 능력검점, 수준평가, 원격교육 등 기능을 확충
- 교육이나 프로그램운영을 공공보다는 민간이 공공과 협력하여 추진

중급과정을 이수한 5천명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전문화차별화하고, 교육내용을 수준에 따라 선택·활용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을 활용 목적에 따라 개편하고, 내용을 기초·심화전문으로 세분화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4-7> 농촌리더강화의 개요

농촌리더의 개인역량강화							마을역량 강화			인력양성 체계		기타교육	
지도자 공통역량			농촌관광지도역량				리더십	그린투어역량강화	커뮤니티강화	부문교육핵심가치내재화	핵심인력	회의진행	전문강사
			마을일	중점개발가정									
핵심6	중앙	창조	지역/위탁 사이버 OJT	농촌 체험 교육	마을 내 혁신	마을 마 케팅	경영 기획 · 전략 교육	중급리더십 team performance leadership	지역 역신	우수 인력	테마 교육	swot 분석	
집중5	시도	자립											중급리더십 team performance leadership
집중1	시 군 구	혁신											참여와 협동 self leadership
기본3		발전											
기본2	개선												
기본1	참여												
기초	이해	참여 인력	기본 교육	효용중대 마을인식 선진사례									

기관별로 교육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효과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초기에는 기관별로 교육취지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시키고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아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박교육, 농어촌체험지도교육, 농업·농촌가치론 등 기초교육은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의 희망에 따라 분담 실시한다. 또 구체적인 실습이 필요한 부분은

농업기반공사내 도농교류센터와 지역지도자가 상호보완적 관계로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공공,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목적별 특성별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도시민 농촌이해부분은 언론사와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민간과 공공이 상호협력과 경쟁을 하며 농촌관광활성화에 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소득에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과정별 목적과 일치되는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별 주 작목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농업인 대상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반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특히 그린투어 관련교육의 능력점검, 수준평가, 원격교육 등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또 농업기반공사내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에 기본적인 교육장비 지원으로 전문교육 강화해야 한다.²⁸⁾

현실적인 측면에서 도농교류센터를 대체할 기술과 수준을 가진 기관이 없으며 공공과 어느 정도 유연한 기능을 담당할 일본의 농산어촌활성화기구와 같은 성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스스로 혁신하고 주변에서 도와야 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민간부문에서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같은 기관도 적극적으로 농촌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국에 산재한 500여 마을 지도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또 교육을 한다고 지역지도자가 양성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과 자발적으로 농촌개발과 농촌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급적이면 교육이나 프로그램운명을 공공보다는 민간이 공공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공공은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체제를 만드는 방안이다.

28). 도농교류센터의 설립에 대해 필자는 긍정적이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부정적인 측면을 비롯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주론은 중앙통제보다는 지역내 네트워킹이나 공동체성을 강화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조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음

3. 2005-6년도 교육목표 및 사업계획

3.1 추진계획

- 농촌관광과 관련된 현장특화기술과 교육을 연계활용체계구축
- 총 5만여명에 대한 그린투어교육 실시와 이중 우수핵심인력을 고급인력으로 양성
- 농촌관광과 관련된 교육을 위한 장비개발과 시스템확보
- 다양한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인력육성을 위한 강좌개설
- 핵심강좌에 대한 Web 기반강좌 마련과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킹체계지원
- 다양한 세미나와 발전사례,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 홍보와 참여 인식전환을 구축

농촌관광과 관련된 과정별 교육계획은 아래와 같다. 농촌관광부분은 기초교육, 중급교육, 고급교육을 시행하며 중급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농촌내 지도자로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력 육성에 주력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관광과 관련된 주민을 교육시켜 지식·정보화된 고급, 전문 인력으로 전환해 지역리더로 활약하게 하는 주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전문선행 사례와 모델을 개발해 수행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농촌관광과 관련된 농학연 현장특화기술과 교육을 연계활용체계구축
- 총 5만여명에 대한 그린투어교육 실시와 이중 우수핵심인력을 고급인력으로 양성
- 농촌관광과 관련된 교육을 위한 장비개발과 시스템 확보
- 다양한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인력육성을 위한 강좌개설
- 핵심강좌에 대한 Web 기반강좌 마련과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킹체계지원
- www.greentour.or.kr 을 거점 네트워크로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체계구축
- 다양한 세미나와 발전사례,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 홍보와 참여 인식전환을 구축

<표 4-8> 농촌관광교육의 목표

- 농촌관광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 기반 구축
- 지역의 농촌잠재 인력의 재교육을 통하여 기존 농업품목 중심의 농촌관광인력으로 육성
- 지식집약형 소득증대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농민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현장인력 재교육을 통한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
- 산학협력과 지역클러스터 Design을 통하여 지역실무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양성
- 현장 특화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적, 교육적 기반 마련

1) 기초교육

지역개발과 농촌관광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시키고 농촌관광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하는 인재육성' 차원이다. 또 농촌내 새로운 활력을 농민스스로가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농촌체험여행이나 소득증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교육에 있어서는 누구나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교육에 무게를 두어 지역특성을 충실히 반영하게 하며, 재교육 시스템 잘 갖춰 전국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중급교육

농촌과 도시의 교류에 있어서 '중견지도자'로서 농촌활성화와 지역농외소득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은 농림부가 구상하는 농촌지도력을 양성하는 코스로 이 과정의 성공여부가 향후 우리농촌이 후 기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느냐의 관건이 달려 있다.

중급코스는 전술한 농촌지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금석으로 초급코스를 이수한 인력이 개인의 지도력을 뛰어넘어 그룹차원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중급과정에서 지도해야 할 사항은 조직론적인 측면에서 농촌관광의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마을내 조직문화개선도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이 중급지도자를 유사시 마을내 핵심지도자로 만들 수 있다.

- 상급자 위주의 조직구조 개선

잘못된 조직구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일을 스스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비전을 성취하지 못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 마을주민과 중간지도자와의 소통에 관한 교육 훈련 실시

대부분의 최고, 중간지도자들은 마을생활에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 배웠지 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양하는 것이나 합의하는 것은 배우지를 못했다.

- 노력한 만큼 보상해 주는 마을관리 시스템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과 잘 맞아 떨어질 때 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을관리 시스템이 새로운 비전의 성취결과 개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짜여야 한다.

마을에 있어서 중간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교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중간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교육내용

역할	내용
격려	친절하고 따뜻하며 다른 사람의 일을 잘 알아주고 그의 의견을 칭찬해 주며 그리고 그의 공헌을 찬성하고 받아들이는 역할
중재	이견의 차이를 조화시키고 조정하고 타협시키는 역할
창구역할	침묵을 지키는 사람을 발언하게 하거나 발언시간을 조정하여 모든 구성원이 골고루 말할 기회를 주는 역할
기준설정	제목을 결정하는 일, 처리 방법, 행동 규정, 윤리적 가치 등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준을 그룹을 위해 제시하는 역할
추종	그룹을 따르고 수동적으로 회원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 입장에서 청취하는 역할
긴장완화	유우머로서 불유쾌한 감정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

3) 고급(전문)교육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지역가꾸기 등의 핵심지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교육하며 스스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마을을 특성화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 도시민교육: 도시와 농촌의 상생방안과 더불어 농촌과 자연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주5일제를 맞이하여 건전한 삶의 질 향상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귀농교육, 농촌체험교육, 은퇴자교육 등) 특히, 도시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농촌체험교육이나 귀농예정자들에 대한 농촌교육은 현재 민간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공공차원에서 이제는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²⁹⁾

마을내 최고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은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피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문교육과정에서는 조직문화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시켜야 한다.

선진마을의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을 분석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리더십을 개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리더십 개발 면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마을들은 리더십 필요성의 자각(Awareness), 미래에 대한 기대(Anticipation), 실행(Action), 마을내 타 기능과의 조화(Alignment), 사후 평가(Assessment)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 리더십 개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나 것을 지도자들에게 교육과 신념으로 심어 주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권한을 계속 독차지 하려는 핵심지도자의 소양교육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은 기술교육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교육: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주체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마련과 농민교육을 통한 행정의 서비스 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이 꼭 필요하다. 공무원교육에 있어 공무원들이 부족한 자발성과 상상력, 창의력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며 실제 현장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제를 활용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표 4-10> 농촌관광 교육계획과 구분('05'06)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초급과정	·집합교육 ·도시민 농촌체험교육 ·귀농교육	농민, 지도자, 농촌담당공무원, 농촌체험희망자, 귀농희망자, 도시은퇴자
중급과정	·공무원, 지도자	초급과정 이수자
고급과정 공무원전문교육	·지역전략지도자 육성	중급과정 이수자

29). 귀농교육은 전국귀농운동본부나 실상사귀농학교 등에서 IMF이후 적극적으로 실시되었으나 현재는 귀농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귀농의 구체적인 부분을 학습을 통해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아 소강상태로 보인다.

3.2 농촌관광 교육계획 총괄

- 농촌관광 총괄계획은 구체적인 교육과정, 교과, 교육인원, 교육대상, 교육회수, 교육방법 등에 대해 서술
- 각 교육기관의 여건분석을 통해 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강사 확보 교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검토가 사전에 검토
- 기초과정은 대중성에 중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실시
- 중급과정은 실무능력향상과 증진지도력향상
- 지역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계획이론을 가지고 지역에 적합한 농촌개발을 적용
- 고급과정은 지역을 개발하는 핵심지도역량강화
- 도시민은 도농녹색교류의 임를 이해하고 건전한 농촌서포터스로 육성
- 공무원교육은 실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교육실시

1) 농촌관광 기초과정

지역 혹은 인근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합과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교육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육회수는 과정당 연간 한 도(道)에서 1-5회 내외를 하도록 하며 현실적으로 농업기반공사내 도농교류센터에서 해당 시군구와 상의해 지역권역을 포괄하는 교육수요를 발굴해 교육지침을 시달하도록 한다.³⁰⁾

강사수급은 도별로 필요인원을 선발해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의 교육인원과 교육계획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원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먼저 2004년과 2006년까지는 현행 농업기반공사, 농촌지도사, 지역전문인력중 희망자에게 특별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이들이 지역에서 농촌관광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하며 기초교육 강사는 복합시군교육을 실시한다면 약 500인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30). 도단위 지역이 면적에 따라 크기가 다르나 도내 지역권을 포괄하는 지역을 선정한다면 귀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도청소재지와 2위-3위 도시에서 교육시킨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표 4-11> 농촌관광 기초과정 교육계획

과 정	구 분		강사 수급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 사항				
기 초 교 육	농업인 녹색관광	• 지도자 농민 • 지도· 연구직 공무원 • 생활개선 공무원 • 교육기간 2-4일 • 교육 귀가를 원칙	가능	①②③④⑤⑦	그린투어 전반에 대한 개론 강의
	도농 녹색교류론		가능	①②③④⑤⑦	도시와 농촌의 주체간의 교류의 필요성 강의
	민박경영론		보완	①②③④⑤⑦	민박을 하기 위한 기초 매뉴얼 소개
	지역활성화론		가능	①②④⑤⑦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개론서
	농촌환경계획		가능	①②③④⑤⑦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가꾸는 지침서
	여성 지도자		가능	①③④⑤⑦	유럽과 같이 여성 그린투어리더 육성
	지역자원 활성화		가능	①②③④⑤⑦	마을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소개, 개발, 육성
	농촌관광마케팅론		가능	②③④⑤⑦	마을을 홍보하고 도시민과 잘 교류하는 방법
	농촌관광외국사례		보완	①②③④⑤⑦	외국의 그린투어에 대해 이론과 사례를 시각교육
	기초 조경과 경관		가능	①②③④⑤⑦	마을을 꾸미는 기본원칙에 대해 강의
	우수사례견학론		가능	①②③④⑤⑦	선진지견학과 주민과의 대화를 함(숙박)
리더십과 회의 진행론	가능	①③④⑤⑦	마을회의 참여와 민주적 진행법 강의		

* : 민박경영자 교육은 다시 농촌관광인력경영자 반, 개업기초반, 경험자반으로 나눔
 ①농업기술센터②농과대학③농협④농기공 도농교류센터⑤민간⑥언론사⑦지자체
 ⑧농업전문학교⑨농업업수원⑩전문교육기관⑪초중고

즉, 전국을 커버하는 100개소× 5인(농촌관광기초, 민박기초, 조경 및 경관기초, 마
 케팅기초, 마을계획기초)이 소요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서울과 각 도별로 각각
 50인 정도의 강사가 필요하다. 이중 농과대학이 있는 국립대학을 활용한다면 초기

고급 수준의 강사인력확보는 가능하지만 보다 효율을 높이려면 농업기반공사나 농협, 농촌지도사, 농고교사 등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들 농민교육을 전담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농업전문학교내 농촌관광학과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이들로 하여금 농촌관광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안이 현실적이다.

전문기관이 수개소가 있어 각각 동일교육을 한다면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바 이를 조정할 조정역할을 도농교류센터가 하며 가급적 교육을 선택과 집중과정을 거쳐 다양성확보와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는바 시민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농촌관광이 국민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 분담분업체계를 형성한다면 교육효과나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중급과정

중급과정은 농촌의 지도자양성을 목표로 해서 다양하고 전략적인 과목을 교육시켜 주체적인 농촌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점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급교육은 각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급과정을 어느 정도 이수해야 지역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은 좀더 연구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소득향상에 관해 교육시키면서 농촌의 농외소득 향상에 대해 교육시키고 농촌에서 농민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개발에 관해서는 농촌계획의 실재를 교육시켜 지역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계획이론을 가지고 지역에 적합한 농촌개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교육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중급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는 우리사회가 농촌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에 소홀히 한 점이다. 과거 새마을 운동식의 하향식교육은 많이 있었으나 조인트섹터방식이나 상향식교육 혹은 이러한 교육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은 그다지 많은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강사들도 이러한 부분에 신경 써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강사들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 수급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강사수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도별로 대학과 연계해 전문교수를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표 4-12> 농촌관광 중급(심화과정) 연차계획

과 정	구 분	교육 사항	강사 수급	교육기관	교육내용			
중 급 심 화 교 육					지역마스터 플랜만들기	보완 ②③④⑤⑧⑨	지역을 주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가상훈련	
					농촌관광시설론	보완 ②④⑤⑧⑨	대표적인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이해와 실태파악	
					지역브랜드개론	보완 ②③④⑤⑧⑨	지역브랜드 네이밍과 필요성을 교육하고 지역브랜드를 만들	
					농촌관광 창업경영론	· 지도자 · 농민	가능 ②③④⑤⑧⑨	농촌관광을 시작과 운영할 때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
					지역테마론		가능 ②④⑤⑧⑨	지역발전주제를 특성을 고려해 선정하게 하는 훈련을 실시
					농촌관광 지도자 포럼	· 지 도 · 연구직 · 공무원	가능 ②③④⑤⑧⑨	농촌관광 갈등과 마을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
					팜스테이경영		가능 ②③⑤⑧⑨	농가민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구성
					마을리더론	· 생활개 · 선공무원	가능 ②③④⑤⑧⑨	마을에 있어서 중간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학습
					지역관광 컨설팅론	· 교육기 · 간3-5일	보완 ②③④⑤⑧⑨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제와 대안을 교육
					특산품개발론		보완 ②③④⑤⑧⑨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산품개발, 마케팅, 판매까지 과정을 학습
					체험프로그램 개발	· 교육은 · 합숙 생활 · 원칙	보완 ②③⑤⑧⑨	도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사례고찰
					주말농원론		가능 ②③④⑤⑧⑨	주말농원을 개설, 운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문제점에 대해 검토
					음식점 경영론		가능 ②③⑤⑧⑨	농가밥상 차리기에서 음식점경영까지 필수요소설명
					지역경관만들기		보완 ②③④⑤⑧⑨	지역전문가가 되기 위한 경관구성과 필요사항 학습
지역축제만들기		보완 ②③④⑤⑧⑨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만들기 실무강의					

①농업기술센터②농과대학③농협④농기공 도농교류센터⑤민간⑥언론사

⑦지자체⑧농업전문학교⑨농업업수원⑩전문교육기관⑪초중고

3) 고급전문가과정

고급전문가과정은 예상프로그램으로 사업 시행 시 수강생 설문과 전략과목을 선정해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급과정은 2006년도부터 개설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기초, 중급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순환된 후 고급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1차년 도에는 교육내용을 줄여 대중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3차 년도부터 정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연도인 2006년부터는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이 교육을 전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농업전문학교에서 고급과정을 설치해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농촌관광학과설치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전문과정에서 최소 24주 중급포함 24과정 이상을 이수하면 전문가과정 인증서를 수여하는 바람직하다. 농업전문학교이외 농업기반공사의 도농교류센터나 농과대학, 민간 등에서도 최고과정인 고급과정을 개설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방하는 것이 경쟁력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표 4-13> 농촌관광 고급(전문가과정)계획

과 정	구 분	교육 사항	강사 수급	교육기관	교육내용
고급 교육	마을 리조트론	• 지도자 농민 • 지도 연구직 공무원 • 생활개 선공무원 • 교육기 간3-5일 • 교육은 합숙생활 을 원칙	보완	②⑤⑧⑨⑩	펜션 등 고급시설을 구상하고 계획해 지역을 특화시키는 내용
	마을환경가꾸기		보완	②⑤⑧⑨⑩	지속가능한 마을환경가꾸기의 실무
	관광여가행태론		보완	②⑤⑧⑨⑩	도시민과 친교하며 감동과 만족을 느끼게 여가이론을 학습
	지역특성화특론		보완	②⑧⑨⑩	지역특성화의 최고과정
	지역설계 및 디자인론		가능	②⑤⑧⑨⑩	지역디자인의 이론과 선진사례특성을 지역에 반영
	그린 어메니티론		가능	②⑤⑧⑨⑩	어메니티의 이론과 실제마을 적용 연구
	농촌관련법연구		가능	②⑤⑧⑨⑩	농촌계획과정에 나타나는 법률에 대해 학습
	지역마스터 플랜설계		보완	②⑤⑧⑨⑩	학습자들이 마을 마스터플랜에 대해 소개 작성 공동컨설팅을 함
	지역컨설팅특론		보완	②⑤⑧⑨⑩	학습자들이지역컨설팅에 대해 소개 작성 공동컨설팅을 함
전문 인력 육성	지역컨설팅트	보완	②⑤⑧⑨⑩	지역전문가양성 과정	
	역사문화해설사	가능	②④⑤	문광부의 역사문화해설사 과정	
	레크레이션지도	가능	①②③④⑤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교육	
	지역홍보사	보완	②③④⑤⑦	지역자원과 특성을 홍보하는 과정	
	숲해설가	가능	②④⑤⑩	마을 숲의 특성에 대해 홍보(산림청)	
	생태관광해설가	가능	②⑤⑩	생태관광에 대해 해설	
	체험활동지도사	가능	①②⑤⑩	다양한 농촌체험에 대해 지도	
조 직 론	최고지도자론	가능	②⑤⑦⑧⑩	마을최고지도자의 덕목과 역할교육	
	마을자치론	가능	②⑤⑦⑧⑩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	
	갈등조정론	보완	②⑤⑦⑧⑩	마을내외의 갈등이나 분쟁조정 에 관한 사례학습	

- ①농업기술센터②농과대학③농협④농기공 도농교류센터⑤민간⑥언론사
⑦지자체⑧농업전문학교⑨농업업수원⑩전문교육기관⑪초중고

4) 도시민과정

도시민교육은 크게 3개 과정으로 나누며 첫째, 시민 농촌이해로 농산물 고르기나 기초정보, 교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시킨다.

<표 4-14> 농촌관광 도시민과정 계획

과 정	구 분	교육 대상	강사 수급	교육기관	교육 방법
도시민 기초 교육	기초 농촌체험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노인 • 어린이·유치원 • 학생 • 교육기간 1-5일 • 교육은 귀가를 원칙 농촌체험 농가 숙박 	가능	②③④⑤⑥	그린투어의 기초와 매너에 대해 강의
	소비자 생산 현장체험		가능	①③⑤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소개와 체험
	농촌문화 체험		가능	①③④⑤⑥	농촌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기초교육
	도시민 체험프로그램		가능	①③⑤⑥	도시민들이 할 체험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좋은 먹거리 고르기		가능	①③④⑤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먹거리와 국산소개
	산채 약초채취		가능	①③④⑤	산초와 약초에 대해 소개하고 채취방법 소개
	농산어촌매력 배우기		가능	①③④⑤⑥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어메니티 소개
	베스트 농촌체험관광지		가능	③⑤⑥	대표적인 농산어촌의 마을에 대해 소개
	귀농기초론		가능	①③④⑤⑥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귀농시 고려사항소개
	은퇴자 귀농		가능	③④⑤⑥	은퇴한 후 귀농을 고려할 도시민들에게 방법소개
	자연 탐방		가능	②③⑤⑥	트래킹요법에 대해 소개하고 자연에대한 주의사항 소개
	농민과 대화하기		가능	①③⑤⑥⑪	농민지도자들과 도시민이 대화하고 이해의 폭을 넓힘
	유치원 자연체험학습		가능	⑪	유치원생들의 농촌체험
	청소년 생산현장체험		가능	⑤⑪	중고생들의 농촌체험학습
초중 「도농체험학습」	가능	⑪	초중생들의 농촌체험놀이		
방학중 농촌현장체험	가능	⑪	방학중 농가숙박을 통해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①농업기술센터②농과대학③농협④농기공 도농교류센터⑤민간⑥언론사

⑦지자체⑧농업전문학교⑨농업업수원⑩전문교육기관⑪유초중고

둘째, 귀농대상자교육으로 귀농을 원하거나 은퇴 후 귀농을 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교육한다. 셋째, 도시학생 농촌체험교육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촌이해와 도농상생방안에 대해 교육한다. 도시민과정은 앞으로 도농교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도시와 농촌의 공생공영방향을 주지시키면서 농촌의 협력지역활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귀중한 활로이다. 따라서 도시민교육에 적극 매진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도시민 교육과정은 농촌의 지역지도자를 육성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 이들의 역할이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도농교류를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93%가 되는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비교역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먼저 귀농대상자들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이들이 농촌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마련이 요구된다.

이후 이들이 정착한 다음 주민들과 친교하고 경제적인 활동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그들의 에너지를 부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교육만으로는 역부족이다.

5) 공무원교육

공무원교육은 중앙의 국가행정연수원이나 한국농업전문학교 등을 활용해 교육한다. 민간의 다양성을 활용한 교육방법도 부분적으로는 학습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농업연수원의 교육기능활성화가 요구된다.

올 1월 참여정부 농업·농촌 정책 지원을 목표로 과정운명을 새롭게 해 농정기본방향인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전국의 농림공직자 공통과목으로 지정 교과목 편성했다. 또 공모방식에 의한 교육생 모집 및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교육비 부담 등으로 교육의 자발적 참여 유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교육과목, 시기 등을 파악 맞춤형교육 실시로 연간계획 72개과정 5,703명 → 실적 81개과정 7,257명(127%)으로 초과 달성했다. 주요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5> 2004년 농업연수원의 교육개요

교육구분	대표강좌	강좌수	교육인원
전문교육	종합농정반, 농업행정실무자반 등	58개과정	3,195명
민간교육	여성농업인교관반, 어린이농업교실반 등	14개과정	1,782명
특별교육	창업후계농업인반, 최고농업경영자반 등	9개과정	2,280명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농업연수원은 다음사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전문역량을 갖춘 농업 인적자원의 개발, 양성 기능 미흡하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의 창의성 및 자발적 참여가 저하된다. 또 교육수료생 사후관리체계 미비로 교육의 파급효과 거양 미흡하고 교육시설의 낙후, 재정투자 부족으로 수요자 만족 교육 실현에 한계가 있다.

교육훈련 중요성 인식부족 및 연수부조직의 이원적 운영에 의해 인사, 예산 등 조직운영에서 교육훈련부문의 관심 소홀과 우수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교육발전의 지속적 추진에 애로가 있다

따라서 세계화, 개방화에 따라 농업분야도 변화와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어 새로운 농정의 이념·비전·가치공유가 필요하고 지식 정보화시대 도래에 의한 농업의 지식산업화 촉진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이 시급하며 시민사회의 성장과 소비에 적합한 국가중추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표 4-16> 농촌관광 공무원교육 계획

과 정	구 분	교 육 사항	강사 수급	교육기관	교 육 방법
공 무 원 교 육	농업관광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연구직 공무원 • 생활개선훈공무원 • 교육기간 3-5일 • 교육합숙원칙 	보완	⑤⑧⑨⑩	농업과 먹거리에 관련된 관광자원 발굴
	농촌체험프로 개발		가능	⑤⑧⑨⑩	지역현실에 적합한 농촌체험프로그램개발과 작성
	경관계획론		가능	⑤⑧⑨⑩	농촌경관을 계획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한 학습
	민간조직 활성화론		보완	⑤⑧⑨⑩	마을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학습
	관련 법, 제도이해		가능	⑤⑧⑨⑩	그린투어에 관련된 법과 제도 지원사항에 대한 학습
	농촌관광 홍보		가능	⑤⑧⑨⑩	농촌관광 마케팅과 홍보방안에 대해 학습
	주민참여론		가능	⑤⑧⑨⑩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학습
	도시민이해		가능	⑤⑧⑨⑩	농촌체험을 하려는 도시민들의 생각과 흥미에 대해 학습
	농촌리더십 개발		가능	⑤⑧⑨⑩	마을의 리더와 주민의 관계를 고찰하고 자발적인 리더육성
	지역관광개발론		가능	⑤⑧⑨⑩	지역의 간광과 농촌체험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
	관광농업전문인양성		가능	⑤⑧⑨⑩	농촌체험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공무원의 역할 교육
	농촌관광시스템지원		가능	⑤⑧⑨⑩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토와 학습
	농가민박사업육성		가능	⑤⑧⑨⑩	농가민박을 육성해 농외소득증진에 관한 방안
	마을가꾸기		가능	⑤⑧⑨⑩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을가꾸기 실무학습

①농업기술센터②농과대학③농협④농기공. 도농교류센터⑤민간⑥언론사

⑦지자체⑧농업전문학교⑨농업업수원⑩전문교육기관⑪초중고

3.3 교육대상자 선발

- 각 과정별 교육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대상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농촌관광에 관심이 있거나 민박을 운영중인자
- 마을지도자이거나 지도력이 있는자중 그린투어를 할 예정자
- 도농녹색교류에 실적이 있는 핵심지도자

1) 선발원칙

교육대상자 선발기관은 농림부 교육계획에 의거 각 과정별 교육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대상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교육대상자 선발시에는 피교육자의 업무형편, 가정사정, 퇴직예정, 교육기간 중 결혼예정, 임신후반기, 수유,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등록 또는 교육이 수 중 퇴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교육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별, 시군별 교육대상 인원배정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수요조사에 의해 각급 기관별 전산교육훈련 교육대상자 배정은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교육훈련계획서 작성시 반영한다.

- 농촌관광 교육훈련 수요조사
- 행정기관의 연도별 교육인원 계획
- 전년도 교육이수실적
- 그린투어관련업무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
- 선발대상자는 농촌관광에 관심이 있는 자
- 농가민박경영자
- 마을지도자이거나 지도력이 있는 자
- 주변에서 마을민박이나 농촌관광에 대해 추천하는 자
- 농촌관광관련 공무원
- 도농녹색교류에 관심이 있는 자
- 귀농예정자 혹은 희망자

<표 4-17> 교육선발의 기준

선발대상	내용	비고	
농 어 민	기초과정	농촌관광에 관심이 있거나 민박을 운영중인자	지역추천자 실무자 등 우선적 교육
	중급과정	마을지도자이거나 지도력이 있는자중 그린투어를 할 예정자	
	고급과정	도농녹색교류에 실적이 있는 핵심지도자	
도시민과정	도농교류와 귀농에 관심과 참여의사가 있는 도시민이나 학생		
공무원과정	도농교류업무에 종사하거나 필요한 자		

전술한 바와 같이 가급적 500개 마을중심으로 선발하되 다른 마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는 경우 이들을 적극 활용한다.

도시민들의 경우 귀농동기에 대해 구체적인 청취와 농촌의 연고, 합리성, 추진성, 향후계획, 예상마을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성있는 지원과 교육이 요구되나 현실반영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하는 점에서는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하겠다.

2) 선발절차

공공교육은 매 과정별로 교육개시 40일전에 해당기관의 교육대상인원을 통보하여 교육대상자 추천을 요구한다. 각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명단은 교육개시 최소 2주 전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초급의 경우도 지역인근에 정확한 교육장소와 프로그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장은 피교육자 선발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개시 3일전까지 즉시 전화통보 후 FAX 및 서면으로 추후 통보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유서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발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3) 구체적 선발절차

초급과정과 도시민과정은 1)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농민과 도시민으로 도농교류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자
- 교육생의 경력 및 적성 등이 훈련과정에 적합한 경우
- 교육생이 훈련수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대상자는 모든 강좌는 개방되어 있으며 필요시 복수수강도 가능하다.

또 교육생이 다음의 각호의 경우는 수강을 제한 할 수 있다.

- 중도탈락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교육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또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자
- 허위출석 등으로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미경과 된 자
- 기타 교육기관장이 훈련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교육대상자 수료는 전 훈련과정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해야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초급과 도시민과정은 출석으로 수료증을 발급하고 중, 고급, 공무원 과정은 출석과 시험, 실습 등을 종합해 수료증을 발급한다.

4. 구체적인 단기 실행교육계획

4.1 교육시행기관 및 교육인원

- 2013년까지 장기 목표아래 실시함을 원칙으로 1단계에서는 농촌관광도입에 중점을 두며 2004년-2006년에 실시
- 기초과정은 연 5천명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며 각 기관의 현행교육체계를 활용하여 교육을 추진함을 원칙

1) 교육 실시와 운영

2013년까지의 장기 목표아래 실시함을 원칙으로 1단계에서는 농촌관광도입에 중점을 두며 2004년-2006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교육은 중앙연수기관을 활용해서 실시하지만 지역의 기초교육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농민기초교육과 도시민교육은 지역권을 활용하여 교육하며 지역기관과 민간시민단체, 언론기관을 적극 활용하며 중, 고급 교육과정은 중앙연수기관을 활용하며 전문적인 강좌특성에 적합한 강사선정과 철저한 교육점검을 통해 지역지도자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운영방안으로는 현장, 사례중심으로 교육이수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교육시스템정비를 위해 기존 교육내용 가운데 전환가능 프로그램을 흡수해 농촌교육으로 활용한다.

현재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변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약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 프로그램 전환이 요구된다.

2) 교육시행기관

기초과정은 연 5천명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며 각 기관의 현행교육체계를 활용하여 교육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급과정은 2005년부터 각 지역의 한국농업전문학교와 관련 전문기관이 교육을 추진한다. 고급과정은 2005년부터 한국농업전문학교내 설치운영 하도록 한다.

3) 교육인원

기초과정은 연 5천명 수준 교육 실시하며 각 기관의 현행교육체계를 활용 교육한

다. 교육시스템과 교육체계는 농업기반공사의 도농교류센터와 협의해 결정한다.

기초과정 교육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각 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내용과 강사구성, 교재준비 등이 구체적인 실행계획 속에서 나와야 하나 아직 기관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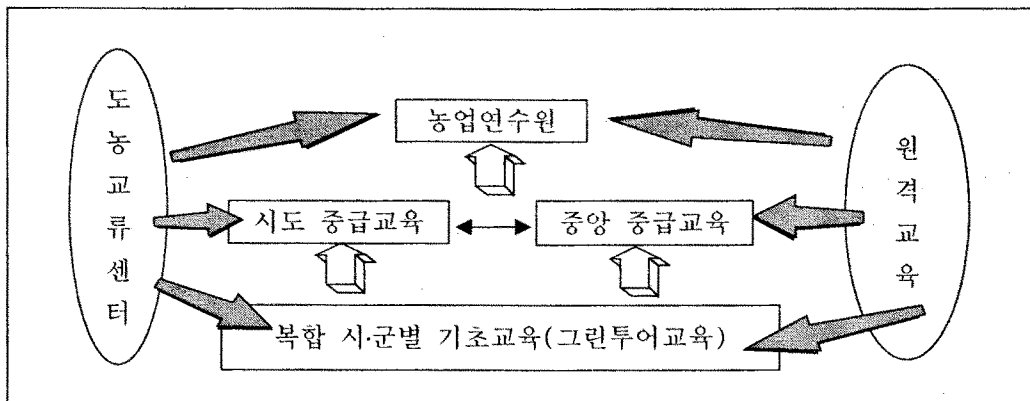
4.2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교육의 내실화

- 전문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지도력강화와 지역역량을 주민과 더불어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발적 발전방향을 도출
- 교육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반영
- 공무원과 고급대상자는 관련 전문교육과정은 평가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유지
- 합리적인 농촌관광 계획의 수립과 교육생 선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1) 전문교육의 내실화

전문교육내실화를 위해 실시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충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기초교육 : 농촌관광활성화와 도농교류를 위한 기초지식 습득과정
- 중급교육 : 농촌관광의 적극적인 이해와 농촌내 적용 및 소득증대 향상
- 고급교육 : 농촌지도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새로운 농촌지도자로서 역할강화
- 도시민교육 : 농촌을 이해하고 도농교류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귀농 촉진
- 공무원교육 : 농촌관광분야의 이해와 농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질을 강화



<그림 4-4> 교육과정 구성도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농촌관광 업무를 고려한 과정개발 및 지도자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지역지도자로서 지도력강화와 지역역량을 주민과 더불어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발적 발전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시킴으로서 도농상생과 농업, 농촌, 농민의 역량강화를 해야 한다.

2) 농촌관광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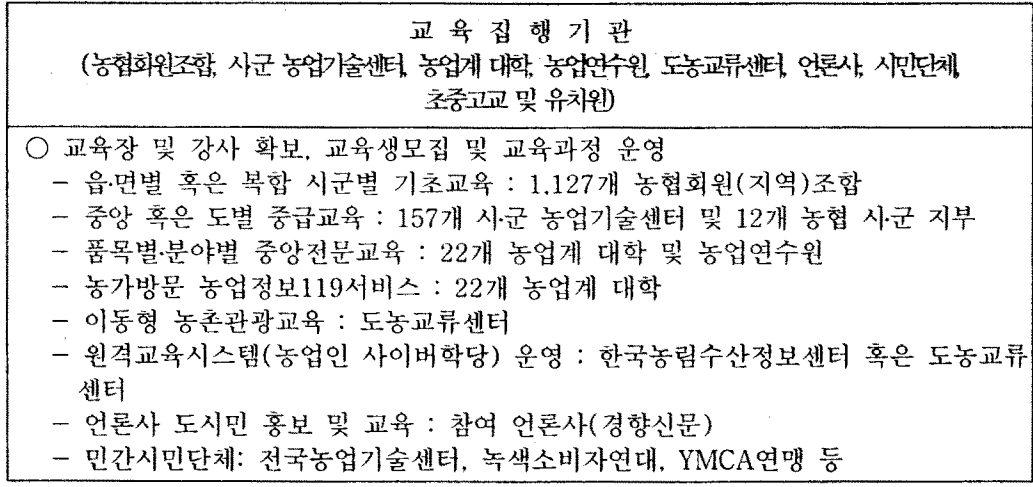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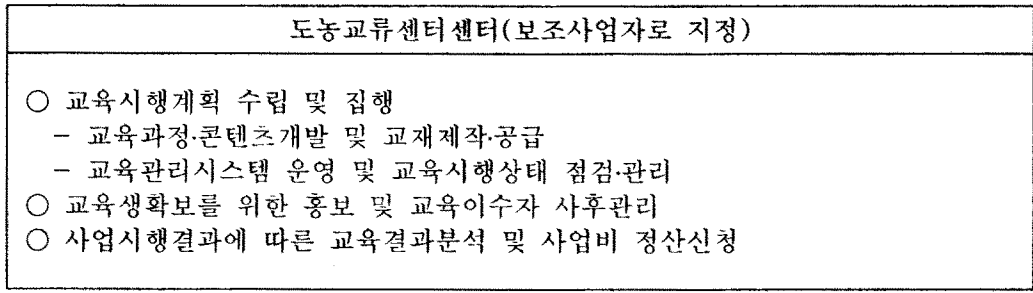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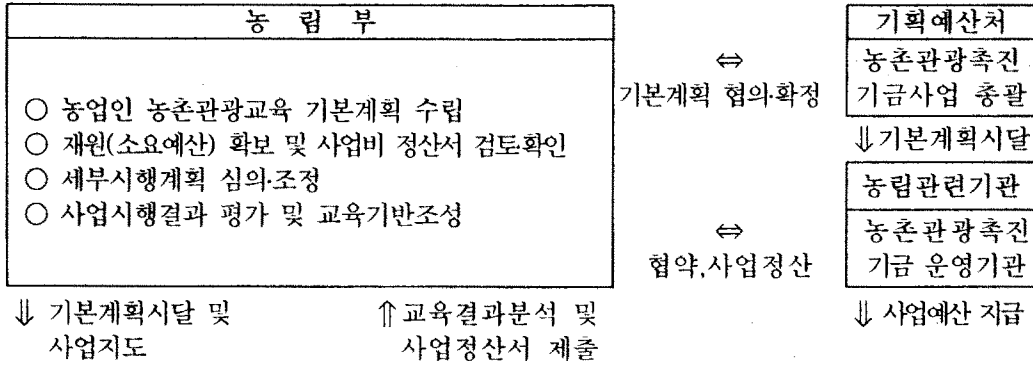
조사목적은 농촌관광 중장기발전계획 및 연간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함으로 합리적인 농촌관광 계획의 수립과 교육생 선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교육수요자의 업무특성과 관련된 기술·지식능력수준 등 직무분석과 교육과정개발 및 교과편성, 교육추진방법 등을 위한 요구도 조사한다.

또 피교육자 소속기관에서는 농촌관광의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으며, 모든 대상자가 적기에 교육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조사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

3) 관련 법·제도

농업·농촌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농촌관광)에 따른 농촌교육의 체계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체계도를 만들 수 있다.



<그림 4-5> 추진체계

4)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내실있는 농촌관광 수요조사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수요조사 실시로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농촌관광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커리큘럼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개편을 해야 한다.

교육생에 적합한 교육기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과정을 수요자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해야 한다. 또 과정별 교육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

<표 4-18> 교육기간과 시간

과정	소요기간	소요시간	대표 교육기관
초급과정	1-5일	6-30	전국 시군구
중급과정	3개월	300	광역단위 또는 중앙
고급과정	6개월	600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육방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강의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사례연구·토론 등 참여식·경험식 교육방법을 확대하되 교육대상 및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교육과정 설계단계에서부터 과정별로 적절한 교육방법의 선택 및 새로운 교육방법의 개발·활용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하며 현장 체험교육은 현장 체험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농촌관광 평가를 철저히 실시해 능력있는 교육생을 배출시켜야 한다. 공무원과 고급대상자는 관련 전문교육과정은 평가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유지해야 한다. 또 기초, 도시민과정은 저변확대를 위한 재미와 필요성을 역설해야 하며 중, 고급, 공무원 과정은 근태, 과제물, 실기실습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과정별 적정인원 유지

전문교육은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실습교육 위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정별 대상인원을 적정 교육인원인 10-30명 선으로 운영해야 한다.

(나) 지역과 중앙의 다양한 농촌관광기능의 전문성 신장
대표 전문교육과정 및 주문형 프로그램개발·운영한다.

(다) 『과정전담제』 운영

해당분야별 연구실이 교육과정을 전담하는 교육과정 전담제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개발시 사전조사, 교육수요자 의견수렴, 과정설계,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등 교육과정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의 품질을 개선하고 교육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라)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

농업인 농촌관광교육이 전국 약 1,550개 기관에서 3,500여회 실시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방대한 교육행정업무가 발생하며 이를 처리해야 한다. 현재 운영중인 교육관리시스템을 교육 시행기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확대개선과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한다.

(마) 유상교육 실시 및 수입대체경비 운영 합리화

수입대체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과정별 적극적인 교육생 유치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교육계획 수립이 교육과정별 총교육비 및 1인당 교육단가를 제시하여 유상교육의 효율적 운영 도모(교육생은 교육비의 10-20%부담원칙)한다. 또 수입대체경비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산회계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단 수익자부담 원칙이 모호한 강좌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한다.

5) 농촌관광 교육수료자의 활용

(가) 사무장, 레크리에이션전문가, 농촌관광지도사 등 증견지도자(중급수료자)

농촌관광 중급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중 증견 지도자로서 마을내 농촌관광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역량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 성실한 안내자

농촌관광지도자는 마을주민들을 위해 농촌체험현장에 나가기까지 성실한 안내자의 자세로 농촌관광과 지역개발활동 지도에 임해야 한다. 도농교류활동을 원하는 도시민들이 문의해 오거나 체험을 받는 동안 지도자는 성실한 안내자로 주민들을 이끌어 야 한다.

- 책임감 있는 조력자

농촌체험활동을 지도해 나감에 있어 중견지도자는 주민이나 체험객들이 체험과정에서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 주민들이 농촌관광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힘들어 할 때 지도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도와야 한다. 도움을 줄 때에는 먼저 주민들이 도움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이들이 도움을 청할 때에는 문제 해결 방법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 균형감 있는 조정자

조정이란 양쪽의 가운데에서 양쪽의 어느 한 편에도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농촌체험활동을 하는 도시민과 마을주민 사이에서 지도자는 이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갈등이나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조그만 여지도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정활동을 치밀하게 펼쳐 나간다.

- 도시청소년 농촌체험 전문가

청소년들의 농촌체험활동은 다양한 경험을 얻는 학습이다. 즉, 이들은 농촌체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배움을 얻어야 하고 지도자는 이들이 농촌의 소중함과 필요함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청소년기는 매우 민감한 시기인 만큼 청소년들의 감정이 혹 다치지 않도록 체험과정에 있어 세심한 언어구사와 행동처리를 해 나가야 하고, 이들 청소년들이 농촌체험을 통해 인성을 계발하고 덕성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자발적인 사회계몽가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사회 활동으로서 자원봉사 지도자는 스스로 사회계몽가임을 자처할 줄 알아야 한다. 농촌사회가 과소화와 저부가가치화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는 만큼 중견지도자는 농촌관광과 지역개발로 사회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신념으로 일해야 한다. 즉, 도농교류와 농촌관광을 지도함으

로써 아래로부터 지역사회를 다시 회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일조 한다는 자세로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나) 핵심지도자(고급수료자)³¹⁾

핵심지도자는 마을의 최고지도자로서 지성과 덕성을 함양하면서 마을비전을 제시하면서 마을의 여러 가지 문제와 대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 핵심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전문가(Specialist)의 역할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지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로, 봉사, 야외 레크리에이션, 문화예술, 스포츠, 인성개발, 갈등지도, 지역문화, 환경보전, 국제교류, 동아리 등 기관운영과 행정과 수련도구 활용법에서 농촌관광 행사기획 진행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보유해야 한다.

- 설계자(Planner)의 역할

농촌관광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지도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워 그 시행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 격려자(Encourager)의 역할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조력하며 합리적인 지역사회 발전과정을 촉진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역사회지도자(Orientator)의 역할

농촌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부정적인 주민행동 및 심리적 부적응 등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또 농촌관광 중견지도자는 지역의 갖가지 문제에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교육하는 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

- 분석자 및 예술가(Analyst & Artist)의 역할

농촌관광지도사는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안목과 합리적인 대응방법 및 순발성, 조화성 다양성 등의 예술가적 특성을 보유해 마을계획을 세워야 한다.

31) 작은 마을이나 처음 농촌관광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핵심지도자도 마을사무장이나 레크리에이션, 마을컨설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5. 교재개발과 강사선정계획

5.1 기본방향

- 인쇄물교재와 시청각교재로 구분하여 개발과 제작
- 교육교재는 과정별로 기본 교과목을 선정, 교육목표와 피교육자의 수준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편성
- 부처간의 연계 방안 수립해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도농교류센터와 콘텐츠 공동활용 방안 수립추진

인쇄물교재와 시청각교재로 구분하여 개발과 제작을 하고 교육교재는 과정별로 기본 교과목을 선정, 교육목표와 피교육자의 수준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편성해야 한다. 시청각교재는 기술보급이 절실한 과제를 선정, 자체 제작하거나 구입 또는 복제한다.

농촌진흥청 농업전문학교 교육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화상학습을 2005년도 실시를 위한 교재도 공동 개발해야 한다.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의 교과목과 농업계 대학의 전문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교육콘텐츠를 공동개발, 공동 활용한다.

<표 4-19> 교재제작과 활용

업무명	공동활용 자료명	주요내용	활용 주기	제공 기관	비고
도농기초 교육	기초교육 교재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그린투어리즘 입문 민박관리 방법 기초 등	연중	교재편찬 위원회	온라인 교재
중급교육 농촌활성화기술 교육콘텐츠	농촌활성화 관련 외국자료	농촌활성화 관련 자료를 소개	연중	도농교류센터, 농전	교재
고급전문교육 콘텐츠	분야별 경영관련 자료	마케팅전략, 경영분석 등	연중	농업전문학교, 전국 22개 농업계 대학	교재
인터넷 교육교재개발	농가민박 등 기초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교재 개발	쉽고 재미있게 하고 농가연계에 중점	연중	농전 혹은 방통대 및 전문기관 외주	온라인 교재
공무원교육	농촌관광지도	도농교류와 농촌지도방법론	연중	농업전문학교	교재

- 소득과 지역개발, 사회와 가정이 공동으로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

- 지역개발과 소득관련 주민교육 연관성이 유지
-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교육에서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내용
-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에 충족
- 농촌교육 분야의 교육적 노력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 학교교육과 동일한 자격 인정
- 직업을 중심한 각종 교육 및 훈련 과정은 연한에 구애됨이 없는 단위제 프로그램이 개발

부처간의 연계 방안 수립해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도농교류센터와 콘텐츠 공동활용 방안 수립추진하며 농촌진흥청과 농업관광 연계방안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2 교재편찬

- 교재발간은 수업이전에 가능하도록 하며 과정 후에도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수업관련 자료와 교육사이트를 개설 인터넷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수업교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를 발간
- 교육과정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교재의 원고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할 강사로 하여금 집필케 하되 생활과학기술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을 중점 수록한다. 선택전문교육과 특별교육 교재는 해당 분야의 지식을 교육기간 내에 학습할 내용에 국한시키지 않고 업무 수행시 필요한 자료를 폭넓게 수록한다.

교재 개발의 원리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Neville Grant(1987:120)에서는 교재 평가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 자를 따서 CATALIST로 통용해도 좋을 듯하다.

- ① Communicativeness(의사소통성), ② Aims(목표성), ③ Teachability(교수성), ④ Available Add-ons(부교재의 활용가능성), ⑤ Level(학습자의 목표 수준), ⑥ Impression(매력), ⑦ Student Interest (학습자의 흥미), ⑧ Tried and tested (검증 가능성)

이러한 평가 기준은 그대로 교재 개발의 원리로 대치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종합하고 덧붙여 다음과 같은 교재 개발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재발간 계획

교재발간은 수업이전에 가능하도록 하며 과정 후에도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업관련 자료와 교육사이트를 개설 인터넷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표 4-20> 교재활용방안

구 분	도농교류센터	농촌진흥청 (농업전문학교)	농업계 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대학 등)
농촌관광 기초교육 교재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공동활용		
농업기술관련 영상자료		공동활용	
교재 및 교육콘텐츠 개발		공동활용	공동활용

수업교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를 발간해 교육과정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농촌관광 관련 교재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전문강사가 자신의 강의내용을 집행기관에서 편집해 교재로 내놓는 실정이다. 이런 결과 과목당 연계성이 약하며 교재의 목적성이나 학습자 목표가 불분명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없는 실태다.

따라서 공동교재편찬위원회를 마련해 교재를 편찬하고 이를 보급해 기초와 중급수준까지 빠른 교육을 실시 보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5.3 강사수급계획

- 5,000명 수준의 교육을 위해서는 강사 배가계획이 시급
-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지명도가 높은 강사를 분야별, 과정별로 적극 발굴,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
- 강사자원 DB구축 및 강사선정 과정을 시스템화

현재국내에는 몇몇 전문가들이 농촌관광분야를 교육하고 있으나 연 5,000명 수준의 교육을 위해서는 강사 배가계획이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지명도가 높은 강사를 분야별, 과정별로 적극 발굴,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강사자원 DB구축 및 강사선정 과정을

시스템화, 1차로 과정장이 선정 후 교육운영심의회에서 심의 확정, 설문조사 결과 3회 이상 계속 교육생 평가가 낮은 강사는 교체, 우수강사 유치를 위해 민간과 격차가 심한 강사수당 현실화³²⁾ 등이 요구된다.

전문지식 소유자의 자체 교수요원 확보 및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 즉, 교육학, 농업, 경제분야 학위 소지자 등을 교수요원으로 확보하고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교수요원으로 배치하며 교수요원 1인 1과목 전담강의제 도입하거나 대학 및 민간교육기관의 교육관련 프로그램 교육에 참가시키는 방안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1) 기초교육강사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농촌관광학과를 2005년도에 신설해 2006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아 이들이 장기적으로 기초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2004년과 2006년까지는 현행 농업기반공사, 농촌지도사, 지역 전문인력중 희망자에게 특별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이들이 지역에서 농촌관광교육을 시키도록 한다. 기초교육 강사는 복합시군교육을 실시한다면 약 500인 정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100개소에 5인이 필요하다. 즉, 농촌관광기초, 민박기초, 조경 및 경관기초, 마케팅기초, 마을계획기초를 강의할 교수가 필요하고 이들은 관련대학의 학과를 전공하고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과 각 도별로 각각 50인 정도의 강사가 필요하며 서울의 경우는 도농교류나 기능교육 농촌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칙으로 한다. ①농업기술센터, ②농업대학, ③농협, ④농기공 도농교류센터, ⑤민간, ⑥언론사, ⑦지자체 등이 교육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중에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민간기관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32) 공무원 교육기관 : 1015만원, 민간기관 : 30100만원

<표 4-21> 그린투어 관련 대표강사

분야	강사	비고
농촌현실	강준성(농업기술자협회), 김성훈(중앙대), 한갑수(전 장관)	강사발굴 시급 이슈부분 개발 강의 체계화 일부분 편중
그린투어원론	류선무(경북대), 최동주(농업기술자협회)	
교류체계	박진도, 김선기(농협), 송한철	
역사계획	강동진, 전영옥(삼성)	
마케팅 유통	김성진, 조완형, 임영진	
정책	조원량(농림부), 전영미(농림부)	
관광	송광인(전북대), 강신겸(삼성경제연구원)	
농촌계획	박시현, 송미령(농경연), 임경수(이장),	
농촌개발	유상오(경향신문), 이동근(서울대), 박영선(도농교류연구소)	
자원개발	박석희(경기대), 이규민(상명대)	
관광행태심리	엄서호(경기대), 서주환(경희대), 임승빈(서울대)	
마을계획	박영선(전국농업기술자협회), 오형은, 황길식(명소)	
향토산업	황중환(지적재단), 이내수(향토재단),	
주민갈등	김용근(시립대), 최수명(화천군)	
마을현황	한상렬(토고미), 박천창(농길), 주영노(문당리)	
농촌경영	성진근(충북대)	
도시민교육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	
먹거리개발	김화님(농진청), 손상목(유기농, 단국대)	
외국사례	김경량(강원대), 유상오, 박시현	
벤처성공	민승규(삼성경제연구원)	
원예	박석근(전 신구대)	
관광계획	김향자	
지역리더	유정규(지역재단)	
생태	박병상(인천환경연), 김경화(녹색연합)	
조경	안동만(서울대), 조정진(시립대), 김성일(서울대)	
문화관광	김규원(문화정책개발연)	
전통놀이	김재일(두레)	
조명	김경인(VJ컨설팅)	
리더십	김갑수	
주민참여론	김일태(시립대)	
수경정비	이은희(서울여대)	
경관 어머니티	김상범(농진청), 엄대호(농기공), 이상문, 허준(협성대)	
농산물가공	강광파(소시모), 김태영(농진청)	
농가주택	김정호(건축사)	
마스터플랜	박영선(전국농업기술자협회), 오형은	

2) 중급교육 강사

현행 한국농업전문학교의 농촌관광 최고지도자과정을 확대 개편해 농촌관광학과를 설립해야 한다. 2004년도 농촌관광학과를 개설한다면 전문교수인력이 이들을 체계적

으로 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도농교류센터가 중급과 기초과정을 적극 교육하도록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광역시도단위에서 중급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 강사는 약 100인 정도가 필요하다.

10개소에서 10인의 강사가 농촌관광, 민박, 조정, 경관, 마케팅, 마을계획, 지역개발, 지도자육성론, 법제도교육, 도농교류 등을 강의해야 한다. 이들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들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급교육 강사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농촌관광학과 설치 후 이 과에서 교육을 전담하도록 하고 현재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관광학과 설치 후 전담교육을 위해 최소 교수요원이 5-7인이 요구되며 이들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후 상당기간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요구된다.

농촌관광학과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1년에 500명의 고급인력육성을 위해서는 이들 교수 외에도 전문가집단의 적극적인 교육과정 참여가 요구되며 인적 시스템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급과정과 공무원과정은 중앙에서 교육실시를 하여 전국적인 일관성과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①한국농업전문학교, ②민간, ③농과대학, ④농기공 등에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도농교류센터에서는 전반적인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교육을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초급과 중급의 일부를 교육하고 고급교육은 민간과 농전, 농과대학 중심으로 수행해나가는 것도 방안이다.

5.4 교육평가

- 농촌관광 성적평가는 평가항목의 합리성과 공정성·객관성이 보장되도록 농림부의 평가관리
- 교육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교육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의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 교육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도 충분히 고려
- 농촌관광 종합평가회 및 계획심의회 운영
- 농촌관광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으로 농촌관광의 내용·방법을 논의하고 운영

1) 교육성적 평가

농촌관광 성적평가는 평가항목의 합리성과 공정성·객관성이 보장되도록 농림부의

평가관리 규정에 의거해 세부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표 4-22>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구 분	학습평가	실습 및 연구평가		근태평가	합 계
		실습평가	연구평가		
공무원교육	60	10	20	10	100
중, 고급교육	-	40	50	10	100

자료)공무원연수원 교육평가

평가는 학습평가, 실습·연구 활동, 근태평가로 구분 실시한다.

- 학습평가 수료 전에 교육내용 전반의 학업성취도 평가
- 실습평가 실습목표 달성도 평가
- 연구평가 과제연구, 분임연구 등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
- 근태평가 피교육자의 교육기간 중 성실도 평가

농촌관광 이수 통보는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기간과 수료여부를 소속기관이나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교육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교육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교육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의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하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평가내용 및 방법은 과정수료 후 평가와 현장활용 정도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과정수료 후 측정>

- 내용 교과편성, 강사선정, 교육방법, 교육운영, 교육효과
- 방법 설문조사 또는 간담회 실시
- 대상 교육생, 강사, 교육운영자 등

<과정수료 12년 후 측정>

- 내용 농촌관광교육 결과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지식 및 기술의 활용, 새로운 교육과정 발굴, 연구결과의 현장 활용 및 연계
- 방법 현지출장 추후지도
- 대상 농촌관광 이수 후 일정기간 경과자

농촌관광 종합평가회 및 계획심의회 운영하며 이곳에서 농촌관광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으로 농촌관광의 내용·방법을 논의하고 운영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발전된 농촌관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농촌관광 환류 및 사후관리를 통해 농촌관광종합평가보고서 발간하고 평가결과 다음년도 농촌관광계획에 반영하며 우수한 실천력이 있는 지도자에게는 사례발표 강사로 초빙해 강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교육 이수생들의 네트워킹을 적극 추진 장려하고 이들 기구에 대한 다양한 진흥책 추진과 업무협조를 하며 새로운 농촌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교육이수생의 사후관리는 교육생 인적사항 및 연락사항 등을 교육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교육생DB 구축, 교육이수후 교육생 대표, 최고령자, 원거리교육생 등 56명에게 안부 전화, 교육수료 2일 이내에 수료확인 등의 행정사항을 처리하여 관련 기관에 즉시 공문 처리 등이 전부다.

이로 인해 1회성 교육추진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교육의 연속성이 미흡하고, 공무원인 경우 교육을 능력발전 보다는 승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 수동적으로 교육에 참여로 사후에 지속적인 관심 결여되며 교육생별 교육이수관리가 미흡하여, 과정과 수요자간의 교육수요 분석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이수관리체계 구축과 수료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이 요망된다. 특히 교육후 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라 수료생 DB 구축, 이메일 등을 통해 교육훈련정보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질의, 응답 기능 활성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정보 지속적 제공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생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이버모임방 활성화 할 수 있다.

5.5 인터넷 강좌 시행방안

- 도시민과 농민이 필요한 농촌관광교육과 정보를 손쉽게 활용해 학습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정보망 구축
- 그린투어중 농민의 관심이 크고 사이버교육이 용이한 교육과정 선정 및 시범 실시 후 단계적 교육시간 확대 실시
- 신규교육수요 발굴. 수록을 위해 도농교류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교육 수요를 발굴 교육
- 신규 농촌관광교육 서비스의 발굴, 기존농촌관광교육의 보완 등 수록정보의 내실화
- 농촌관광교육 DB의 인터넷 연동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

1) 농촌관광 인터넷교육 사업

언제 어디서나 도시민과 농민이 필요한 농촌관광교육과 정보를 손쉽게 활용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정보망 구축하며 목표시스템은 '05년도 농촌관광정보 DB/WEB 연동사업으로 구축 완료하고 농촌관광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5년 추진목표는 농촌관광교육 정보망을 형성하며 05-06년에 추진목표는 농촌관광교육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린투어중 농민의 관심이 크고 사이버교육이 용이한 교육과정 선정 및 시범 실시 후 단계적 교육시간 확대 실시한다. 또 농업인들의 편의 제공 및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학점제, Blended Learning 기법 도입하고 수료과정 중심의 사이버 Community 구성을 지원하여 동호인간 유대강화 및 지식·정보 교류를 촉진한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방송은 웹캐스팅은 방송이 인터넷으로 확장된 개념이 아니라 기존 미디어의 콘텐츠를 인터넷이라는 창구로 통합해 제공하는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일종이다.

기존 방송과는 차별화된 매체라는 인식 하에 웹캐스팅 또는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을 연속해서 재생할 수 있는 기술에 의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스트리밍 미디어(Streaming media)로 실시한다.

기존 방송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방송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공중파를 통한 전파전달 방식과 네트워크 대역폭을 통한 신호전달 방식이라는 기술적 차이에 있다.

인터넷 교육이 VOD에 의한 주문형 서비스와 쌍방향 교신을 통한 양방향 구조를 취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방송은 전파를 통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 정보전달 기능과 높은 영상품질의 콘텐츠 제공이라는 장점을 확보하고 있다.

<표 4-23> 기존방송교육과 인터넷교육의 비교

구 분		기존 공중파 방송교육	인터넷 방송교육
방송교육의 정의	방송 범위	Broadcasting	Webcasting
	커뮤니케이션 형태	일방향(one way)	양방향(interactive)
	전송수단	전파(공중파)	네트워크
	방송의 공익성	높음	낮음
서비스 내용	서비스 형태	문자 소리 영상 개별매체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중 지향적	특정계층 지향적
	내용규제	강함	약함
	방송시간	방송 편성 시간대	제한 없음
수용자 특성	수용자 대상	불특정 다수	특정 다수
	입장	수동적, 강제적	능동적, 선택적
	기능	소비자	생산자

<http://www.korwa.or.kr/korean/what/what01/what01.asp>

참조

(가) 사업계획

농촌관광교육정보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콘텐츠(Contents)를 보강하며 아피스 활용 혹은 새로운 농촌관광교육홈페이지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홈페이지를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 농촌관광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수단도 충분히 강구되어야 한다.

신규교육수요 발굴, 수록을 위해 도농교류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교육 수요를 발굴 교육하며 전국 커버의 사이버교육실시하며 사이버 네트워킹으로 농촌교육인력 정보제공과 운영효율 증대에 매진한다.

농촌교육정보 체계마련을 위해 정보서비스 속도 개선을 위한 인터넷과 DB 연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하고 기존정보내용 수정 및 보완해 연중 지속적인 추진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강사와 교재제작을 올해 안에 매듭지어야 하며 시스템운동을 제어할 관리자와 시스템전담을 한국농업전문학교 혹은 농기공 도농교류센터에 위탁 혹은 방송통신대에 위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추진실적 평가

신규 농촌관광교육 서비스의 발굴, 기존농촌관광교육의 보완 등 수록정보의 내실

화를 기하고, 농촌관광교육 DB의 인터넷 연동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홈페이지 접근강화를 위한 도메인을 추가, 홈페이지의 서비스 속도 개선, 농촌관광교육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등이 요구되며 도농교류센터로 하여금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기초마을 단위의 교류 증진책 마련을 시급하다고 지적함)

농촌관광에 흥미를 느끼는 도시민과 농민을 사이버 상에서 함께 학습하며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재 아피스 등 외부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농촌관광을 위한 내부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또“농촌관광교육관리시스템 보완”을 '04-5년도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아피스를 보완하는 것보다 현재로서는 greentour.or.kr을 활용하여 인터넷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왜냐하면 greentour.or.kr은 현재로서 가정 지명도와 완성도가 높은 사이트이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인터넷교육과 자료방, 모임방 등을 만들어 전국적 확산과 전파에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교육성적 평가

농촌관광 성적평가는 평가항목의 합리성과 공정성·객관성이 보장되도록 농림부의 평가관리 규정에 의거 세부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평가방법은 전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는 학습평가, 실습·연구 활동, 근태평가로 구분 실시
 - 학습평가 수료 전에 교육내용 전반의 학업성취도 평가
 - 실습평가 실습목표 달성도 평가
 - 연구평가 과제연구, 분임연구 등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
 - 근태평가 피교육자의 교육기간 중 성실도 평가

6. 지역혁신체계와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교육과 연계

6.1 참여정부의 新 활력지역정책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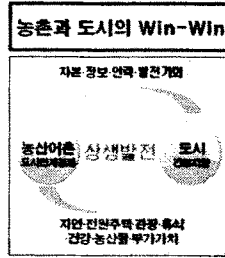
- 지역스스로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개발
- 그린투어는 좋은 사례로 평가

정부는 제 50차 국정보고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도시와 농촌이 대립적,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農都相生의 관계로 전환한다. 또 농촌의 역할에 대해 “수동적·의존적 발전이 아니라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농산어촌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산업이 융합된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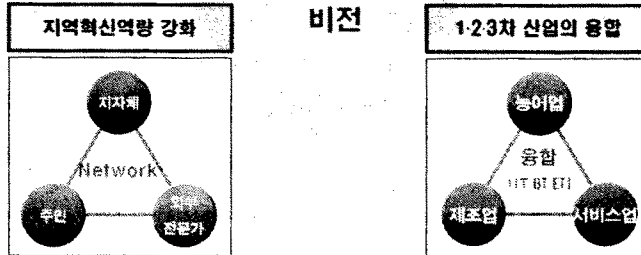
또 신활력추진정책 과제를 연구 검토해 농촌지역을 2023년에는 안정된 인구구조로 만들겠다는 발전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5대 중심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24> 신활력추진과제

추진과제	내용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스스로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발전 추진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SOC 확충	대도시권과의 교통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충
1차, 2차, 3차산업의 융합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 창출
農都相生을 위한 5都2村 활성화	5都2村(5일은 도시, 2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화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향상	발상전환을 통한 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등



新 『활력지역』



<그림 4-6> 신활력 비전구상도

자료) 제50차국정과제보고, 국가균형위, 2004.7

6.2 지역혁신체계구축과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교육

-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토론 및 학습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혁신을 창출
- 지역의 개성 있는 발전, 자긍심 및 자신감 회복 등의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나 홍보시책을 준비

지역혁신체계 안에서 교육은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교육자, 주민은 물론 출향인사와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보자는 것이다.

특히 산학협력이 강조되는 통상적 RIS와 달리 지자체, 주민, 외부 지역개발전문가 등의 역할이 중요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지역중심의 특성 있는 교육시스템마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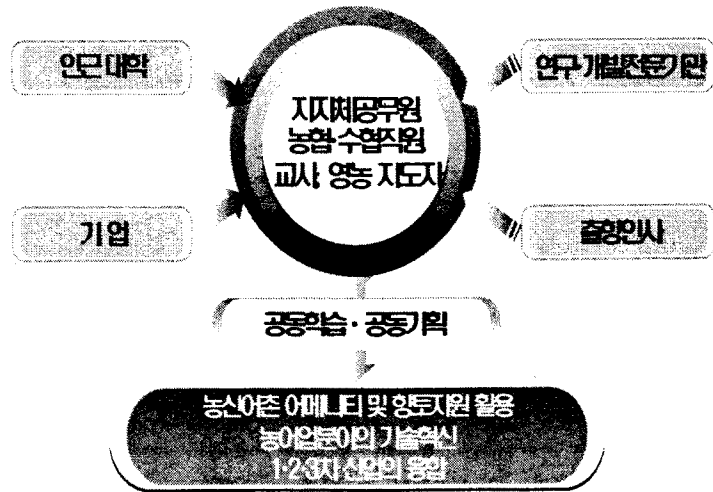
또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토론 및 학습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거나 지역의 개성 있는 발전, 자긍심 및 자신감 회복 등의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나 홍보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양한 파트너십에 의한 네트워킹을 균형위에서는 구상하는데 지역 내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자원주도형, 외부자원지원형, 내외부자원결합형 등의 모델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모델을 만들려 한다.

- 내부자원 주도형 : 예) 전남 함평군
 -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혁신을 주도
- 외부자원 지원형 : 예) 충남 금산군
 - 출향인사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이 혁신과정에 적극 참여
- 내외부 자원 결합형 : 예) 강원도 화천·인제군 등
 - 내부 인적자원과 외부 인적자원(인근대학, 외부기업 등)이 공동으로 혁신을 주도

또한 구체적인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구축지원방안은 아래그림과 같이 지역내 클러스터와 정서적 측면의 출향민 등이 결합해 공동학습을 기획 운영하는 것으로 어메니티와 향토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근간으로 고차산업화가 돼 지역이 발전한다는 논리다. 이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술혁신과 지역자원을 결합하면서 다원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림 4-7>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
자료)50차 국정정보고회, 국가균형위, 2004.7

균형위는 개방형 네트워크구축지원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의 포럼활동을 지원하면서 인근대학, 관광공사 등의 지원을 얻어 지역을 관광중심으로 특화발전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 기존의 농촌마을관광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혁신특성화 시

범사업 등을 전개하겠다는 전략이다.

주민학습 프로그램 운영측면에서는 농어업인 교육훈련과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이 능동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린투어에 대한 교육이 지속되지 않는 한 이러한 교육은 의미가 없으며 90년대 이후 줄곧 지속적으로 실시된 교육이므로 틀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리더 양성은 지역혁신리더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 전문가의 지역개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산어촌리더들이 이 코스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직 은퇴자를 오퍼레이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지원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

<표 4-25> 지역혁신체계속에서 교육과 리더양성

지원방안	주요내용	소관부처
개방형 네트워크구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자체의 포럼활동 지원 ○ 인근대학, 관광공사 등의 지원 등 ○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등 	산자부
주민학습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교육훈련 ○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농림부 농진청 정통부
지역리더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리더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 ○ 지역 전문가의 지역개발 전문교육 과정 이수지원 ○ 전문직 은퇴자 활용 *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등 	균형위 과기부

지역혁신프로그램과 농촌관광교육은 큰 줄기에서 대동소이하나 균형위는 교육체계를 지역의 클러스터에서 활용방안을 찾고 있고 본 연구는 국가전체의 시스템 속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차이점 외에 전반적으로는 유사하다.

앞으로 지역혁신체계 속에서 농촌관광과 지역균형개발의 개념이 함께 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정부지원도 원활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지역개발이나 농촌관광은 지역주민이나 지도자가 스스로 지역을 위해 해해야 하는 개념으로 먼 선주민운동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이것을 기반으로 정부당국이나 지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판단해 가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인다.

여 백

V. 결론

1. 예상결과
2. 정책제언

여 백

V. 결론

1. 예상결과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아직 초기단계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한국형 지도자 육성에 대해 대안을 만들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역지도자는 교육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보다 주영로나, 홍쌍리 등과 같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즉, 선 지도자의식개발 후 행정지원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선도성을 존중해 주는 교육방식도입도 요구된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 현장성 중시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 학교교육이나 집합교육보다 현장에서 지도자의 역할이나 민박 등을 하면서 느끼고 익히는 것이 교육적 효용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그린투어교육이나 리더 중에는 노인과 여성이 많이 있으나 우리 경우는 이러한 면이 부족하다. 따라서 노인과 여성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들의 농촌사랑과 교류의 소신을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독일, 오스트리아 농가전문학교)

넷째, 지역의 도시에서 온 오퍼레이터의 역할이 초기에는 강하지만 점점 약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랭이마을이나, 한드미마을의 경우 지도자가 외지에서 온 오퍼레이터이나 이들이 마을의 기존 질서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바 이들을 지원해 줄 방안과 지역민과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지역의 민간사회안전망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1.1 인력육성방안

- 공공과 민간 등을 통해 체계적인 농업인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실제 민박과 농촌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타 교육기관의 농촌관광 교육과 차별화
- 농업인 농촌관광마인드 확산과 도농교류 교육 기반체계 확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재택·반복교육, 상위 전문과정의 교육이수를 위한 사이버학당 원격콘텐츠를 농촌관광경영관련 분야로 대폭 확충

농촌교육 취약계층인 농업인과 지도자의 집합교육 회수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인원을 축소하여 내실 있는 교육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기본적인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점검하게 된다.³³⁾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먼저 농업관련 기관인 농협, 농업기술센터, 농과대학, 도농교류센터, 민간 등을 통해 체계적인 농업인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실제 민박과 농촌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타 교육기관의 농촌관광 교육과 차별화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강사진이 구성되어야 한다. 즉,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 기관 종사자의 농촌관광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

셋째, 농업인 농촌관광마인드 확산과 도농교류 교육 기반체계 확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즉, 교육종합관리, 강사관리, 시행기관관리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관리시스템(www.green.or.kr/www.eduaffis.net)의 개선과 운영이 요구된다.

넷째, 재택·반복교육, 상위 전문과정의 교육이수를 위한 사이버학당 원격콘텐츠를 농촌관광경영관련 분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농업의 관광화 경영을 위한 농촌관광용 S/W 확대 개선, 보급 실시와 활용교육을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33) 본 연구의 계획에 따르면 가정이지만 집합교육 회수는 '04-06까지 연 280회 총870여 회 실시예정이다. 또 집합교육 인원은'04-06까지 총 22,200명으로 10-30명 강의에 토론교육이 가능할 예정이다.

2. 정책제언

- 시행초기에는 과정별 교육내용이 차별화 되지 못하고 수준에 맞춰 선택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만족도 떨어질 가능성이 예상
- 교육과정과 내용이 교육생의 수준, 교육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보다 명확한 구분이 필요
- 교육 희망자의 활용 유형에 따라 기초심화 등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도시민교육과정은 민간기관과 언론기관을 적극 교육해야 할 것으로 사료

교육과정을 기초-중급-전문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나, 초기과정에서는 과정별 교육내용이 차별화 되지 못하고 수준에 맞춰 선택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만족도 떨어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과정과 내용이 교육생의 수준, 교육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보다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교육이수자, 희망자 만족도조사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 요구 및 과정별 전문화와 차별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방안 마련).

단계적(기초-중급-고급) 교육을 통해 농업인 농촌관광과 도농교류활용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나, 과정별로 교육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상하위 교육연계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희망자의 활용 유형에 따라 과정을 구분하고, 과정 내에서 기초심화 등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하며 특히, 도시민교육과정은 민간기관과 언론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농교류센터, 농업연수원, 농업정보119대학을 통해 그린투어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전문교육편제로 전환이 요구된다. 한편 농업전문학교의 경우 그린 투어리즘 교육과정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농전에 그린 투어리즘 관련 학과설치와 전국농대에도 학과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농촌관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고급과정은 농업연수원, 22개 농업계대학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의 내실화와 농촌관광용 SW보급 및 그린 투어리즘 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 적극 모색해야 한다. 고급과정은 한국농업대학이나 22개 농업계 대학에서 실질적인 그린 투어리즘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개선하고 대학을 평가하여 교육을 내실화하고, 수요 증대에 따라 점진적 확산 유도한다.

농업인 교육이 시군읍면의 농업관련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나, 전사적·지속

적 홍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중앙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홍보와 지역(시군읍면) 단위 기관별 홍보가 연결 되어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표 5-1> 농촌관광교육의 기본시스템

분류	내용
농촌지역관광의 지도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개 집중투자 마을의 지도자를 교육시킴 -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녹색농촌관광을 추진 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의 육성 - 프로그램 오퍼레이터와 지역매니저 교육
농촌관광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현장중심교육 실시와 국내외 선진지 체험기회의 부여와 지원사업을 전개 - 근거 법의 마련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
지역별로 그린투어와 지역개발의 역량강화를 위한 육성지원 조례(가칭)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행위 및 각종 인허가, 지원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차원의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기본시스템 구성 녹색농촌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도농교류센터)의 확대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공사 도농센터안에 녹색농촌관광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운영 - 도, 시-군, 유관기관,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지역 전체가 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 - 도, 시-군에서 녹색농촌관광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가를 양성 - 주요 업무는 ① 농촌민박 홈페이지 작성, ② 이벤트 계획 및 실시, ③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진, ④ 연수 및 세미나 개최, ⑤ 홍보 및 민박 안내, ⑥ 규제 완화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건의 및 사업발굴 등

<표 5-2> 중간 리더양성필요

분류		내용
중 견 인 재 양 성	주민교육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숙박 서비스와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
	전문지도사의 양성	- 지역의 관광 명소 안내, 체험활동 및 스포츠지도, 응급조치 등의 가이드
	지역 오퍼레이터 및 컨설터(Consulter)의 양성	- 녹색농촌체험 추진계획을 이끌고 마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
	지역 오퍼레이터양성	- 지역발전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필요

<표 5-3> 교육매뉴얼 작성

분류		내용
교 육 - 훈 련 및 매 뉴 얼 작 성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단위에서의 매뉴얼 작성	- 실천 과정에서의 발생 문제 해결, 경영 아이디어의 창출에 활용
	매뉴얼의 내용	- 정책변화, 시장 전망, 도시민의 요구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여건 설명 - 마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형태와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방법 - 관련기관의 역할 및 지원 내용과 관련제도 해설 - 토지이용, 건축행위, 영업행위 등 관련법과 제도 - 계획과 실천단계에서 해야 할 사항 - 지역여건분석, 사업아이템 결정, 마케팅전략수립, 필요시설계획, 주민조직화, - 자금조달 계획, 투자 수익성 분석 등 - 관련 교육 프로그램 해설 및 홍보 또는 네트워킹 방안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실시	- 주민 전체를 위한 개괄적인 교육과 지도자를 위한 교육, 지도요원 및 전문가양성 교육

여 백

참고 및 인용문헌

참고 및 인용문헌

1. 유럽 농촌개발정책 및 농촌관광연수 보고서
http://www.affis.net/portal/publish_html/new_info_agri/trend/
2. 국내 농촌 관광 발전 방안
<http://www.happycampus.com/pages/2004/01/16/D2755684.html>
3. 농촌관광의 발전방향-사례를 중심으로-
<http://www.happycampus.com/pages/2002/10/30/D1140146.html>
4. II. EU의 농촌개발정책과 농촌관광
<http://www.allim.go.kr/download1/bodo/maf030915-08.hwp>
5.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농촌관광
<http://www.reportworld.co.kr/data/163/F162942.html>
6. <http://www.kouryu.or.jp/school>
7. http://www.pref.horoshima.jp/industrial_economy/farm/
8. <http://www.pref.horoshima.jp/nourin/noukikaku/shoku8/shoku98w/syoku22.html>
9. <http://www.pref.kochi.jp/~nousei/norinbu/nousei/1300-01.htm>
10. <http://www.pref.kochi.jp/~nouse/norinbu/nousei>
11. <http://www.weli.or.jp/exchange/>
12. 2003년도 농촌생활과학교육훈련계획, 농촌생활연구소
13. 박시현(2004),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의 역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허장, 정기환(2002), 농촌마을리더십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 <http://www.korwa.or.kr/korean/what/what01/what01.asp>
16. <http://www.green.or.kr>
17. http://www.maf.go.kr/asp/05_data/data01_0202.asp
18. 손영수, (2001), 한국인사관리협회(<http://www.kpiok.co.kr>)
19. 오정환, 롯데연수원장, 리더십과 국가경쟁력세미나 2002. 9. 13
20. <http://www.korea4-h.or.kr>
21. 교육부, 전국 유. 초. 중. 고. 대학 일람표(2004. 4. 1기준)

<http://cesi.kedi.re.kr/jcgi-bin/index.jsp>

22. <http://www.forwoman.or.kr>
23. 정철영 (2002), 21세기 농업인력 육성세미나, 서울대
24. 김남일, 인구변화와 한국사회미래에 관한 세미나, 통계청, 1997.11
25. 조선일보, 2020 미래로 가자, 2002-03-05, 39면
26. <http://www.saemaul.com/training/educ1.html>
27. 정경일, 계간 [새길이야기] 10호, 2003 가을
28. 경향신문 디지털 노마드 특집 홍쌍리여사, 2004-10-05
29. 월 스트리트 저널, "한국 경제의 위기는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1997-12-12
30. <http://www.terrami.org/agroinfo/issue.html>
31. 이노우에 와이(1999), 구주연합의 농촌계획정책, 쓰쿠나미서방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 행 처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발 행	2004. 12
발행인	정 병 호
발행처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번지
	전 화 (031)400 - 1761
	FAX (031)400 - 1611
이 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단, 이 책의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